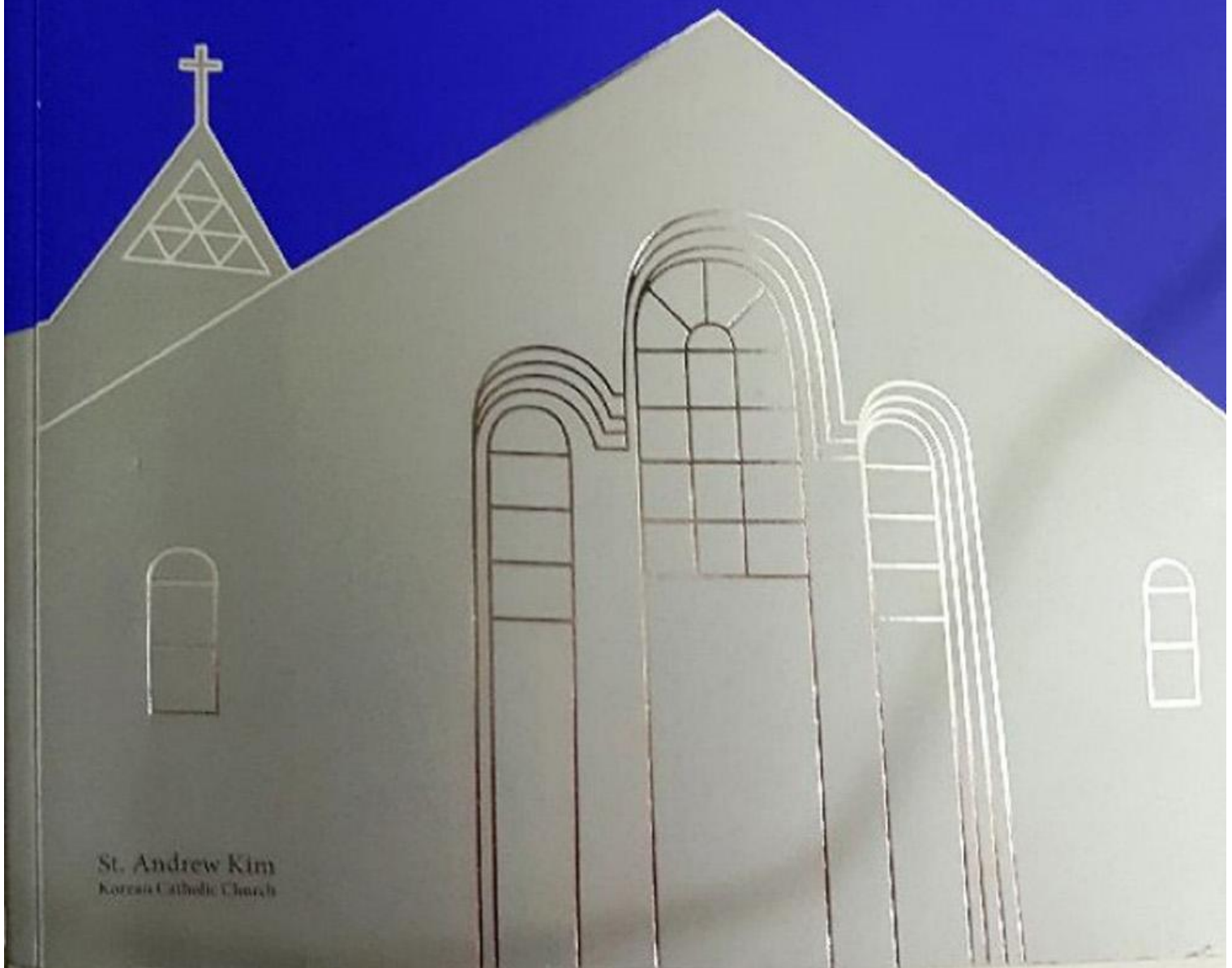


1974-2014

위성면 한인 천주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집

믿음의 40년 감사의 40년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 발간사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우리 본당 40주년 기념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대개는 50주년에 기념집을 내지만, 40주년이 지나는 성경적 의미도 있고,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본당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 기념집 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집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쏟아 온 노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오늘의 우리 본당이 있기 까지 헌신적으로 사목하셨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봉헌하셨던 모든 교우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당 공동체의 역사를 신앙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쁘고 좋았던 일들도 많았고 때로 마음 아팠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신하게 섭리해 주신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지나온 세월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추억과 따뜻한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 하느님 사랑 안에 우리 본당 공동체가 모두에게 영혼의 쉼터요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 사랑을 서로 따뜻이 나누며 살아가는 숲불 공동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기념집이 나오기까지 소중한 역사 자료와 마음이 담긴 글들을 봉헌해 주시고, 특히 자료 정리와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워싱턴 대교구장
도널드 월 추기경



Dear Father Kim and members of Saint Andrew Kim Parish,

As you celebrate and express gratitude to God for the faith and witness of Saint Andrew Kim Parish on its 40th anniversary, I rejoice with you in recognition of the illustrious history of the parish.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faithful of the parish have established and sustained a vibrant community of faith that also manifests its heritage and traditions.

The parish is at the very heart of the Church and her mission. In his first apostolic exhortation *The Joy of the Gospel*, Pope Francis writes, "The parish is the presence of the Church in a given territory, an environment for hearing God's word, for growth in the Christian life, for dialogue, proclamation, charitable outreach, worship and celebration. In all its activities the parish encourages and trains its members to be evangelizers. It is a community of communities, a sanctuary where the thirsty come to drink in the midst of their journey, and a center of constant missionary outreach." With you, I thank God that Saint Andrew Kim Parish has been a visible manifestation of these actions for 40 years.

Pope Francis in comments on the Vigil of Pentecost also observed that "The Church must step outside herself. To go where? To the outskirts of existence, whatever they may be, but she must step out. Jesus tells us: 'Go into all the world! Go! Preach! Bear witness to the Gospel!' (Mk 16,15)." This is the current and perennial mission of each parish, to become centers of the New Evangelization where all are called to proclaim again the goodness of the Gospel.

I join my prayer to yours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all of the Saint Andrew Kim Parish family as you gather in commemoration of the past, in recognition of the challenges of the moment and in renewal and dedication for the future.

With joyful best wishes and prayers, I am Faithfully in Christ,

Archbishop of Washington

✠ 축하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 찬미 예수님!

워싱턴 한인 본당 공동체에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워싱턴 한인 본당이 공동체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성전을 마련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공동체와 함께했던 여러 신부님들과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워싱턴 한인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총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섭리와 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이집트로 팔려 갔던 성조 요셉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고생하며 바쁘게 살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애와 본당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하느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욱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국어는 인간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나 형제자매들과 서로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인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우리가 정신적인 뿌리를 유지하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워싱턴 한인 본당 공동체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워싱턴 한인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화목하고 일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영 수경

축사



워싱턴 대교구
마틴 할리 보좌주교



Dear Father Jongwook Kim Michae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you and the parishioners of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on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your parish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It is with great joy and appreciation that we celebrate this historic achievement as your founding members have had such a tremendous vision and foresight in establishing an outstanding parish in order to address the spiritual, as well as the pastoral needs and concerns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s such a great blessing, in bringing the gifts of its language, tradition, food, dance, culture and many other talents that enrich our Church and the local civic community.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has instructed through its catechetical formation and spirituality programs hundreds of its members in preparation for the sacraments of Baptism, Reconciliation, the Holy Eucharist, Confirmation and Marriage, and its priest have also provided the Anointing of the Sick for those who are infirmed.

It is my hope that one day many young men may answer the call to a vocation to the Sacrament of Holy orders as a Priest or Permanent Deacon, as well as men and women to a call to Religious Life.

May God bless each of you throughout this year as you celebrate such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May Our Blessed Mother Mary keep all of you in the mantle of her maternal care, now and forever.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artin D. Holley

✠ 축사



이철호 암브로시오 신부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

✦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리려니 20년 전(1994년), 20주년 행사를 치르던 기억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시 일어나 갑시다'(마태 26,46)를 주제로 칼리지파크의 낡은 건물에서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어떻게 행사를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 하는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흠어진 자료들을 모아 20주년 책자를 만들고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여러 신부님들을 모시고 기념 미사와 혼인 축복식을 거행하던 일들…….

제가 떠난 후 훌륭한 신부님들이 오셔서 '약속의 땅' 올니에 새 성당, 새 건물을 마련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무척 기뻐고 치하의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외치고 싶었는데 그 뜻을 하느님과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안의 한국 사람들,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존재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태 1,23)에 중심을 두고 50주년을 향하여 다시 순례의 여정에 오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7-8)

✠ 축사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성지 칼리지파크에서의 추억

주님 안에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교우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먼저 본당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으로 보배와 같은 워싱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사목했던 6년의 시간은, 저에게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심 깊고 열심한 교우분들, 그리고 사제를 잘 보호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교포 사목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새 성전 올니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입당 미사만 하고 떠난 저는 아직도 칼리지파크 성전에서의 기억들에 머물고 있습니다. 120칸 화물 열차가 단잠을 깨웠던 철로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맙고 감사한 분들의 모습이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중에는 지금 하느님 품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사제 생활 26년 동안 워싱턴 교우들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목자와 함께하는 본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새벽까지 함께했던 건축위원들과 사목위원들, 그리고 에이지 그룹의 포장마차 사업,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희생과 노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워싱턴 한인 성당이 40년의 풍상과 함께, 역대 신부님들의 노고와 교우들의 피와 땀으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5)

교우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민 생활의 애환을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입신부님을 중심으로, 마음의 성전으로 풍요롭게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3월 23일 서울 둔촌동 성당에서

✠ 축사



박용일 타대오 신부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을 광야에서 기도와 단식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봉제 시기라고 하는 사순절 40일을 묵상과 계개로 보냅니다. 본당 설립 40년을 돌이켜 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 연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워싱턴 성당이 처음 시작되어서 신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모일 때 옆 성당인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에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분쟁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칼리지파크로 이사 와서 신자들이 열심히 다닐 때 알린 조지 여사와 함께 성령 대회로 성령 체험을 함께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당 자리인 옥수수밭을, 그 당시는 물론이요 현재에도 다른 성당은 상상하기도 힘든 너무나 넓고도 넓은 옥수수밭을 구입하고 힘들어할 때, 당시 주임신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큰 성전을 건립한 신부님도 계셨고, 교리실과 교육관을 설립한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때에도 뉴저지 한인 성당에서 기쁨을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사제관과 성당, 성상 등을 마련하는 작은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회가 깊은 성당입니다. 워싱턴 성당에는 제가 사랑하는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여인들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워싱턴 성당에는 토마스 사도처럼 손가락을 예수님의 오상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충직한,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도 믿습니다.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워싱턴 성당이 40년을 성장하였고 앞으로 40년 곱하기 40년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성당 일을 자기 집안사나 비즈니스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직한 종들입니다. 이 충직한 종들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간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들과 대화하고 웃고 있습니다.

성당 40주년을 축하합니다.

✠ 축사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

본당 40주년을 맞이하며

40년.

위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이 주님과 함께 지내 온 시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우리 본당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40년의 시간을 잘 지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본당과 함께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교우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먼저 늘 우리 본당과 함께해 주시고,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갖 수고를 마다 않으신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 본당 설립 4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 본당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길 다짐하고, 실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 모두가 본당 설립 40주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영광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모든 교우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축사



이 아그네스 수녀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네.”라는 응답을 드린 서원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순명의 삶입니다. 저는 뉴햄프셔 ‘성가정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들과 함께하면서 작은 텃밭에 질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 수확한 것들을 공동체와 이웃에게 나눠 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땅에서 배우는 기쁨을 찾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누구나 운전은 필수인데 저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에게 본당 신부님께서 봉성체 봉사를 하는 형제님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네.”라는 순명의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의 시간으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봉성체 봉사를 하는 형제님과 함께 앤드류 하우스의 할머니님을 찾아뵈었을 때였습니다. 형제님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머니 수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 수녀님’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한순간 당황하고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할머니 수녀님’이라는 단어가 따스하고 정겹습니다.

주일에 본당 신자들을 만나면 가족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반갑게 인사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저 자신을 볼 때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의 형제자매로 겪었던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랑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아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더욱 짙게 하나 봅니다.

자주 친근하게 인사하던 신자분 중 한 분이라도 뵈지 못한 분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그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작은 손길, 부드러운 미소, 따스한 말 한마디가 주님을 닮아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국과 고향, 가족 친지들을 떠나온 이민 생활의 외롭고 힘든 나날들 속에서도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형제자매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로 부르신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례 봉사를 하면서 세 분의 신부님들과 신자분들과의 만남들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부딪혀 나아가며 알게 된 이민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함께 나누려는 선행에 하나님께서는 현존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영적, 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우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기에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수도자의 삶을 기쁘게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신자분 모두가 본당 주임신부님의 지도하에 일치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복음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축사



안 다니엘 수녀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위성틴 한인 천주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 4월부터 성인 에미자 교리를 시작하면서 이 본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인 교포 사회에서 1974년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처음 자리를 잡아 나갈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을 연세가 많으신 주위의 몇몇 신자분들을 통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당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본당이 있기까지 여러 신부님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한인 교포 사회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밑거름 역할을 하신 그 모든 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열성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년여 동안 본당의 많은 활동 단체들과 신심 단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본당에서 보게 되는 정말 멋진 것 중 하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이 세대 속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선구자 역할을 앞으로 질해 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드립니다.

✦ 인사말



사목회장 손순희 시문

광야의 40년, 기적의 40년, 행복의 40년

테평양을 건너 여기 포도백 강 기슭에 터전을 잡은 지 40년이 흘러, 오늘 우리는 감격의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년의 여정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가 있지만, 우리의 지난 여정도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이었고,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이곳 울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맘과 피와 눈물이 어우러진 비찬 역사의 증인이며, 지금도 힘차게 현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겐 귀한 신앙생활의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돼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나 다시 한 번 행복에 젖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에도 돌을 세우고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발자취를 남기고 다음 세대가 지난날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여기 한 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캘리지파크에서 기차 소리, 기적 소리 들으며 미사블 드리고, 포장바차, 마자회, 김치무대의 희생과 진 교우들의 '주님의 사업엔 실패가 없다.'는 순교 정신과 일치단결로, 지금의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은총과 기적의 울니 청신으로 이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동안의 봉사와 희생, 환희의 함성, 모람찬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하느님,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의 하느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하느님, 위싱턴 한인 천주교회 전임 신부님들, 현 김종욱 마카엘 신부님, 김기환 루카 신부님, 이 아그네스 수녀님, 안 다니엘 수녀님의 하느님!

저희 교우들의 지난 40년의 희생과 고난을 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난날의 뼈를 깎는 아픔과 가슴 저려 오는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더 희망치고 더 큰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능력의 필과 성모님의 자애로운 은총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어, 더 큰 영광 올리게 하소서! 아멘.

1 9 7 4
2 0 1 4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40년의 역사

1. 태동기

2. 칼리지파크 성전 시대

3. 올니 성전 건축

4. 올니 성전 시대

5.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미사와 행사

원로 교우와의 대담: 남규백 형제의
'네 가지 기적'

특별 간담회: 김치부대 자매님들의
본당 사랑



1965~
1980

1960년대부터 이어 온 워싱턴 한인

공동체는 1974년 워싱턴 대교구의 정식 인준을 거쳐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시작을 알렸다. 본당의 기틀을 마련한 왕영수 초대 신부와 한 바오로 2대 신부를 거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1. 태동기

– 워싱턴 한인 신자 공동체의 태동

1960년대 워싱턴 지역 한인 사회는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한인들만을 위한 미사를 원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생겼고, 방법을 찾던 중 1965년 10월 내셔널 슈라인(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의 허가를 받게 됐는데, 이때부터 한인 공동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은 당시 하얏츠빌에 거주하던 박 요한 형제가 주도했는데, 당시 내셔널 슈라인의 토마스 몬시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는 한국인을 위한 저녁 미사를 한 달에 한 번 루르드 성당(Lourdes Chapel)에서 봉헌할 수 있도록 헤르만(Herrmann) 몬시뇰에게 허가받았습니다. 헤르만 몬시뇰은 성당 사용을 위해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이 모임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 모임은 종교 활동만을 위한 것이기에 모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어느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미사를 드릴 계획인지 날짜를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길.”

1965. 10. 21. 토마스 몬시뇰(Rev. Msgr. Thomas J. Grady Director)

– 한국어 미사 봉헌

1970년대에 들어서자 워싱턴을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던 한국인 신부와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신부들의 주례로 한국인을 위한 미사가 자주 봉헌됐다. 특히 1973년 봄에는 김창문 요셉 신부가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워싱턴 한인 신자 공동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김 신부는 1923년생으로 1950년 11월 사제품을 받은 부산 교구 소속 사제였다. 김 신부는 뉴욕을 방문했다가 워싱턴 지역에 한인 사제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워싱턴에 내려오게 됐으며, 1973년 5월 1일 당시 워싱턴 대교구장이었던 패트릭 오보일 대주교로부터 교구 내에서의 성사 집행 허락을 받고 한인 공동체를 이끌었다.

1973년 4월부터 한인 신자들도 ‘대워싱턴 한인 가톨릭회’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동체를 구성했다. 당시 고문은 장봉천, 강영훈, 김성구, 장극, 회장은 김현태, 김상규, 평의원은 김인석, 이종목, 김명길, 이덕선, 김명수, 이태권, 김두환, 이 세실리아, 김인호, 김헬렌이 맡았다. 6월부터는 베테스다에 있는 세인트 제인(St. Jane de Chantal) 성당에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오후 3시에 미사를 드렸고, 한인 가톨릭회 회보도 발간했다. 당시 한인



김창문 요셉 신부

신자들은 '새 신자 찾기' 운동을 벌였는데, 8월 등록 신자 가구는 66가구로, 그중 워싱턴 DC 9가구, 메릴랜드 26가구, 버지니아 31가구였다.

하지만 그해 가을 김창문 신부가 부산 교구의 인사 명령에 따라 귀국하면서 한인 공동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 워싱턴 한인 교우들의 사정은 김 신부에 의해 부산 교구에 알려졌고, 부산 교구장 이갑수 주교는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왕영수 신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설립과 왕영수 초대 주임신부 부임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1974년 3월 19일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초대 신부로 부임했다. 부임 미사는 3월 24일 카푸친 칼리지(Capuchin College)에 있는 수도원 성당에서 77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다. 3월 31일에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워싱턴 대교구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았으며, 이날 첫 주일 미사에는 96명의 신자가 참석했다.

왕 신부는 4월 5일 부활절을 앞두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부활절에 대비한 판공성사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우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에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일 년에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에서 오는 문제가 많겠습니까만, 가능한 한 시간을 내시어 은총과 재생의 샘인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제도 하셔서 부활 축일에 천주님의 강복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에는 임시 사목회가 구성됐는데, 회장 김상규, 김현태, 재무 김두환, 총무 허분갑, 전례 유병기, 이용현이 각각 임명됐다. 5월 12일에는 메릴랜드 워튼 리저널 파크에서 어머니 날 행사를 겸한 첫 야의 미사를 봉헌했는데, '장한 어머니'에 최금산 프란치스카 자매가 선정됐다. 또 5월 18일에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와 볼티모어 한인 천주교회가 첫 합동 미사를 컬럼비아 심포니 월드(Columbia Symphony World)에서 봉헌했다.

— 첫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1974년 6월 2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열린 첫 영세식에는 16명의 어린이가 세례성사를 받았다. 1974년 8월 15일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15명의 어린이가 첫영성체를 하였고, 1975년 4월에는 처음으로 37명의 성인 예비자가 세례성사를 받았다. 1975년 9월 26일 순교 복자 50주년 기념 미사 때에는 120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당시 미사는 워싱턴 대교구 윌리엄 바움 대주교가 집전했으며, 함병춘 주미 한국대사와 고응표 워싱턴 한인회장, 개신교 대표로 김성덕 목사 등도 참석했다.



- ♣ 1975년 4일 본당 창립 후 처음으로 37명의 성인 예비자가 세례성사를 받았다.
- ◀ 1975년 9월 윌리엄 바움 대주교가 순교 복자 50주년 기념 미사를 집전했으며, 120명의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 청년회와 부인회 창립

1974년 6월 23일에는 청년회가 창립됐다. 초대 회장은 유병기, 총무는 박문규가 맡았다. 1975년 1월 19일에는 부인회가 창립됐는데, 회장은 강 엘리사벳이 맡았다. 같은 해 7개 구역의 구역장도 임명됐는데, 몽고메리 구역 이승용, 페어팩스 구역 송상훈, 알렉산드리아 구역 석광철, 알링턴 구역 김명수, 프린스 조지스 1구역 변정근, 프린스 조지스 2구역 장정웅, DC 구역 박승신이었다.

－ 성당 이전과 건축기금 모금 시작

신자들이 늘어나 150명을 수용하던 카푸친 칼리지 성당이 비좁아졌고, 1975년 2월 23일부터 500명을 수용하는 오블레이트 칼리지(Oblate College)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또 성전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순절 동안 단식과 금육을 통해 49세대에서 724달러의 성전 건축기금을 처음으로 모았다. 1977년 5월부터 전 신자가 '우리 성전 마련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1978년 4월 23일에는 성전 건립을 위한 첫 바자회가 열렸다. 당시 수입은 1,680달러였다. 이후에도 구역모임과 바자회 등을 통해 건축기금 모금이 계속됐고, 1979년 9월 30일까지 4만 2,000달러가 모아졌다.

－ 교회 창립총회와 첫 성지 순례

1975년 3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신자 30여 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로마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1975년 4월 13일에는 교회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이사진과 집행부를 별도로 구성했다. 임원진 이사장은 장극, 이사는 강영훈, 김현태, 김상규, 마종인, 김정두, 박삼열, 이덕선, 주동걸, 윤지현, 이선호, 이태권, 박문규, 김광원, 김두환이 맡았으며, 집행부 회장은 김현태가 맡았다. 1975년 7월 30일에는 교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신자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톨릭 소식> 창간호를 발간했다. 1977년 2월 27일에는 신용조합을 설립했는데, 초대 이사장은 이덕선이 맡았다.

－ 성가대 창단과 주일학교 운영

1975년 10월 22명의 단원으로 성가대를 창단했으며, 초대 단장은 이용현이 맡았다. 1976년 12월에는 성가대원들의 친목을 위해 <세라핌>이라는 회보를 창간했다. 1975년 5월 5일에는 1년간 워싱턴에서 유학 중이던 최 루멘 수녀의 도움으로 주일학교 설립을 위한

모임을 처음 가졌다. 7월 20일 첫 학생 모집에 61명이 등록했고, 9월 14일 최 수녀를 초대 교장으로 주일학교를 정식 개교했다.

- 김수환 추기경 첫 방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1976년 8월 8일 제41차 세계 성체 대회 참석차 방미 중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를 방문했다. 8월 15일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과 한국 광복절 경축 미사를 집전했는데, 워싱턴 대교구 윌리엄 바움 대주교와 공동 집전했다.



1976년 8월 본당을 방문한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본당 교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본당 설립 5주년 기념

1979년 4월 15일 부활 대축일과 본당 설립 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라이온스 주교가 미사를 집전했으며, 8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다. 피정과 자축연, 체육 대회가 열렸고, 5주년 기념집도 발간했다. 미주 지역 한인 천주교회 연합회 구성을 위한 세미나도 이날 본당에서 열렸다.

– 한 바오로 2대 주임신부 부임

1979년 10월 왕영수 신부에 이어 워싱턴 대교구 소속의 한 바오로(Paul-Stephen Holt) 신부가 2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한 신부는 미국인이었지만 1972년 부산 교구에서 사제품을 받고 보좌신부로 재임해 한국과의 인연이 있었다. 한 신부는 아직 정식 본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준본당 승격을 추진했고, 1980년 1월 준본당으로 승격됐다. 이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도 워싱턴 대교구 소속 본당으로서 주임신부가 교구 회의에 참석했고, 공식 행사는 교구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1980년 6월 1일에는 오블레이크 칼리지에서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로 성당을 다시 옮겼다. 10월 1일부터는 실버스프링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 사제관으로 사용했다.



1979년 10월 이임하는 왕영수 초대 주임신부(가운데)와 후임 한 바오로 2대 주임신부(오른쪽 두 번째)가 본당 교우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을니 성전 성모 동산의 성모님 상. 성모의 밤 행사를 맞아 화관을 씌워드렸다.

1981~
1996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1981년
칼리지파크에 첫 성전을 마련했다. 신자 수가
날로 늘며 1984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1985년에는 버지니아 공동체가 '버지니아 한인
천주교회'로 분가했다.



2. 칼리지파크 시대

- 칼리지파크 성전 구입

1981년 2월 27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칼리지파크의 폐쇄된 초등학교를 구입하면서 첫 성전 마련의 숙원을 이룩하게 된다. 당시 건물 구입 가격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16만 6,473달러였는데, 그때까지 모인 건축기금은 4만 6,686달러였다. 따라서 11만 9,787달러를 은행에서 대출 받았고, 첫 달 대출 이자로 1,048달러를 지불했다.

새 성전은 많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3월 1일 강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5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는데, 신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큰 힘이 됐다. 결국 4개월 만인 9월 26일 워싱턴 대교구장 헉키 대주교의 집전으로 성전 봉헌 미사를 올렸다.



칼리지파크 성전

- 제1차 성령 세미나와 꾸르실료

1981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본당 주최 제1차 성령 세미나가 윈체스터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당시 신시내티 본당 왕영수 주임 신부와 보스턴 본당 광길우 신부, 캐나다 토론토 본당 고종욱 신부가 피정을 지도했다. 세미나에는 47명이 참석했다. 한편 남규백 프란치스코 형제가 한 바오로 신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4명의 사제와 10명의 평신도 임원을 초청해서 워싱턴 지역의 꾸르실료 교육을 시작했는데,



본당 제1차 성령 세미나를 지도한 고종욱 신부, 광길우 신부, 왕영수 신부, 박용일 신부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40년의 역사 ✧

198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비스 모텔(Darby's Motel)에서 열린 남성 1차 교육에서 35명의 꾸르실리스타가 탄생했다.

1983년 6월 열린 꾸르실료 교육에서 35명의 남성 꾸르실리스타가 탄생했다.



- 버지니아 공동체 분리

신자 수 증가로 버지니아 지역에서의 새 한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낀 한 신부는 신자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알링턴 교구에 제출했고, 1982년 4월부터 세인트 버나데트 성당에서 저녁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버지니아 공동체를 위한 건축헌금을 따로 모금했다.

- 본당 출신 첫 사제 탄생



김남수 주교가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1983년 5월 28일 본당 출신 이덕효 바오로 부제가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본당 출신 첫 사제가 탄생했다. 또 외방 선교회 소속으로 본당에 머물고 있던 주인배 베드로 부제도 1983년 7월 30일 수원 교구장인 김남수 주교의 집전으로 본

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김 주교는 본당 견진성사도 집전했다. 주 신부는 수품 후 본당 첫 보좌신부로 임명됐다.

- 성모상 제막식

1983년 8월 안나회의 모금으로 마련한 성모상을 성모 동산에 세우는 성모상 제막식이 열렸다. 한 바오로 신부가 성모상을 축성했다.



- ◀ 한 바오로 주임신부(가운데)가 성모상 제막식에서 성모상을 축성하고 있다.
- ▶ 성모상을 기증한 안나회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이세진 3대 주임신부 부임



이세진 3대 주임신부가 세례성사를 집전하고 있다.

1983년 12월 1일 이세진 3대 주임신부가 부임했다. 이 신부는 1973년 12월에 사제품을 받았고, 공군 군종 신부, 캐나다 에드몬튼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재직하다가 본당 신부로 부임했다. 이 신부는 부임 후 사목 지침을 “사랑의 나눔”으로 정하고, 각 가정과 단체별 사랑 나눔을 통해 신앙심을 도모하고 참다운 신자상을 형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신부 부임 후 신자수를 파악하기 위해 교적을 정리했는데, 총 551세대였다.

- 성우회 발족

‘성우회’는 1984년 3월 11일 55세 이상 교우들의 모임으로 발족하였으며, 에이지 그룹 내에서 남성 교우들의 최고령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5년 가을 성우회 회원들이 이세진 주임신부와 기념 촬영을 했다.

- 본당 승격

1984년 5월 6일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과 본당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 미사가 희키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희키 대주교는 본당의 수호성인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지정했고,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 현판을 축성했다. 한국에서 열린 103위 시성식에도 본당 신자들이 참석했다.



1984년 본당을 방문한 워싱턴 대교구 희키 대주교 (가운데)가 견진성사 집전 후 본당 이세진 주임신부 (가운데 왼쪽), 교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본당 교우들이 한국에서 열린 103위 시성식 미사에 참석했다.

–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1984년 9월 16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고, 9월 22일에는 1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백진우 초청 연주회가 조지워싱턴 대학교 리스너 강당에서 열렸다. 9월 28일과 29일에는 박정일 주교가 “한국 천주교 선교 200주년과 교회의 미래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9월 30일에는 내셔널 슈라인에서 설립 1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는데, 히키 대주교와 박정일 주교가 공동 집전했다.



- ♣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
발행한 기념집
- ➔ 내셔널 슈라인에서 본당
설립 10주년 감사 미사가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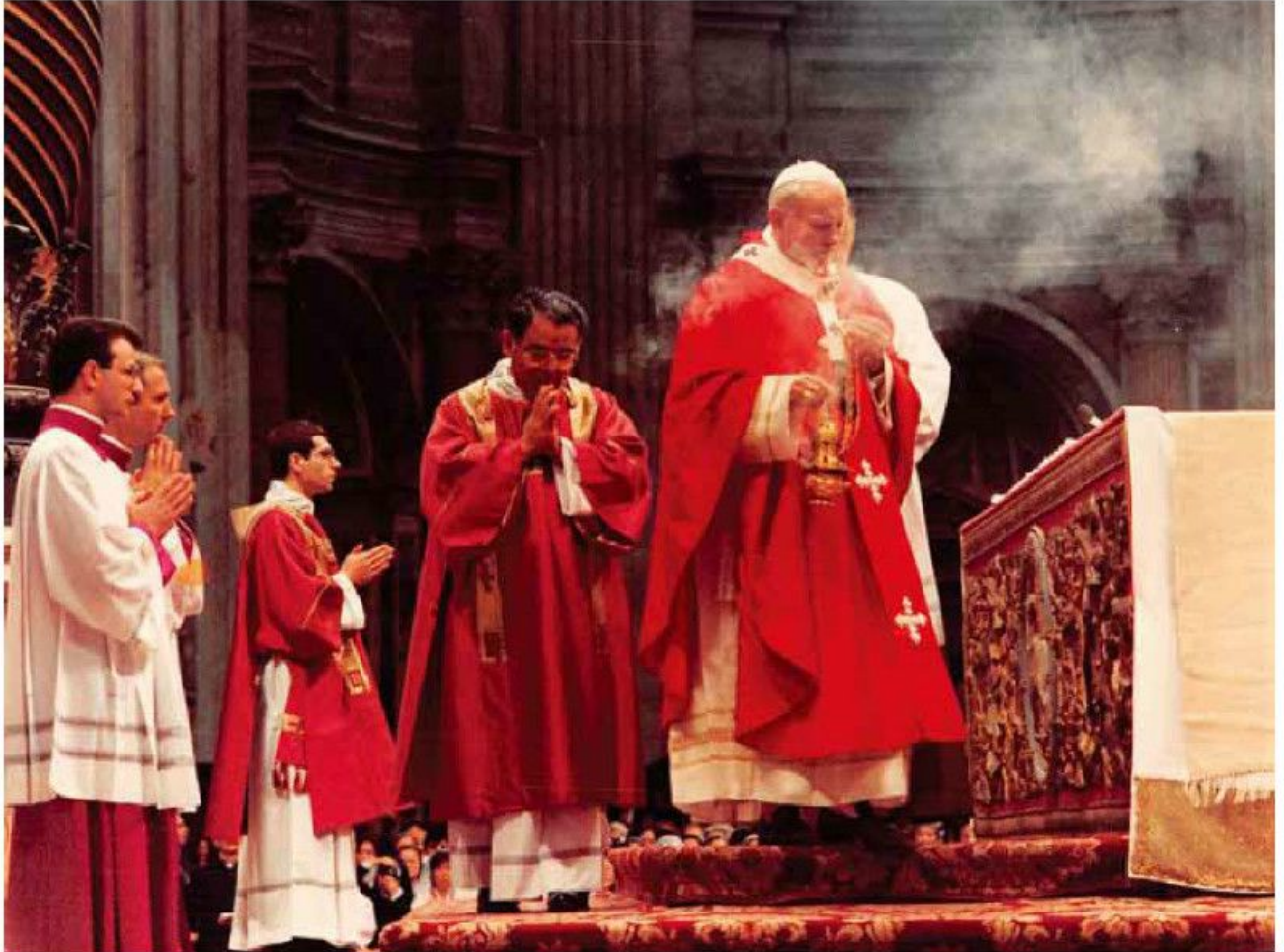


– 성 김 안드레아 학교 개강

1984년 10월 7일 새로 통합한 학교를 '성 김 안드레아 학교'로 명명했다. 당시 학교 훈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임을 자랑스러 여긴다.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으로 긍지를 갖는다.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으로 한국의 문화 전통을 고수한다.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이 나라에 이바지한다.” 교장은 엄영일이 맡았으며, 학생은 유치반부터 12학년까지 168명이었다.

- 본당 종신부제, 로마 교황청 103위 성인 기념 미사 참석

1984년 11월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 103위 성인 기념 미사를 집전했으며, 본당 윤시현 종신부제가 참석했다.



로마 교황청에서 열린 103위 성인 기념 미사에 참석한 모지현 본당 종신부제(오른쪽 두 번째)

- 버지니아 성당 분가

버지니아 공동체가 1985년 10월 3일 사목위원을 임명하고 버지니아 한인 천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분가했다. 사목회장은 송상훈, 총무는 조영인이 맡았다. 1986년 9월 25일 워싱턴 교구 소속 박용식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했으며, 10월 7일 알링턴 교구로부터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천주교회'로 정식 인준을 받았다.

– 유재식 4대 주임신부 부임



유재식 4대 주임신부(가운데) 취임식을 워싱턴 대교구 마리노 주교가 집전했다.

1986년 11월 대전 교구 논산 성당에서 사목하던 유재식 안셀모 신부가 본당 4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유 신부의 취임식은 12월 3일 워싱턴 대교구 마리노 주교가 집전했다. 유 신부는 1987년 본당 사목 목표를 “친교의 해”로 정하고 신자들 사이에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권고했다. 이듬해인 1988년의 사목 목표는 “화목과 일치의 교회”였다.



1989년 8월 열린 워싱턴 지역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에서 본당이 우승했다.

– 레지오 마리아 창단

1987년 5월 22일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에 16명의 단원으로 창단됐고, 3개월 후에는 ‘사랑의 모후’ 브레시디움, 1년 후에는 ‘인자하신 모후’ 브레시디움에 창단됐다. 초대 단장은 이덕용이 맡았다.

- 새 성전 건립 5개년 계획과 성전건립위원회 발족

유재식 주임신부는 부임 후 4개월간 본당 건물을 현대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러나 건물이 너무 낡아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개축 허가를 받기 어렵고, 허가가 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새 성전을 건립하기로 하고 5개년 계획을 워싱턴 대교구장인 제임스 히키 추기경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었다. 유 신부는 1987년 3월 1일 성전건립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은 남규백, 총무는 장정웅이 맡았다.

- 새 성전 부지 매입

성전건립위원회는 발족 후 새 성전 부지를 찾기 위해 6개월간 수십 곳의 대지와 건물을 답사했다. 그러던 중 몽고메리 카운티 올니에서 적당한 땅을 찾았다. 총 5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선 당시 성당이 보유한 4만 5,000달러 외에 45만 달러가 더 필요했다. 유 신부를 비롯한 성전 건립 위원들은 1987년 10월 20일 워싱턴 대교구를 방문하여 교구 총대리와 자산 담당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약속받았고, 즉시 부지를 매입했다.

성전건립위원회는 이후 4단계에 걸친 성전 건립 계획을 교우들에게 공개했다. 1단계 성전 건립 부지 부채를 청산하고, 2단계 성전과 부속 건물의 설계를 완료하며, 3단계 성전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4단계 새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이었다. 성전건립위원회는 또 1년 안에 부채 45만 달러와 이자 5만 달러를 모금해서, 1단계 성전 부지 부채 청산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88년 1월 워싱턴 대교구 히키 대주교가 본당의 성전 건립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본당 신자들은 103위 성인상을 선물했다.



1988년 1월 본당을 방문한 워싱턴 대교구 히키 대주교에게 103위 성인상을 선물했다.

'성전 건립을 위한 기도문'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예수여, 주의 이전에 겸손되어
앞다녀 의지하고 비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
건립의 뜨거운 정열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심이어, 우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사업에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깊이 사랑하여
향구하게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주를 찬송하고
주의 성전 건립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사랑과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성전 부지 부채 상황

성전건립위원회가 구성된 지 10개월 만에 신자들이 약정한 총액은 60만 달러를 돌파했고, 그해 성탄절 구유 헌금에는 6만 1,000달러가 모였다. 결국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의 헌금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모아졌다.

– 후임 주임신부 임명에 관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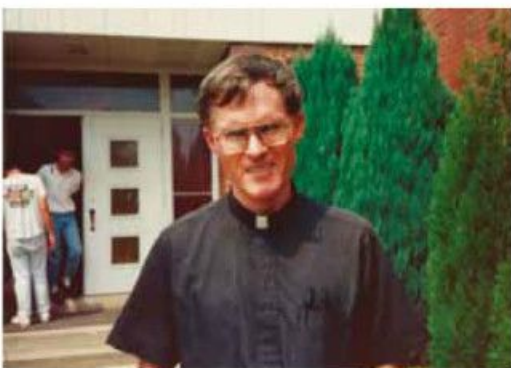
1990년 워싱턴 대교구에서 교구 소속 한인 이덕효 바오로 신부를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주임신부로 임명하면서 교우들의 반대와 갈등을 불러왔다. 당시 주임신부인 유재식 신부와 이 신부, 신자들에게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 유 신부는 7월 20일 본당을 떠났으며, 워싱턴 대교구는 21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분회를 개최했다.

당시 신자 3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 한인 교회로 남길 원한다는 응답이 99%였다. 한국에서 신부가 부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97%, 미국 교구 소속 신부가 부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92%였다. 본당 신부 교체 시 공동체 신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워싱턴 대교구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덕효 바오로 신부의 주임신부 임명을 취소한다. 둘째, 새 주임신부를 임명할 때까지 교구 성소국장인 마크 브렌넨 신부를 관리 신부로 임명한다. 셋째, 즉시 새 주임신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이 사건은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교구와 한인 교회 공동체의 관계, 한인 주임신부와 교구의 소통,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 일부 신자들의 성직자에 대한 불손한 행동 등을 놓고 공동체가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다.

– 마크 브렌넨 관리 신부 부임



관리 신부로 임명된 마크 브렌넨 신부

1990년 8월 1일 마크 브렌넨 신부가 부임한 후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새 영세자에게 견진성사를 집행했다. 17명 중 2명은 개인 교에서 개종한 신자였다. 또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선교 전화를 개설했는데, 브렌넨 신부의 후원으로 엄지원 부제가 담당하였다.

– 김수환 추기경 방문

1991년 4월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브렌넨 신부와 본당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당을 방문했으며, 5월에는 전주 교구 이병호 주교가 본당을 방문해 미사를 집전하고 2시간에 걸쳐 신앙 특강을 했다.

– 이철호 6대 주임신부 부임

1991년 6월 1일 서울 대교구 동두천 본당 주임신부로 있던 이철호 암브로시오 신부가 6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이철호 신부는 첫 주일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 6월 예수 성심 성월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과 일치 속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열리기 마련이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과거의 상처들은 더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인화란 마음이 서로 통하여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상처를 감싸 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업을 해 나갑시다.”

이철호 신부는 워싱턴 부임이 첫 해외 방문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겼다. 이 신부는 공항에 도착하던 날 무척 놀랐다고 한다. 로만 칼라를 한 사람이 5명이나 마중 나왔기 때문이다. 이 신부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한국인 신부가 그리웠으면 이랬겠는가?’라고 생각했었다고 훗날 술회했다. 당시 로만 칼라를 한 5명은 워싱턴 대교구 총대리인 케인 신부와 브렌넨 관리 신부, 본당의 윤지현, 엄지원, 홍성원 총신부제였다.

– 워싱턴 대교구와의 관계 정립

이철호 신부는 부임 후 워싱턴 대교구를 방문하고 한인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신부는 워싱턴 대교구가 한인 공동체에 보여 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신부는 특히 자신이 한인 신부로서 한인 공동체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 교구의 상식과 차이가 있더라도, 한인 공동체의 문제는 자신에게 맡기고 기다려 준다면 공동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특전 미사와 새벽 미사 봉헌

이철호 신부 부임 후 교중 미사 때는 항상 자리가 부족했다. 서서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도 많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도 힘들었다. 또 새벽 미사와 토요 특전 미사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됐다. 그래서 1991년 9월 1일부터 새벽 미사 봉헌을 시작했고, 1992년 7월 18일부터는 토요 특전 미사가 신설됐다.

– 성소후원회 결성

1992년 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축일을 기해 성소후원회가 결성됐다. 본당의 수호성인이 한국 최초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라는 점을 상기하며 성소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달규 총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사목위원과 구역장, 원로 교우들이 주축이 되었다. 또 미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성소자가 적은 반면, 한국은 성소자는 많지만 후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동 교구와 원주 교구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 성 김대건 신부상 건립

1991년 12월 이철호 주임신부가 성 김대건 신부상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뜻있는 교우와 단체의 찬조금으로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 당시 상의 제작은 한국의 '대전조형연구원'이 맡았으며, 상의 높이는 190센티미터에 대리석으로 하고, 좌대는 3단으로 높이 180센티미터에 화강암으로 제작했다. 상의 건립 비용은 제작비 1만 2,100달러, 운송비 2,700달러, 공사비 3,500달러, 조경비 3,500달러 등 총 2만 1,800달러가 소요됐다.

–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안치

1992년 7월 이철호 주임신부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유해 일부(척추뼈)를 봉송해 왔다. 각 구역에서 성인 유해를 모시고 순회 기도회를 실시했으며, 이후 유해는 본당에 영구히 안치됐다.

– 본당 종신부제 타 본당 이동

워싱턴 대교구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고 1984년부터 본당에서 주임신부를 도와 부제 직무를 수행하던 3명의 종신부제가 교구장의 명에 따라 1992년 7월 19일부로 미국 교회로 소임 이동했다.



성 김대건 신부상 제막식에서 이철호 주임신부가 축사를 하고 있다.

-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1994년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집과 20주년 신자 주소록을 제작하였다. 본당에는 “봉사와 선교로 성숙되는 공동체”, “다시 일어나 감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본당 설립 20주년 행사로는 7월 6일부터 사흘간 초대 주임 왕영수 신부 지도로 ‘감사와 은혜의’ 밤을 개최했으며, 16일 ‘전야 예술제’에서는 주일학교 발표회와 성가대의 축하 공연 등이 있었다.

7월 17일 본당 설립 20주년 감사 미사는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했다. 미사 때 32쌍의 신자에 대한 혼인 축복 예절이 진행됐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집



김수환 추기경이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미사를 집전한 후, 혼인 축복 예절에 참가한 교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본당 설립 20주년 기도문’

만세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하느님. 저희들의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의 20주년에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겸손된 마음으로 앞날을 향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청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정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아 교회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직책을 지키는 가운데,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순교자들의 왕이신 주 하느님, 특별히 당신께서 뽑으신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비롯한 한국의 103위 성인 성녀들을 굽어보시어,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들의 삶을 따르도록 보호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본당 25년, 30년이 될 때에는 더욱 좋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님 대전에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소서.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994년 12월 4일 올리비에 주교가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있다.

– 신정순 7대 주임신부 부임

7대 신정순 베네딕토 주임신부가 1995년 3월 19일 부임했다. 7월 20일에는 제5차 중동부 여성 꾸르실료를 본당에서 개최했으며, 11월 12일에는 코라다 주교가 본당을 방문했다. 1996년 6월에는 이인복 마리아 교수의 신앙 강좌, 7월에는 김길수 사도 요한 교수의 초청 순회강연이 열렸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본당 '나눔의 회'를 발족했던 신 주임신부는 1996년 10월 1년 6개월여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



1996년 10월 6일 이임하는 신정순 베네딕토 주임신부(가운데)를 환송하는 임승철 후임 주임신부(오른쪽)와 교우들

1996~
2002

임승철 8대 주임신부가 부임하면서
올니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과 교우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과 노인 아파트가 세워졌다.



3. 올니 성전 건축

- 임승철 8대 주임신부 부임과 성전 건축 결정

1996년 10월에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8대 주임신부가 부임한 후, 담보 상태였던 새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새 성전 건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1997년 3월 26일 부활절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22명 중 124명은 올니 부지에 건축을, 127명은 칼리지파크 부지에 개축 또는 신축을, 171명은 제3의 새로운 부지를 찾자는 의견이었다. 임 신부는 사목적 판단에 따라 올니에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신자들에게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전건축위원장은 당시 사목회장이던 정갑진 스테파노가 맡았다. 1997년 3월 워싱턴 대교구청에 새 성전 건축 의사를 전달했으며, 4월에는 전 신자에게 새 성전 건축을 공식 발표했다. 5월에는 새 성전 건축 계획서를 교구청에 제출했으며, 6월에 건축 준비를 시작하라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았다.

- 성전 건축기금 모금

교구청은 새 성전 건축에 앞서 미리 충분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사 금액의 절반을 건축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금액도 교구청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융자한 후 상환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갖춰야 했다. 당시 본당에는 약 65만 달러의 건축기금이 있었으며, 공사비는 5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25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한 전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시작됐다.

- 건축기금 약정과 모금

1997년 9월부터 구역 방문을 통한 약정이 시작되었는데, 임승철 주임신부와 사목위원들이 10주간 23개 구역을 돌며 신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성탄절까지 156만 달러의 건축기금이 약정됐다.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신자들 중에는 신용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약정한 액수를 선납한 경우도 있었다.

주일마다 각 구역이 돌아가며 점심 봉사를 하여 수익금을 성전 건축기금으로 봉헌했고, 연령별 그룹인 에이지 그룹도 매주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했다.

특히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노력은 후배 교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본당 60세 이상 할머니로 구성된 안나회는 칼리지파크 성전에 들어간 뒤부터 텃밭에서 키운 채소 등으로



칼리지파크 성당에서 에이지 그룹 회원들이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운영한 포장마차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40년의 역사 ✧



임승철 주임신부와 김치부대 할머니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판 수익금을 성당에 봉헌했다. 1983년에는 성모 동산에 ‘파티마의 성모상’을 세워 봉헌하고 1991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건립에도 기여했다. 김치부대 할머니들은 1997년부터 성전 건축기금을 봉헌했는데, 할머니들의 노력과 정성은 2004년까지 계속됐다.

성모회는 지역 한인 마트 등의 상품권을 팔아서 판매액의 5%를 본당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다. 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성전 기금 모금 골프 대회도 열렸는데 매년 성황을 이뤘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의 열정으로 성전 건축기금은 차곡차곡 쌓여 갔고, 2000년 6월 말까지 367만 달러가 모아졌다.

- 임승철 신부 사제 수품 10주년 행사

1998년 2월 12일 임승철 주임신부와 홍근표 바오로 신부의 사제 수품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임승철 신부 사제 수품 10주년 기념 행사



- 성전 건축 준비

모든 신자들이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정성을 모으는 동안, 공사 준비도 진행됐다. 1998년 5월 4일에는 설계 회사 ‘밀스 클래킷 & 웨닝(설계사: 나준구)’과 33만 8,850달러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건축 계획과 기금 모금 현황을 교구청에 보고하였고, 1998년 9월 1일 마침내 1차로 본당과 친교실, 2차로 사제관과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라는 교구청의 승인을 받았다.

– 성전 부지 축성 미사

1998년 12월 13일 워싱턴 대교구장인 히키 추기경이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 성전 부지 축성 미사를 집전했다. 히키 추기경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비와 눈은 하느님께서 성전 부지 전체에 내리시는 축복의 성수”라고 말했다.



워싱턴 대교구 히키 추기경(오른쪽 두 번째)이 성전 부지를 축성하고 있다.

– 본당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와 축하 행사

1999년 9월 19일 본당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를 워싱턴 대교구 로리 주교가 집전했다. 기념 미사와 함께 기념 연주회와 바자회도 열었다. 또 25주년을 맞아 <한 올타리> 특집호도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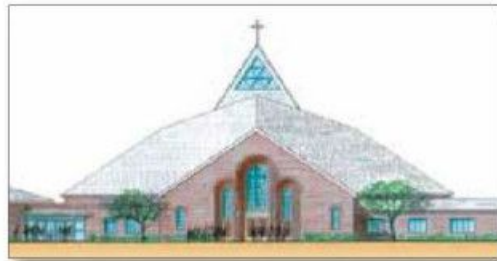
– 설계 완성과 건축 회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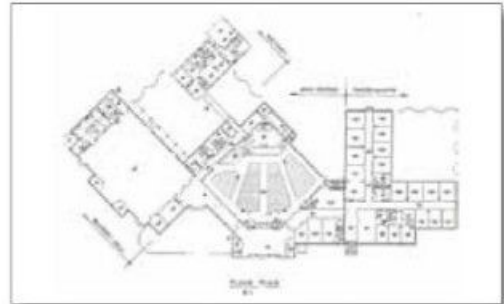
옥수수밭이었던 을니 성전 부지

1999년 4월 15일 본당과 친교실의 설계가 끝나자 몽고메리 카운티에 부지 개발과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1999년 11월 9일 카운티로부터 1차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보완 사항을 추가해서 2000년 6월 13일에 토목 공사 허가를, 7월 6일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다.

2000년 3월에는 성전 건축 1차 공사(본당과 친교실)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해 뉴욕에서 온 한인 건축 회사인 '베텔 제너럴 컨트랙팅 Inc.'가 최저가인 517만 4,000달러로 낙찰받았다. 이후 2000년 7월 14일 공사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



새 성전 조감도와 평면도



– 성건 건축 시작



임승철 주임신부(오른쪽)가 착공식 미사에서 성전 부지에 성수를 뿌리고 있다.

2000년 6월 25일 임승철 주임신부는 모든 신자와 함께 성전 부지에서 착공식 미사를 봉헌하며,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9월에는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기도 했다. 당초 완공 예정은 2001년 11월 말이었지만, 공사 기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2002년 9월 말까지 진행됐다.

처음 퇴적물과 폭우 관리 시설 공사(2000년 8~10월)에 이어 정지 작업과 기초 공사(2000년 9월~2001년 4월)를 했는데, 굴착 작업 중 발견된 쓰레기 흙 때문에 난관을 맞았다. 108번 도로 공사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흙이 친교실 면적과 같은 지역에 4미터 깊이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쓰레기 흙을 모두 퍼내고 좋은

흙을 채운 후에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 퍼낸 흙을 쌓아 올린 것이 지금 노인 아파트로 가는 길의 동산이 되었다.

- 외장 공사와 내장 공사

철골 공사와 외장 공사가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진행됐고, 지붕을 세운 2001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내장 공사도 시작됐다. 2002년 5월 31일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였는데, 한국 인보 성체 수도회 김영자 안셀모 수녀의 작품이었다.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예수님의 성심 안에 하나가 되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의 얼굴 기억하며 후세에 길이 남을 한인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00년 9월 김수환 추기경이 올니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2001년 4월 올니에서 야의 미사와 교우들의 건축 현장 답사가 있었다. 임승철 주임신부(가운데)가 교우들과 함께 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40년의 역사 ✧



을니 성전의 외장 벽돌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본당에 설치할 성물(제대, 십자가, 성모상, 요셉상, 14처, 감실)은 한인 공동체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한국의 최종태 요셉 교수(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가 만든 한국적인 작품으로 정했으며, 약 7톤의 대리석으로 된 제대가 2002년 6월 21일 설치되었다.

제대를 설치한 후 아래에는 타임캡슐을 저장했는데, 성전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신자들이 쓴 성경 필사본과 건축기금 약정서, 기도문과 본당 자료, 사진 등을 저장했다. 임승철 주임신부와 참석자들은 지난 3년간 성전 건축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눈물로 봉헌식을 진행했다.



김영자 안셀모 수녀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 친교실 명명

성전 건축이 한창이던 2001년 11월, 노인 아파트 기공식에 참석한 맥카릭 추기경이 새 성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친교실에 이르러 임승철 주임신부는 맥



새로 설치된 제대 주변에 임승철 주임신부와 신자들이 모여 있다.



본당 교우들이 타임캡슐에 자료를 넣고 있다.

카릭 추기경이 한인 공동체에 보여 준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카디널 맥카릭 홀 (Cardinal McCarrick Hall)'로 명명할 것을 청했다. 맥카릭 추기경도 기쁘게 허락하였고, 나중에 현판이 달린 친교실을 직접 축성했다. 지금도 친교실 입구에는 맥카릭 추기경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01년 11월 성전 건축 현장을 둘러보는 맥카릭 추기경

- 올니 성전 완공

전기 공사와 내장 공사가 끝나고, 2002년 9월 30일 마침내 공사가 완료됐다. 10월 4일에는 몽고메리 카운티로부터 임시 입주 허가도 받았다. 이렇게 완공된 본당은 1만 8,200스퀘어 피트, 친교실은 1만 2,300스퀘어 피트의 넓이이며, 공사 기간은 2년 3개월, 공사비는 672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 노인 아파트(앤드류 김 하우스 Andrew Kim House) 건축

성전 건축 준비를 하던 중 부지 동쪽에 3.75에이커의 자투리땅이 생겨서 노인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본당은 부지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1999년 3월 교구의 도움으로 주택 자금을 신청했고, 11월에 HUD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 낸 기적적인 결과였다. 아파트의 명칭은 '성 김대건의 집(St. Andrew Kim House)'으로 하고자 했지만, 정부 기금을 받을 때는 인종과 종교, 언어 등의 특정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성(St.)'을 뺄 수밖에 없었다. 연방정부의 총 지원 금액은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료 보조비 등 612만 4,300달러였다.



노인 아파트 기공식에 참석한 맥키릭 추기경과 덕 던컨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가 교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완공된 '앤드류 김 하우스' 노인 아파트

2001년 1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공식에는 새 교구장인 맥카릭 추기경과 덕턴컨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도 참석했다. 2002년 봄 노인 아파트가 완공되고 2002년 6월에는 입주 신청이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던 본당 교우들은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 가며 줄을 섰는데, 임승철 주임신부도 야외에서 교우들과 함께 밤을 새웠다. 안나회와 성우회는 이분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했고, 마침 한일 월드컵 기간이어서 함께 TV로 한국전을 응원하기도 했다.

2002년 11월 76세대 노인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는데, 성전 부지를 가진 다른 교회들도 본당의 사례를 보고 노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승철 주임신부는 노인 아파트 입주 희망 교우들과 함께 밤새 줄을 서며 월드컵을 응원했다.



정갑진 성전건축위원장(왼쪽)이 2004년 5월 16일 열린 올니 성전 축성과 봉헌식에서 워싱턴 대교구장인 맥카릭 추기경(오른쪽)에게 성전 열쇠를 봉헌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올니 성전 건축'과 다음 장 '올니 성전 시대' 중 성전 건축 관련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정갑진 스테파노 성전 건축위원장이 제공한 기록과 사진을 참고하였다.

2002~
2014

올니 성전 건축에 이어 교육관과 사제관이
건립됐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도 설립 30주년을 거쳐
40주년을 맞이하며, 더욱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올니 성전 시대

- 성전 입주 감사 미사와 임승철 주임신부 환송식

2002년 10월 6일, 6년간의 임기를 올니 성전 건축과 함께했던 임승철 주임신부가 이임하면서, 새 성전에서 성전 입주 감사 미사와 환송식을 가졌다. 본당 건축위원회는 성전 전경을 조각한 크리스털 기념패를 임 신부에게 전달했고, 신자들을 대표해 성전 건축 기간에 수고한 사목회장들과 김치부대 할머니들께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 신부는 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 임승철 주임신부(왼쪽 두 번째)와 교우들이 덜레스 공항에서 새로 부임하는 이찬일 안드레아 신부(오른쪽 두 번째)를 맞았다.
- ◆ 새로 지은 올니 성전에서 임승철 주임신부 환송 미사와 새 성전 입주 감사 미사가 봉헌됐다.

- 이찬일 9대 주임신부 부임과 새 성전 이사

2002년 10월 8일 이찬일 안드레아 제9대 주임신부가 부임했다. 11월 15일에는 새 성전으로 이사했는데, 사제관은 새 성전 근처 타운하우스를 임차했고 칼리지파크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은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한인 성당에 기증했다.

- 십자고상 제작

이찬일 주임신부는 새 십자고상을 만들기로 하고, 내셔널 슈라인의 대형 행렬용 십자가를 제작한 네덜란드 업체의 미국 지사를 접촉해 크기를 조금 줄인 십자고상을 주문했다. 이 십자가는 성전 봉헌식 때 맥카릭 추기경이 축성했다.

- 새 성전 축성과 봉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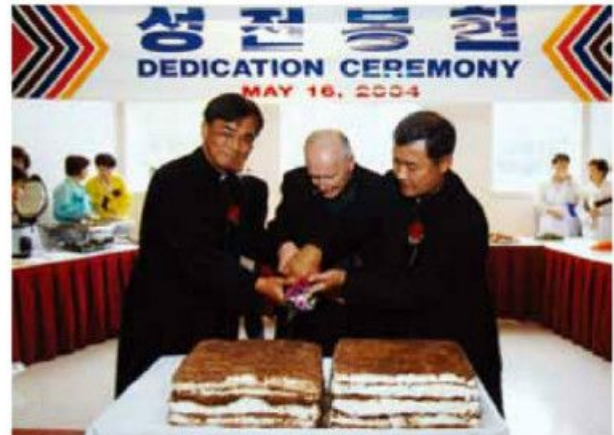


워싱턴 대교구 맥카릭 추기경이 성전 축성과 봉헌 미사를 집전했다.

새 성전 정리가 끝나고 2004년 5월 16일에 워싱턴 대교구장인 맥카릭 추기경 주례로 새 성전 축성과 봉헌식이 열렸다. 봉헌식에는 초대 왕영수 주임신부, 4대 유재식 안셀모 주임신부, 8대 임승철 주임신부도 참석했다. 또한 한인 성직자와 수도자, 워싱턴 대교구청 관계자, 지역 정치인과 한인 사회 유지 등 본당 교우 외에도 많은 축하객이 참석했다.



워싱턴 대교구장 맥카릭 추기경이 올니 성전의 제대에 성유를 바르고 있다.



이찬일 주임신부와 맥카릭 추기경, 임승철 신부(왼쪽부터)가 새 성전 봉헌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 칼리지파크 성전 매각

칼리지파크 성전은 원래 흑인 교육을 위해 1928년에 지어진 건물이었다. 1981년 본당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로부터 매입해 성전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에 올니 성전으로 옮길 때까지 21년간 공동체의 보금자리였다. 새 성전 건립 계획에 따라 이 건물은 매각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쉽지 않았다. 임승철 주임신부는 이후 여러 차례 교구에 성전 매각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후임 이찬일 주임신부도 다시 청원서를 냈다. 결국 2003년 3월 교구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았고, 사전에 구매 의사를 타진했던 브라질 안식교 교회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93만 6,342달러였다. 이 대금은 교구에서 대출한 돈을 갚는 데 쓰였다.

– 청소년 사목 활성화

이찬일 신부는 본당 청소년 사목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2003년 ‘동대’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약 1년간 본당 청소년 사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고, 조사와 연구 끝에 2004년 2월 ‘동대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본당 최초로 청소년 사목 담당관(Mrs. Dawn Wood)을 고용해 2세 신앙 교육의 방향과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 신부는 한국인으로서 남미에서 오랫동안 사목한 이 세바스찬 신부를 본당 부주임신부로 모시는 계획도 세웠다. 2세와 영어권 신자들의 영적 지도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 교육관 건립

이찬일 주임신부는 부임 후 건축위원회로부터 사제관 건립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시급한 교육관 건립을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본당에서는 친교실에 간막이를 하고 주일학교와 단체 모임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 신부는 원래 다용도실로 설계됐던 공간을 소성당으로 변경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관은 지금의 모습으로 더 크게 지어질 수 있었고, 당시 지하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교구의 허가 문제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교육관 기공식에서 곤잘레스 주교가 본당 어린이들과 함께 첫 삽을 뜨고 있다.

교육관 건립은 2003년 12월 10일 교구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듬해 9월 19일에 워싱턴 대교구 곤잘레스 보좌주교 집전으로 기공 미사를 봉헌했다. 교육관 건축은 공개 입찰을 거쳐 '나디 컨스트럭션 Inc.'이 맡았으며, 10월 11일 공사가 시작됐다.

2005년 1월, 교육관 완공 목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예산이 36만 달러나 부족해 위기를 맞았다. 특별건축기금을 모금했는데, 2개월 만에 목표액 36만 5,000달러를 초과한 40만 541달러가 약정됐다. 특히 당시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큰 봉헌이 기폭제가 됐는데, 자녀들이 팔순 잔치를 위해 모은 1만 달러를 모두 봉헌한 분도 있었다.

결국 2005년 9월 30일에 건축이 마무리됐으며, 총공사비로 246만 5,000달러가 소요됐다. 10월 16일 워싱턴 대교구 맥카릭 추기경 집전으로 봉헌식이 거행됐다. 당시 봉헌식에서는 본당 어른들이 어린이들과 테이프 커팅을 한 후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는 의식을 통해, 본당 1세대들의 희생과 봉헌으로 지어진 교육관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믿음과 교육의 요람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교육관 봉헌식에서 본당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성 김대건 신부님 유해 분실과 반환

본당 제대 뒤쪽에는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이 유해는 1992년 7월 당시 이철호 주임신부가 한국 방문 때 모셔 온 것으로, 78일간 각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소재를 알 수 없게 됐다.

2003년 9월 내셔널 슈라인에서 봉헌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미사 때도 텍사스 델러스에서 모셔 온 유해를 대신 꽃가마에 모시고 입장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04년 어느 날 제의실에서 낫선 종이봉투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김대건 성인 유해가 들어 있었다. 10년 만에 되찾은 유해였다. 이후 유해를 제단 뒤쪽 유해함에 모셨다.

- 본당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와 기념 행사



2004년 9월 19일 워싱턴 대교구장 곤잘레스 대주교가 본당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를 집전했다.

2004년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미사와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6월 20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본당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했으며, 평신도 선교사 초청 행사도 열렸다. 9월 19일에는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미사를 워싱턴 대교구장 곤잘레스 대주교가 집전했으며, 12월에는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30주년 기념 DVD도 발간했는데, 당초 별도의 기념집 발간 계획도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04년 12월 19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 사제관 건립 계획 변경을 둘러싼 갈등



사제관 건립 계획에 관한 설명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했다.

교육관 건립 이듬해인 2006년에는 다음 단계로 사제관 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제관의 위치와 규모 및 내부 구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찬일 주임신부는 이전 계획을 변경하여 본당과 노인 아파트 사이에 조금 큰 규모의 사제관을 짓게 되면 손님 신부들도 머물 수 있고 또한 워싱턴 대교구 은퇴 사제를 본당에 모심으로써 교구와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면서 2세 사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우들 간에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반대 측 교우들은 사제관 위치와 구조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사제관 건립에 관한 설명회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교구는 새 성전 건립 용자금의 상황을 우선 완료한 후 사제관을 건립하라는 통지를 보내왔고, 이 신부가 추진하던 사제관 건립 계획도 무산됐다.

- 성 김 안드레아 장학금 수여

2006년 본당 교우들이 사순절 기간에 봉헌한 동전 모금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장학금을 처음 마련했다. 모금액은 2만 4,000달러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2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본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에도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장학금 수상자들이 이찬일 안드레아 주임신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이찬일 주임신부 송별 미사와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 개관

2007년 9월 2일 이임하는 이찬일 주임신부의 송별 미사와 만찬식이 열렸다. 이날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 개관식도 함께 열렸는데, 기념관은 이후 성물 판매소로 바뀌었다.



이찬일 주임신부가 송별 미사에서 송별사를 하고 있다.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 개관식에서 이찬일 주임신부가 교우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내셔널 슈라인 한국 순교자의 모후상과 성모자상 봉헌

2007년 9월 22일 내셔널 슈라인에서는 서울 대교구 정진석 추기경과 워싱턴 대교구 도널드 월 대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순교자의 모후와 카나의 성모 부조상을 영구 설치하는 기념 미사가 봉헌됐다. 슈라인 서쪽 회랑 아치 입구에 설치된 순교자 모후상은 최익순 서울대 병예교수의 작품이고, 동쪽 입구의 성모자상은 임송자 중앙대 교수의 작품이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상은 중앙에 성모님, 좌우에 순교 직전의 절규하는 남자 순교자와 여자 순교자가 조각되어 있고, 카나의 한국 성모상은 성모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물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40년의 역사 ✧

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경건한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했다. 부조상은 워싱턴의 한인 교우들이 5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서 마련한 것인데, 우리 본당과 에피파니 성당, 버지니아의 성 정 바오로 성당이 참여했다.



내셔널 슈라인에 봉헌한 순교자의 모후상과 성모자상

— 박용일 타대오 10대 주임신부 부임과 사제관 건립



2007년 10월 28일
워싱턴 대교구 할리 주교
집전으로 박용일 주임신부
취임 미사를 봉헌했다.

2007년 10월 부임한 박용일 10대 주임신부는 사제관을 처음 정했던 자리에 짓기로 하고, 설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먼타운에 신설되는 세인트 시어도르 성당의 사제관 설계 도면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제관 건축은 '신 컨스트럭션 Inc.'이 맡았다.

2009년 박용일 주임신부 주관으로 사제관 기공 미사를 봉헌하고, 같은 해 8월 30일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비는 62만 5,000달러가 소요됐다. 9월 27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본당을 방문한 워싱턴 대교구장 도널드 월 대주교가 사제관을 축성했다.

- 제1회 미 동중부 성령 대회 개최

오랜 기간 미국에서 성령 운동을 지도해 온 박용일 신부는 성시간, 자비의 기도 등 본당 신자들의 기도 생활에 많은 사목적 관심을 가졌으며, 동중부 성령 쇄신 봉사회 지도 신부인 김영효 신부(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등 지역 사제들과 협력하여 2008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에서 제1회 미 동중부 성령 대회를 개최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 성령 대회에는 동중부 지역 8개 한인 성당에서 1,100명이 넘게 참가하는 큰 성황을 이뤘다. 첫날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란 주제로 김용효 신부의 강의를 있었으며, 한국에서 초빙된 김재중 회장은 “성령의 협조자이신 성모님”, “성령 안의 풍성한 삶으로 변화”, “치유를 위한 가르침 및 기도” 등을 강의했다.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 강의, 체험답 등으로 이어진 성령 대회는 박용일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로 마무리됐다.

- 은혜와 치유의 밤

2009년 8월 18~19일 김용열 신부를 초빙해 ‘은혜와 치유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피정에는 이틀간 1,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용열 신부는 강의를 통해 “신자들이 항상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성숙된 신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십자고상 교체

박용일 주임신부 부임 후 지금의 대형 십자고상을 새로 모셨다. 이탈리아에서 약 2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목제 십자고상인데, 가까이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신 듯 실핏줄까지 조각한 아주 정교한 작품이다. 설치 작업은 2009년 4월 11일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 진행했다. 십자고상과 예수상이 매우 무거워서 제대에 세우기 쉽지 않았지만, 교우 중 건축가인 이성구 형제의 설계로 철제 빔을 세운 뒤 십자가를 나사로 고정하고 거기에 예수상을 매달기로 했다.

마침내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상을 매달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있는 작은 구멍에 나사를 끼우는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 밑에서



십자고상 설치에 참가한 교우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받치고 있던 교우들의 힘이 빠져서 예수상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야 가까스로 십자가에 고정할 수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형제들은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오후 2시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4시가 지나 있었다. 그날 저녁 부활 성야 미사에서 신자들은 처음으로 새 십자가상을 볼 수 있었다.

- 방정영 요셉 부주임신부 부임

방정영 요셉 부주임신부가 2010년 4월 11일 부임했다. 방 신부는 박용일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 사목을 이끌었다.



방정영 부주임신부가 2012년 4월 8일 첫영성체를 한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박용일 주임신부가 칠순 잔치에서 교우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 박용일 주임신부 칠순 잔치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임신부의 칠순을 맞아 2011년 10월 16일에 축하연을 마련했다. 박용일 신부는 교우가 지어 드린 한복을 입고 잔칫상을 받으며 흐뭇해했다. 박용일 신부는 신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마련했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나무 목주를 모든 신자들에게 선물했다.

- 박용일 주임신부, 방정영 부주임신부 송별 미사

박용일 주임신부와 방정영 부주임신부의 송별 미사가 2012년 8월 26일 봉헌됐다. 박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사목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에페소서 2장을 인용해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올니 성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했다.

- 김종욱 11대 주임신부, 김기환 부주임신부 부임

김종욱 미카엘 11대 주임신부와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가 9월 2일 부임했다. 김종욱 주임신부 취임 미사는 12월 9일 워싱턴 대교구 도널드 월 추기경이 집전했다.

- 142명 견진성사 거행

2013년 4월 14일 142명의 신자에 대한 견진성사가 거행됐다. 이날 미사는 워싱턴 대교구의 배리 네스타우트 보좌주교가 집전했으며, 네스타우트 보좌주교는 강론에서 “우리는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도널드 월 추기경이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취임 미사를 집전했다.



네스타우트 보좌주교와 김종욱 주임신부,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가 견진성사를 받은 청소년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통해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며 성사를 통해 받은 은사를 세상에 나아가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와 축하연에는 많은 신자들이 참석해 견진성사의 은총과 기쁨을 나눴다.

– 어린이 30명 첫영성체

2013년 5월 5일 30명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했다. 석 달간 교리 공부와 기도를 통해 예식을 준비한 어린이들은 이날 교중 미사에서 신자들의 축하 속에 처음으로 성체를 모셨다. 김종욱 주임신부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의 마음 안에 신앙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날로 커지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탁구 대회 개최

2013년 7월 28일 교우 친선 탁구 대회가 열렸다. 예선을 거쳐 이날 치러진 결선에서는 남자 단식 A·B조에서 유철홍, 분주환, 여자 단식에서 조희분 교우가 우승했다. 복식은 박무희·정태린 조가 1위를 차지했다. 가족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교우들은 운동과 함께 체력도 다지고 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당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탁구 친목 모임이 열린다.



김종욱 주임신부가 탁구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봉헌

2013년 9월 1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대에는 차례상과 향로를 마련해 신자들이 미사 후 분향과 함께 조상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했다. 친교실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가 끝난 후 교우들이 차례상에 분향하고 있다.

- 연말 경로잔치, 위문 공연 마련

2013년 12월 15일에는 연말을 맞아 '만수무강 경로잔치'를 열었다. 성당과 주변의 어르신들을 초청한 이날 잔치에서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을 펼치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숨비소리' 사물놀이 팀의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평화 무용 선교단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단원들이 무용을 선보였고, 안나회 소속 할머니들의 합창과 레지오 단원들의 댄스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의 노래 경연과 퀴즈 대회 등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김중욱 주임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의 본당 공동체가 자리 잡기까지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쳐 주신 여러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느님 은총 안에 영육 간에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로잔치와 별도로 레지오 마리아 주관으로 14일 랜돌프 양로원과 21일 컬럼비아 양로원을 방문해 위문 공연을 열고 음식과 선물을 드렸다.



경로잔치에서 본당 어르신들이 합창을 했다.

– 성탄 미사 봉헌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2013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미사가 봉헌됐다. 김종욱 주임신부는 24일 밤 구유 예절에 이은 성탄 대축일 밤 미사에서, “우리는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느님의 자기 비움의 정신을 배운다.”고 말했다. 미사 후에는 한 해 신약 성경을 필사하거나 통독한 신자 141명이 교우들의 축하를 받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귀여운 공연도 펼쳐졌다. 아울러 친교실에서 다과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성탄 미사에서 어린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 신년 피정 개최

2014년 1월 19일 새해를 맞아 피정을 개최했다. 이날 피정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미카엘 신부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주제로, ‘감사하기’, ‘인내하기’, ‘열매 맺기’

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정에는 많은 신자들이 참석해 새해를 시작하며 신앙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최준규 신부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주제로 신년 피정을 지도했다.

– 사순 피정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하여’

2013년 3월 23일 사순 시기를 더욱 뜻깊게 지내고자 피정을 가졌다. 피정 지도를 맡은 예수회 손우배 요셉 신부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은 서로가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기쁨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모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피정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의미를 묵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부활 대축일 미사 “주님 사랑 깨닫고, 감사하는 삶 살아야”

2014년 4월 20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성삼일 전례로서 성목요일에는 주님 만찬 미사, 성금요일에는 주님 수난 예식, 성토요일에는 부활 성야

미사가 거행되었고, 20일에는 부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었다. 김종욱 주임신부는 부활절 미사 강론을 통해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말했다. 미사에서는 한국 세월호 침몰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31명의 예비 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으며, 미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많은 교우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 행사도 가졌다.

부활 대축일 미사 때 세례식이 함께 거행됐다.



– 2014년 여름 신앙학교 개최

2014년 여름에는 본당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를 개최했다. 4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는 6월 20일과 21일, 유치원부터 3학년 어린이는 21일과 22일, 7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들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신앙학교에 참가했다. 여름 신앙학교에서는 “성인의 삶”을 주제로 본당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성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김종욱 주임신부 사제 수품 25주년 감사 미사

김종욱 신부 사제 수품 25주년 감사 미사가 2014년 9월 28일에 봉헌됐다. 이날 미사와 축하연에는 많은 신자들이 함께해 기쁨을 나눴다.

김 신부는 강론을 통해 “지난 세월 하느님께서서는 사제 직무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으며 특히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 아픈 분들과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사제가 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때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잘못 살아온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런 저를 당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이 있고, 이는 모두 주님 은총 덕분”이라고 하며 “남은 생애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닮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는 흥겨운 축하연이 열려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팀이 공연을 펼치며 기쁨을 나눴으며, 김 신부의 지나온 삶을 담은 사진들을 함께 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 신부는 1989년 수품 후, 서울 대교구 대치동, 독산동, 월곡동, 화곡본동 보좌신부와 수궁동 주임신부 그리고 사목국 교육담당과 대신학교를 거쳐 2012년에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김종욱 주임신부가 28일 사제 수품 25주년 감사 미사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5.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미사와 행사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워싱턴 지역의 첫 한인 가톨릭 공동체로 출발해 1974년 3월 31일 워싱턴 대교구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았으며,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설립 초기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사제를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DC의 한인 신자들이 DC 미국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으며, 이후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성전을 거쳐, 2004년부터 지금의 올니에 성전이 자리잡게 되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영혼의 쉼터요, 믿음의 터전으로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버지니아 등 인근 한인 가톨릭 공동체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발족

2014년 3월에 본당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 위원장은 손순희 사목회장, 재정 담당 최병국 부회장, 기념품 임영태 부회장, 기념집 김근삼 홍보분과장, 사진전 주성희 문화체육분과장이 맡았으며, 김연석 총구역장, 김영택 에이지 그룹장, 김덕중 기획행사분과장 등도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황창연 신부를 특별 피정 강사로 초청했으며, 준비 과정에서 전 사목회장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했다. 기념집 발간과 사진전 준비를 위해 8월부터 신자들의 원고와 사진을 모집했다. 40주년에 맞춰 방송반과 방송 기기를 재정비하고, 본당과 복도의 조경도 교체했다.

- 감사 미사와 피정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는 2014년 6월 8일에 봉헌됐다. 미사는 본당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서울 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했으며, 본당 신자와 축하객 등 1,100명이 참석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로 봉헌된 이날 예식에서는 28명의 어린이가 첫 영성체를 했다.

염 추기경은 미사에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가 하느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온 지 40년이 되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찬미와 감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와 피정

메릴랜드 올니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천주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미사와 피정을 개최합니다. 워싱턴 한인천주교회는 워싱턴 지역의 첫 한인 가톨릭 공동체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쉼터와 믿음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설립 4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
40주년 감사 미사는 6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할 예정입니다. 염 추기경은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으로 지난 1월 교황청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념 피정
기념피정은 서울 서울대교구장까지 서울간 통행민선방 지도로 진행됩니다. 참신회는 영적공 주례위원 공의와 영성, 자선 활동으로 운영되며, 환경운동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기념 사진전
● 일시: 6월 4일 - 6월 15일(월) - 15일(일)
● 장소: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기념 골프회
● 일시: 6월 29일 (토) 오후 1:00
● 장소: Hanonville Golf Course 616 Freedom Dr. Star Spots, MD 20855
● 참가비: \$100

▶ 문의: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301) 260-1981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김용국(이재호)·최복선부 | 김기환(이서) 사목위원장 | 손순희(이서)

40주년 광고 도안

사를 드리자.”고 말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4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신앙적 성숙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새로워지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대교구의 도널드 월 추기경도 미리 보낸 메시지에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가 40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앙 안에서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 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설립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강도호 워싱턴 총영사, 아이크 레겟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캐런 몽고메리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수전 리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장,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 서재홍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장, 이병희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손순희 사목회장은 교우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미사 후에는 축하연도 마련됐다. 미사를 주례한 염 추기경과 김종욱 주임신부, 김기환 부주임신부, 많은 교우들과 축하객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감상하면서 설립 40주년을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피정도 개최했다. 피정은 6일부터 사흘간 황창연 신부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삶과 죽음”, “회개와 용서”, “죄에 이르는 길”, “천국으로 가는 여권”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신앙과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40년 본당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사진전과 40주년 기념 골프 대회도 열었다.

—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 행사에 이어, 2014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가 열렸다. 특히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를 맡고 18명의 사제들이 공동으로 집전한 10일 화요일 특전 미사는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을니 성전 교중 미사 중 제대 위 십자가로 햇살이 비치고 있다.

[40주년 감사 미사]



본당 설립 40주년 화보



1	
2	3

- 1 서울 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가운데)이 2014년 6월 8일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를 집전했다. 왼쪽은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오른쪽은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
- 2 손순희 시몬 사목회장이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에서 교우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3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에는 많은 교우와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강론을 하고 있다

[40주년 감사 미사]



[40주년 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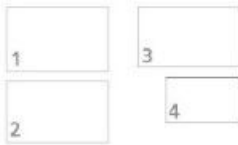
1	2	4	7
		5	
3		6	

- 1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를 집전한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가운데)과 사제들이 강복을 하고 있다.
- 2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를 집전한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교우들로부터 박수를 받자 하트 모양을 그려 보이고 있다.
- 3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를 집전한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가운데)이 미사 중 첫명성체를 한 28명의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4 2014년 6월 8일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에 이어 친교실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오른쪽 두 번째)과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오른쪽), 김기환 루카 부주임 신부(왼쪽 두 번째), 손순희 시몬 사목회장(왼쪽)이 축하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 5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연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귀여운 공연을 펼쳤다.
- 6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연이 열린 친교실에서 내·외빈과 교우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 7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축하연에서 탭댄 공연을 한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40주년 축하연]



[40주년 사진전]



- 1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연을 열어 아흔
답게 장식된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 2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수행한 안원진 베드로 신부(왼쪽)가 본
당 수녀님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3 본당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
성당에서 열린 사진전에서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김종욱 미카
엘 주임신부,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
손순희 시몬 사목회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4 서울 대교구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주성희 마가렛 사목회 문화체육분과장
의 안내로 40주년 기념 사진전의 전시
품을 관람하고 있다.



[황창연 신부 40주년 기념 피정]





1	2	4
3	5	

- 1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2014년 6월 6일부터 사흘간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가 지도하는 피정이 있었다.
- 2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피정을 지도한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가 교우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있다.
- 3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의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피정에는 본당 교우뿐만 아니라 많은 타 본당 교우들과 비신자들도 참석했다. 성전에 앉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교실에서도 대령 화인으로 피정을 중계했다.
- 4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가 7일 피정에 이어 토요일 특전 미사를 집전했다.
- 5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 행사에 이어, 2014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 모임이 있었다. 특히 10일 화요일 특전 미사는 영수정 추기경이 추례하고 18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하여 미사에 참여한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



[노인 아파트 미사]



1	3
2	4

- 1 서울 대교구 연수정 추기경이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2 서울 대교구 연수정 추기경과 공동 집전한 18명의 사제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3 연수정 추기경이 김대건 안드레아 노인 아파트 교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4 본당 설립 40주년 맞아 본당을 찾은 서울 대교구 연수정 추기경이 김대건 안드레아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고 미사를 집전했다.

원로 교우와의 대담: 남규백 형제의 ‘네 가지 기적’

40년 전 한인 가톨릭 교우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본당 공동체가 지금의 올니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다. 본당 공동체에 초창기부터 몸담았고, 초대 성전건축위원장과 제11대 사목회장을 지낸 남규백 형제로부터 올니 성전과 노인 아파트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일시: 2013년 12월 1일

장소: 사제관

참석: 남규백 전 사목회장, 김종욱 주임신부, 손순희 사목회장

정리: 40주년 기념집 편집부



남규백 전 회장: 저는 초대 왕영수 주임신부님은 모시지 못했지만, 3대 이세진 주임신부님 때부터 본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본당 4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니 성전 부지 매입과 건립, 노인 아파트 건립 등의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네 가지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꼭 본당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공동체가 올니 성전 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당시 메릴랜드 올니에 160에이커의 땅이 나왔는데, 쟁쟁한 미국 건축업체 일곱 곳이 이미 땅을 사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땅을 구입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합니다. 땅 주인과 땅을 파는 쪽의 부동산 에이전트, 세틀먼트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땅을 사는 쪽에서도 역시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갖고 있던 하이드 집안이 가톨릭 신자였고, 이들의 에이전트 들로이니 씨, 변호사 밀러 씨도 모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당연히 땅을 사는 쪽도 당시 유재식 주임신부님이었고, 에이전트는 저, 변호사도 본당 교우였던 이인탁 씨였습니다. 땅을 사고파는 당사자가 모두 가톨릭 신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이드 집안의 에이전트 들로이니 씨를 만나서 메릴랜드에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꼭 사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분들도 가톨릭 신자라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쟁한 미국 건축업체들을 물리치고 성전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유재식 신부님에 이어 부임하신 이철호 신부님께 성전 부지를 보여 드렸더니, 신자들의 영성 개발이 먼저라면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신 신정순 신부님께서도 건강 등의 문제로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임승철 신부님이었는데, 부지를 보고 나서 곧바로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니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설계 회사와 건축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것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해결됐습니다. 설계사는 교구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한인이었습니다. 본인은 개신교 신자지만 이분이 속한 회사 사장이 가톨릭 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인 설계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회사를 정하는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임승철 신부님이 뉴욕에 불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셨는데, 객차 안에 한국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딱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건넸더니 한국인이 맞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뉴욕에서 건축업을 크게 하는 한인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이분이 올니 성전



원로 교우 남규백 형제

건축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건립을 위한 한인 인재를 만나게 된 건,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노인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험했습니다. 당시 정갑진 회장이 건축위원장이었고, 저는 건축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승철 신부님께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서, 노인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하신 겁니다. 올니 성전으로 옮기면 칼리지파크 성전 주변에 사시던 노인분들이 성당에 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파트를 건축할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여쭙 봤더니, 한 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노인 아파트를 지어 보자는 게 임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갑진 회장과 함께 연방정부 기금으로 한인 노인들을 위한 '유니버시티 가든 아파트'를 지었던 최 박사를 만나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당 내 주택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교구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방문했는데, 로리 총대리 주교님께서 대교구 방침에 따라 본당 주택 조합은 만들 수 없고, 대교구 소속 '빅토리하우징' 회사를 통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리 주교님께서 빅토리하우징 짐 브라운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브라운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여간 냉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느냐고 했다가, 로리 주교님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니 그제야 다음 날 약속을 잡아 줬습니다. 오후 1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15분 전에 브라운 사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워싱턴 대교구에서 지은 양로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불현듯 '부탁하러 가는 마당에 빈손으로 가서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변 가게에 가서 35달러어치 꽃을 샀습니다. 당시 35달러면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맞아 주시는 수녀님께 꽃다발을 드리며, 노인들이 계시는 복도를 장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녀님께서 고마워하시면서 화병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꽃을 나눠 꽂았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서 기다렸더니 30분 후 브라운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복도에 장식된 꽃들을 가져왔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더니 브라운 사장의 목소리가 180도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프랭크'라는 저의 영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더니,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어 온 것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 주는 '섹션 202' 프로그램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브라운 사장은 자기도 들어는 봤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다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흘 만에 전화가 왔는데, 한번 같이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부지 일부를 아파트 건축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당시 연방정부 주택국에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워싱턴 권역에서 매년 한 건의 섹션 202 건축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일곱 곳에서 신청했다고 하더니, 일주일 후에는 열다섯 곳, 다시 일주일 후에는 스무 곳, 마지막에는 스물두 곳까지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브라운 사장에게 “과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최선을 다해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졸이는 기다림 끝에 6개월 만에 브라운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식당에서 교우들과 식사를 하시던 임승철 신부님께 한달음에 달려갔고, 서로 어깨를 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연방정부 예산만으로 지은 것이어서, 입주자를 본당 신자만으로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가리면 안 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했습니다. 임승철 주임신부님과 고민을 하던 중, 마침내 화요일인 2002년 6월 22일에 선착순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임 신부님은 20일 주일 미사 때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노인분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접수처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접수처는 ‘올니 시빅 센터’였는데, 임 신부님이 직접 노인분들과 함께 건물 앞에서 줄을 서셨습니다. 임 신부님께 “월요일부터 줄을 서도 되지 않겠느냐.”고 여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일부터 줄을 서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왔는데, 신부님은 결국 담요 하나만 두른 채 노인분들과 밤을 보내셨습니다. 입주를 원하던 70여 가구의 노인분들과 가족, 신부님까지 100여 명이 건물 앞 노천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 한 명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고, 올니 시빅 센터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애처로웠는지 강당에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임 신부님은 다음 날 밤도 교우분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임 신부님의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양 떼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함께 밤을 보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노인 아파트에는 본당 노인분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노인 아파트가 총 76세대였는데, 관리인이 사는 한 세대를 뺀 75세대 중 73세대에 본당 교우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교우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쓴 돈은 꽃을 사기 위한 35달러뿐이었는데 6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작 35달러를 냈는데, 주님께서 600만 달러를 주신 겁니다. 저는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천 배 만 배로 갚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간담회: 김치부대 자매님들의 본당 사랑



2013년 12월 15일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간담회에
참석한 김치부대원과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가운데)

‘김치부대’는 본당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만든 채소로 김치 등을 만들어 팔고, 수익금을 성전 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많은 희생과 정성은 특히 성전 건축 과정에서 기금 모금의 기폭제이자 다른 교우들의 귀감이 됐다. 우리 본당 역사에 길이 남을 김치부대 할머니들과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일시: 2013년 12월 15일 오후 12시

장소: 앤드류 김 하우스 친교실

참석: 김치부대 할머니들

사회: 정옥화 데레사

정리: 40주년 기념집 편집부

사회: 김치부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중욱 미카엘 주임신부님과 손순희 시본 사목회장님을 모시고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치부대원으로 활동했던 마흔여섯 분 중 스물아홉 분이 참석했습니다. 마흔여섯 분 중 아홉 분은 작고하셨고, 다섯 분은 양로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열네 분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치부대가 언제 시작됐나요?



고봉희 발비나: 유재식 주임신부님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13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김치를 만들어 판 건 아니고요. 성전 기금에 보태 드리려고 잔치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2,000달러 정도를 모아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평일에 이틀간 모여서 김치를 만들고, 토요일과 주일에 판매했어요.

사회: 김치를 얼마나 만드셨나요?

양경희 마리아: 매주 배추 열다섯 박스로 김치를 담그면 한 박스에 일곱 병씩 백다섯 병이 나와요. 김치 한 병에 10~12달러에 팔았는데, 100병씩 4주로 계산하면 한 달 수입이 5,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기갑분 레지나: 김치를 만들어 팔기 위해 매주 15명 정도가 나홀씩 일했습니다. 평일 이틀간 배추를 씻어서 절이고, 버무리고, 주말에 팔았죠.

사회: 김치부대 김치가 인기가 많았죠?

조금연 루치아: 김치가 많이 팔릴 때는 배추를 사러 마켓에 두 번씩 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배달을 안 해서 사러 가야 했죠. 장월레 루치아 자매님과 함께 갔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김순례 마리아: 나중에는 김치 종류도 점점 많아졌는데요. 배추김치 외에도 물김치와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부추김치까지 여섯 가지나 됐어요.

양경희 마리아: 부추김치는 사제관 뒤뜰에 직접 심은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는 역할 분담이 잘되고 각자의 일에 익숙해져서 부추를 손으로 한 줌 집으면 저울로 잰 것처럼 양이 같을 정도였어요.

사회: 김치 말고, 다른 음식도 파셨죠?

백화실 스콜라스티카: 성당 건축기금으로 한 달에 5,000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김치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침, 만두, 팔죽, 호박죽, 개떡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팔았죠. 그래서 약정금보다 많은 총 7,200달러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호박죽 하면 돌아가신 김홍순 데플라 자매님이었고, 저는 개떡떡을 팔면서 '개떡 할머니'가 됐죠.

기갑분 레지나: 나물도 뜯어서 팔았는데, 썩을 뜯으러 버스 타고 멀리까지 가기도 했어요. 나물을 팔아서도 7,000달러 넘게 모았습니다.

장월레 루치아: 뭐 또 돈 되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막걸리도 만들어 팔았는데요. 나중에 음주 운전 사고가 나서 그만졌습니다. ^^

사회: 매주 김치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없으세요?

함성분 미카엘라: 냉동 물오징어를 구입해 맨손으로 다 다듬어서 김치에 넣느라 고생했죠. 냉동 오징어 껍질 까는 게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양파도 갈아 넣었는데요. 덕분에 맛있는 소문이 나서 볼티모어에서도 사러 오셨어요.

지기찬 마틸다: 지금 양로원에 계시는 최양순 안나 자매님과 돌아가신 남편 최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장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정인구 요셉 형제님도 계셨어요. 김치부대에 형제님이 두세 분 계셨는데, 처음에는 자매님을 차로 데려다 주러 오셨다가, 나중에는 배추 씻고 절이는 힘든 일도 도와주시고, 물건 배달도 해 주셨죠.



사회: 김치 만들다 병이 나서 고생도 하셨다면요?

김달선 베로니카: 고생한 건 없어요. 즐겁게 봉사했죠.

사회: 성당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가족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변선자 수산나: 오히려 신나고 행복했죠. 김치 만들 땐 근심 걱정도 없고, 함께 기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사회: 올니 본당을 지을 때 계셨던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님도 김치부대를 각별히 생각하셨다면요?

최규철 안나: 잊을 수가 없죠. 임 신부님이 식당에 가서 김치부대 자매님, 형제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사 주셨고요. 부추를 가져다가 팔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사회: 김치부대원들이 이곳 앤드류 김 하우스에 많이 살고 계신데요. 사연이 있으시죠?

정영순 데레사: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를 짓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김치부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애쓰신 할머니들이 정작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자녀들이 모시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분이 많았거든요. 임 신부님이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성전 부지가 넓으니까 연방정부에 부지 일부분을 제공하고, 노인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니 한국 분들만 모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미사 강론 중에 임 신부님이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줄을 서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성당 버스를 타고 올니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줄을 섰는데요. 2박 3일간 줄을 섰죠. 첫날 밤은 마당에서 잤는데, 이튿날은 신부님이 말씀해 주셔서 커뮤니티 센터 강당 안에서 잠을 잤죠. 임 신부님도 함께 밤을 보내셨는데요. 마침 2002년 월드컵 한국전 중계를 해서 같이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성모회에서는 음식을 해 주셨고요.

사회: 그래서 김치부대원들이 얼마나 앤드류 김 하우스에 입주하셨나요?

정영순 데레사: 마흔다섯 분 중 세 분 빼고 모두 이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 김치부대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희생정신을 어여삐 여기시고, 임 신부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회: 앤드류 김 하우스에 사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김전녀 마리아나: 무엇보다 성당에 걸어갈 수 있고 가까워서 좋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파서 성당에 못 갈 때는 성당이 보이는 복도 창가에 서서 성체 조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주민 중 많은 분들이 교우니까 한 가족 같고, 아프거나 힘들 때는 서로서로 챙기고 도와줍니다.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전 가끔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서 눈물이 납니다. 젊어서 특별히 열심히 살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미국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걱정은 하나도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사회: 김치부대 활동은 언제 끝났나요?

김영숙 루치아: 2007년 10월에 애를 많이 쓰셨던 기세영 암브로시오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 김치부대 활동도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11년간 매달 5,000달러 정도 건축기금을 모았으니까요. 다 합하면 66만 달러 이상 될 것 같아요. 백화실 스킨라스티카, 기갑분 레지나 자매님은 본당에서 감사장을 받으셨고, 기세영 암브로시오 형제님은 카운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사회: 옛날 추억이 담긴 좋은 말씀들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부대 여러분들의 노고는 본당 교우들과 후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부대원 명단(가나다순): 강호옥 로사, 고봉희 발비나, 기갑분 레지나, 기세영 암브로시오, 김계용 데레사, 김규철 안나, 김달선 베로니카, 김덕인 데레사, 김명생 엘리사벳, 김복희 안나, 김순례 마리아, 김영숙 루치아, 김옥란 아가다, 김옥한 마리아, 김일영 마틸다, 김전녀 마리아나, 김종숙 원선시오, 김홍순 테클라, 남운숙 루치아, 박달연 세레나, 박영순 안젤라, 백화실 스킨라스티카, 변선자 수산나, 신성순 아가다, 양경희 마리아, 연재희 프란치스카, 윤점례 마르타, 이두리 데레사, 이순례 헬레나, 이영숙 가밀라, 이옥수 루치아, 이차녀 안나, 장명옥 데보라, 장월레 루치아, 정영순 데레사, 정인구 요셉, 조금년 루치아, 조명분 카타리나, 조명숙 글라라, 지기찬 마틸다, 진수임 에밀리아, 최능희 루치아, 최양순 안나, 최운숙 수산나, 함성분 미카엘라.



1 9 7 4
2 0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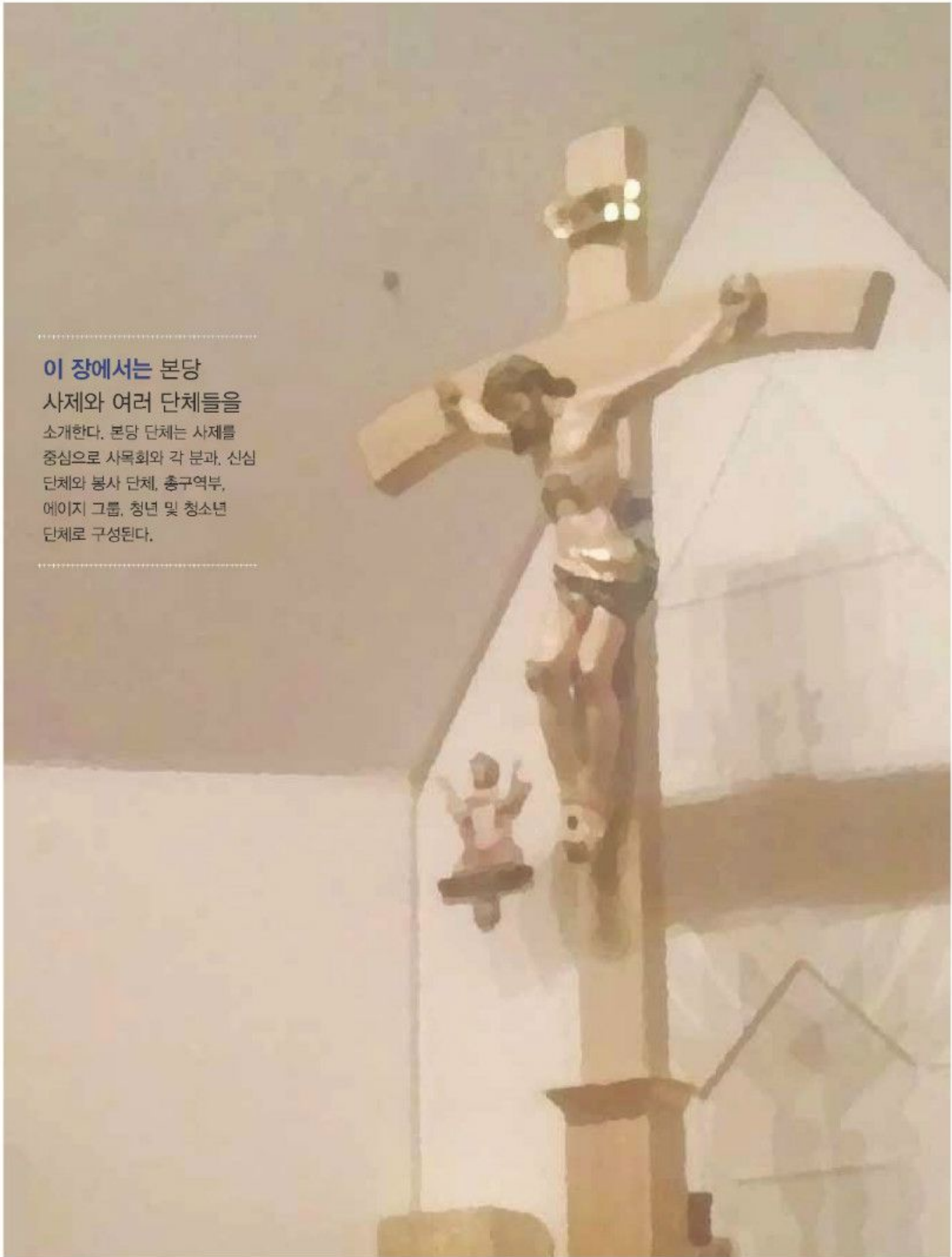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본당 소개**

본당 사제
본당 단체



이 장에서는 본당
사제와 여러 단체들을
소개한다. 본당 단체는 사제를
중심으로 사목회와 각 분과, 신심
단체와 봉사 단체, 총구역부,
에이지 그룹, 청년 및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다.



본당 사제



11대 주임신부
김종욱 미카엘
(2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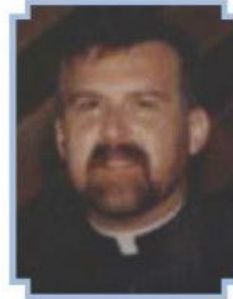


부주임신부
김기환 루카
(2012.9~)

역대 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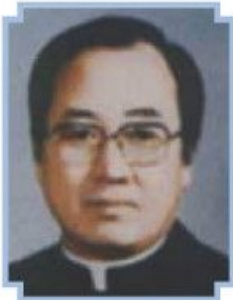
초대 신부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74.3~1979.9)



2대 신부
한 바오로
(1979.9~1983.11)



3대 신부
이세진 요한
(1983.12~198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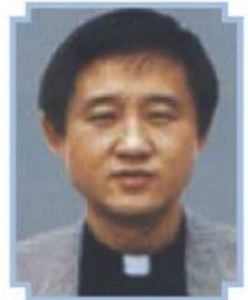
4대 신부
유재식 안셀모
(1986.11~1990.7)



5대 신부, 워싱턴 교구 관리
마크 브렌넨
(1990.8~1991.5)



6대 신부
이철호 암브로시오
(1991.6~1995.3)



7대 신부
신정순 베네딕토
(1995.3~1996.10)



8대 신부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1996.10~2002.10)



9대 신부
이찬일 안드레아
(2002.10~2007.9)



10대 신부
박용일 타대오
(2007.9~2012.8)



부주임신부
방정영 요셉
(2010.4~2012.8)

본당 단체



사목회

- 사목회와 재정위원회

‘사목회(사목협의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자문 기구로, 본당 성직자와 주임신부가 임명한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된다. 사목회는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을 돕는 자문과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당 사목회는 지난 1974년 5월 5일 초대 주임신부인 왕영수 신부가 임명한 임시

사목회로 출범했다. 당시 회장은 김상규, 김현태 교우가 맡았다. 1977년 1월 19일에는 사목회 회칙을 마련했다.

본당 사목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각 분과장과 단체장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재정위원회는 2004년 12월 설립됐으며, 본당의 재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2014년 사목위원

24대 사목회장: 손순희 시몬(2012.1~)
 사목회 부회장: 임영태 야고보,
 최병국 안토니오
 사목회 총무: 장문규 예로니모
 총구역장: 김연석 다마스
 에이지 그룹장: 김영택 미카엘
 전례분과장: 류석구 요한
 선교분과장: 김정순 베네딕다
 교육분과장: 권희성 프란치스코
 기획행사분과장: 김덕중 베드로
 홍보분과장: 김근삼 빈첸시오
 문화체육분과장: 주성희 마가렛
 사회복지분과장: 맹일민 마르티노
 성전관리분과장: 서충원 요한
 청년분과장: 김세완 테드
 청소년분과장: 이경복 보니파시오
 성모회장: 김숙희 마르타
 재정위원장: 안현수 방지거

15대 박달규(1991.5~1994.12)
 16대 손경준(1995.1~1995.12)
 17대 정갑진(1996.1~1998.12)
 18대 강길중(1999.1~2000.12)
 19대 박달규(2001.1~2004.12)
 20대 최규용(2005.1~2005.12)
 21대 백승환(2006.1~2007.12)
 22대 윤일현(2008.1~2009.12)
 23대 조명철(2010.1~2011.12)



재정위원회

○ 역대 사목회장

1대 김상규, 김현태(1974.3~1975.9)
 2대 김현태(1975.10~1976.9)
 3대 강영훈(1976.10~1977.9)
 4대 박삼열(1977.10~1978.9)
 5대 마종인(1978.10~1980.9)
 6대 이덕선(1980.10~1981.9)
 7대 이인탁(1981.10~1982.9)
 8대 전성남(1982.10~1983.9)
 9대 김명길(1983.10~1984.9)
 10대 박병철(1984.10~1986.9)
 11대 남규백(1986.10~1987.9)
 12대 이덕선(1987.10~1989.9)
 13대 이인탁(1989.10~1990.7)
 14대 김기춘(1990.8~1991.4)



본당 행정·재정·시설 관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직원들. 오른쪽 아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최 율리안나 사무장, 이의정 카타리나, 유철홍 요셉 관리장, 윤송화 마리아



성가대



반주단



해설단

- 전례분과

전례분과는 미사 전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예식이 거룩하고 원활하게 집전되도록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성가대, 복사단, 독서단, 해설단, 성체 봉사단, 제대회, 헌화회 활동을 총괄한다.

○ 성가대

성가대는 전례를 거행할 때 성가를 부르거나 일반 교우들의 합창을 선창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의식이 좀 더 경건하고 장엄하게 거행되도록 한다. 본당 성가대는 1975년 10월 22명의 대원으로 창단했다. 본당 성가대의 문은 성가와 전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또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사 전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우들을 기다리고 있다.

○ 반주단

반주단은 전례 성가 연주를 담당한다. 반주단은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전례가 풍성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신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가 봉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해설단

해설단은 미사 전례의 소개를 도움으로써, 전례에 교우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본당 해설단은 1996년에 설립됐다. 해설단은 사제를 도와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교우들이 전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독서단

독서단의 역할은 미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합당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격려와 사랑을 담은 성경의 메시지는 독서자의 전달 방법에 따라 살아 있는 말씀으로 신자들의 가슴에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독서자의 역할은 미사 전례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독서자로 지명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은총을 받게 된다. 독서단은 말씀의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교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독서단

○ 복사단

복사단은 미사 때 사제 곁에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하는 봉사 단체다. 복사는 제대위, 사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으며, 사제를 도와 미사 전례가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자들이다.

2014년 2월 현재, 본당에는 4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두 25명의 복사들이 있다. 복사로 선택된 학생들은 한 달 반의 신입 복사 교육을 받고 입단식을 거친 후 평일 미사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약 6개월 후부터 주일 미사에서도 봉사한다. 아울러 평일 오전 미사는 어르신 복사단이 담당해 봉사하고 있다.



복사단

○ 성체 봉사단

성체 봉사단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룩한 역할을 수행한다. 성체 분배자들은 주님의 몸을 전하는 도구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체 봉사단



제대회



선교분과

○ 연령회

연령회는 본당의 상장 예절을 돕는 봉사 단체다.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거룩한 장례가 되도록 지원한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선교도 한다.

- 선교분과

선교분과는 교리 교육(예비자, 새 영세자)과 선교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본당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구역부, 레지오 마리아 등 본당 안의 각 단체와 협조하여 선교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주관하며, 새 예비 신자 인도와 교리반 돌봄을 위해 노력하며, 타 본당에서 전입하는 신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포 사목이 발전되지 않은 해외 공동체를 위한 선교 활동도 펼치고 있다.

○ 예비자 교리반

선교 활동이나 주위의 권유를 통해 본당에 온 예비 신자들의 교리 교육과 세례성사 준비를 지원한다. 교리 교과서와 기도서 등을 배부하고,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새 영세자반

세례성사를 받은 새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단체 활동과 구역모임 등 본당 공동체 안으로 인도함으로써, 냉담을 막고 신

○ 제대회

제대회는 교회 의식에 필요한 제의와 모든 성물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며, 미사를 준비하고, 전례의 중심인 제단과 주변이 정돈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의 성장을 돕는다.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1년간 새 신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전입 교우반

전입 교우반은 본당을 방문하거나, 본당에 새로 전입한 교우들을 돕는다. 미사 중 소개와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친교 시간에 점심을 제공하며, 교적 정리와 구역 및 에이지 그룹 활동을 위한 안내도 하고 있다. 또 레지오 마리에 등 본당 내 다른 봉사 단체와 협력해 공동체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 교우반

○ 미디어 선교반

미디어 선교반은 CD와 DVD, 인쇄물 등의 매체를 통한 선교 활동을 담당한다. 본당 교우는 물론이고 쉬는 신자와 비신자, 해외 신자를 대상으로도 복음 전파와 신앙의 성장을 위한 미디어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방문 교리반

○ 피정 녹음반

본당에서 열리는 모든 피정과 세미나 등을 녹음해서 미디어 자료로 만들고 있다. 또한 타 본당에서 열린 피정과 성령 세미나 등의 자료를 입수해 제공함으로써 본당 신자들의 신앙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방문 교리반

방문 교리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착한 목자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2013년 1월에 발족했다. 가톨릭 신앙을 갖기 원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성당에 나올 수 없는 분, 직장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리반 수강이 어려운 분 등에게 방문 교리 교육을 제공한다. 방문 교리를 원하는 경우 본당 사무실에 있는 신청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교육분과

교육분과는 교우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며 본당에서 열리는 피정과 세미나, 연수 등을 주관한다. 또 신자 재교육을 위한 봉사자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 그룹 성경 모임

‘그룹 성경 모임(Catholic Bible Life Movement)’은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 교



그룹 성경 모임

육과 전례의 생활화 그리고 평신도 말씀의 봉사자 양성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1971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가톨릭 성경 모임'은 국내외로 전파되어 1988년 미주에도 지부가 생겼다. 본당 그룹 성경 모임은 1999년 임승철 주임신부 재임 당시 가톨릭 성경 모임 미주 지부 대표 임금자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성경 모임에서는 주 1회 4~6명이 봉사자와 함께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 체

험을 나눈다.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수녀님을 초청해 연수를 받고, 성경 가족 일일 피정과 성지 순례도 실시하고 있다. 성경 모임에서는 본당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 읽기 40주간도 주관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알아가고, 신앙적인 깨달음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모임에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 성령 기도회

성령 기도회는 1980년에 1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령 기도회의 목적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봉사로 회원 개개인과 가정의 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 지침에 부응하는 성령 쇄신 운동을 전개하여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성령 안의 신앙생활로 인도하는데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갈망하는 신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



성령 기도회

께 모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임이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임과 동시에, 각자 하느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인 것이다.

성령 기도회는 성시간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교육관 226호에서 기도모임을 가지며, 성령 세미나와 동중부 성령대회, 매월 성시간 등을 주관하고 있다.

○ 성소후원회

본당 성소후원회는 1992년 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을 기하여 교회 안의 사제 성소를 폭넓게 개발·육성하기 위해 당시 이철호 암브로시오 주임신부의 지도로 발족했다.

성소후원회는 회원들의 월 회비와 특별 행사 수익, 구유 예물, 현금 보조금,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찬조금 등을 모아 1993년부터 한국 원주·안동·춘천 교구 신학생을 위한 후원금을 보냈으며, 1994년부터는 당시 유재식 주임신부의 추천으로 대전 교구 신학생 두 명도 후원했다. 또 본당의 박아담, 이병권 세바스찬 두 신학생이 사제품을 받을 때까지 후원했으며, 로마에 유학 중인 부제 두 명과 은퇴 신부께도 도움을 드렸다. 매년 복사들을 중심으로 성소 피지도 후원하고 있다. 성소자들을 위한 뜻깊은 사업에 더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기획행사분과

기획행사분과는 본당 모든 주요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다. 매년 연중 행사 일정을 세우며, 각 분과 활동을 조정한다. 또

본당 사목에 필요한 외부와의 연락도 맡고 있다. 기획분과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본당 역사의 기록과 자료 보관이다. 기획행사분과 산하 방송반은 미사와 피정, 세미나, 음악회, 야외 활동 등 본당 각종 행사의 방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홍보분과

홍보분과는 본당과 본당 주요 행사 및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본당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며,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과 기록물의 제작도 지원한다. 본당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광고 제작과 게재도 담당한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집 제작을 주관했다.



홍보분과



숨비소리



기타반



탁구반

- 문화체육분과

문화체육분과는 다양한 문화와 체육 활동을 통해 교우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 사회 선교 활동도 펼치고 있다.

○ 숨비소리 사물놀이 패

'숨비소리'란 해녀들이 깊은 물속에서 나와 쉬는 첫 숨을 말한다. 본당 숨비소리 사물놀이패는 지난 2005년 창단했으며, 본당과 지역 사회 행사에 참가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연습 시간을 갖고 있다.

○ 기타반

기타반은 기타와 노래를 통해 삶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정과 공동체, 이웃 사랑과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설됐으며, 중·장년층이지만 마음만은 20대 못지않은 15명의 반원들이 매주 한 시간씩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탁구반

탁구반은 탁구를 통한 본당 교우들 간 친목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소성당에서 운동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움츠러들기 쉬운 동절기에도 건강한 취미 생활과 친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 사진반

본당 아마추어 사진 동아리 모임이다. 여행의 기억,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사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교우들이 함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분과

사회복지분과는 본당 교우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해 의료와 보험, 이민 세미나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우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 성전관리분과

성전관리분과는 성전과 본당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성모회

“마리아와 마르타의 역할에 충실한 성모회” 역사는 40년 전 본당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 교우들이 ‘부인회’라는 이름으로 친교와 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1974년 부임한 왕영수 초대 주임신부가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성모회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초기 부인회 회원들과 만나회, 김치부대 자매님들의 희생과 노력은 성모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성모회는 본당의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봉사 단체다. 부활과 성탄 등 전례 시기와 본당의 중요한 행사 때 교우들과 방문자들을 위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설 떡국 봉사, 추석 차례상 차림도 담당하고 있다.



성모회



성물부

골프 대회와 경로잔치, 장례 음식도 맡고 있으며, 특히 성모 승천 대축일 행사를 주관한다. 성물부도 성모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모회는 최근에도 음식 판매와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친교실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특히 초기 성모회 회원들과 만나회(김치부대) 자매님도 많은 희생으로 성모회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성모회는 모든 회원들이 성모 마리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심 단체와 봉사 단체

○ 레지오 마리아

레지오 마리아는 개인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교회의 영적 군대이자, 교회의 발전을 위해 희

생하고 봉사하는 평신도 특수 사도직 신심 단체다. 레지오 마리아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 성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교회의 사업과 하느님의 뜻을 향해 기도와 활동으로 봉사한다.



본당 레지오 마리애는 유재식 안셀모 주임신부 재임 시절, 어려운 교우들을 도와줄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단되었다. 1987년 5월 16명의 교우들이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을 처음 결성했으며, 지금은 18개의 브레시디움으로 발전하였다. 1991년에는 '103위 성인의 모후 꾸리아'가 설립됐으며, 현재 본당의 모든 브레시디움은 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1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Pr)
- 2 인자하신 모후 브레시디움
- 3 사도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 4 바다의 별 브레시디움
- 5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
- 6 죄인들의 피난처 브레시디움
- 7 병자들의 구원 브레시디움
- 8 신자들의 도움 브레시디움
- 9 순교자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 10 천사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 11 루르드의 모후 브레시디움
- 12 착한 의견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1	4	7	10
2	5	8	11
3	6	9	12



✧ 본당 소개 ✧



- 13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
- 14 존경하옵 그릇 브레시디움
- 15 성실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
- 16 승리의 모후 브레시디움
- 17 은총의 모후 브레시디움
- 18 신비스런 장미 브레시디움

13	16
14	17
15	18

레지오 단원은 행동 단원과 협조 단원으로 구분하며, 행동 단원은 매주 2시간 이상의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고 1시간 30분의 회합을 갖는다. 협조 단원은 기도 부대로서 매일 뗏세라 기도문을 바칠 의무가 있다.

○ 꾸르실료

꾸르실료란 '복음화를 위한 단기 교육'이란 뜻으로,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3박 4일 동안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형제애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또 이런 꾸르실료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는 운동이 꾸르실료 운동이다.

본당에서는 한 바오로 주임신부 시절인 1983년 6월 한국에서 4명의 사제와 10명의 평신도 임원을 초청해서 꾸르실료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때 35명의 꾸르실리스타가 처음 탄생했다.

울드레야는 꾸르실료를 체험한 꾸르실리스타들의 모임이며,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자신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우정을 나눈다. “De colores!”

○ 나눔의 회

평신도들의 형제자매적 단체로서, 곤경에 처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받들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 나눔의회는 1995년 신정순 베네딕토 주임신부의 지도로 창립되었다. 자선 사업에 일생을 바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면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정신 아래서 활동하지만, 이민 교회의 특수성으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자 ‘나눔의 회’라고 이름 지었다.

나눔의회는 물질적 궁핍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영성적이든 물질적이든 또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회원들의 봉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고 있다. 또 이러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울드레야

- 총구역부

총구역부는 본당 신자들의 거주지를 행정적으로 나눈 각 ‘구역부’와 ‘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역 책임자는 구역장으로 구역 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살피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구역모임을 통해 신자들의 복음 나누기와 친목 활동을 주관한다.

본당 구역은 1975년 왕영수 초대 주임신부 시절에 7개 구역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25개 구역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총구역부 임원진은 총구역장과 총무, 5개 구역부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구역부

○ 1구역부

풀턴(Fulton) 구역, 페어랜드(Fairland) 구역, 로털(Laurel) 구역, 실버 스프링(Silver Spring) 구역, 콜스빌(Colesville) 구역

○ 2구역부

가나안 구역, 해미 구역, 엘리컷 타운(Ellicott Town) 구역, 그린벨트(Greenbelt) 구역, 파티마 구역

○ 3구역부

베데스다(Bethesda) 구역, 컨그레스셔널(Congressional) 구역, 노스 포토맥(North Potomac) 구역, 포토맥(Potomac) 구역, 포토맥 빌리지(Potomac Village) 구역, 록빌(Rockville) 구역

○ 4구역부

이스트 저먼타운(East Germantown) 구역, 웨스트 저먼타운(West Germantown) 구역, 이스트 게이더스버그(East Gaithersburg) 구역, 웨스트 게이더스버그(West Gaithersburg) 구역, 프레데릭(Frederick) 구역

○ 5구역부

레이힐(Layhill) 구역, 노벡(Norbeck) 구역, 위튼(Wheaton) 구역, 미리내·대건·배론 구역(노인 아파트)





1	4	7	11
2	5	8	12
3	6	9	13
		10	

- 1 풀턴(Fulton)
- 2 페어랜드(Fairland)
- 3 가나안
- 4 로렐(Laurel)
- 5 콜스빌(Colesville)
- 6 해미
- 7 노스 포도맥(North Potomac)
- 8 포도맥(Potomac)
- 9 엘리컷 타운(Ellicott Town)
- 10 그린벨트(Greenbelt)
- 11 파티마
- 12 베티스다(Bethesda)
- 13 컨그레스셔널(Congressional)

✧ 본당 소개 ✧





1	5	
2	6	9
3	7	10
4	8	11

- 1 레이힐(Layhill)
- 2 노백(Norbeck)
- 3 포토맥 빌리지(Potomac Village)
- 4 록빌(Rockville)
- 5 웨스트 저먼타운(West Germantown)
- 6 이스트 게이더스버그(East Gaithersburg)
- 7 웨스트 게이더스버그(West Gaithersburg)
- 8 프레데릭(Frederick)
- 9 미리내 · 대건 · 배론(노인 아파트)
- 10 미리내 · 대건 · 배론(노인 아파트)
- 11 위튼(Wheaton)

– 에이지 그룹(Age Group)

에이지 그룹은 본당 교우들의 연령별 모임으로, 영적 성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본당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주일 주차 관리와 송년 모임 등 여러 본당 행사를 주관하거나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총 10개 그룹이 활동 중이다.



성우회



안나회

○ 성우회

성우회는 1984년 3월 11일 55세 이상 교우들의 모임으로 발족하였으나 현재는 에이지 그룹 내에서 남성 교우들의 최고령 모임이다. 성우회 회원들은 후배 교우들의 모범이 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40주년을 넘어 부한히 이어지는 성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지혜로운 훈계자는 금 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잠언 25,12)

○ 안나회

안나회는 1979년 11월에 발족한 노년층 여성 교우들의 모임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의 말씀을 기도 지향으로 회원 간 친교를 도모하고 참신양인으로서 어머니의 모범적인 삶을 젊은이들에게 보여 주며, 본당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월 모임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 증진으로 공동체 봉사과 참여 의식을 높인다.

활동 사항으로 평일 미사 전례의 복사,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 차례상 차리기를 주관하며 봄가을 피징, 성극 관람, 초청 특강 등 영적 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생미사 및 연미사와 먼저 세상을 떠나 교우들을 위해 매월 연도를 하고 있으며, 장례 예절에 참여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를 한다.

특히 새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손수 김치를 만들어 팔며 희생적으로 봉사한 회원들인 ‘김치부대 할머니’는 본당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본당 공동체 발전 위

해 안나회 할머니 회원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다.

○ 요셉회

요셉회는 2011년 1월 1일 구성되어 2013년 10월 1일 정식으로 본당 에이지 그룹에 편입되었다.

2014년 1월 현재 27가구 51명의 회원이 있다. 요셉회는 에이지 그룹을 활성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부가 함께 활동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70세부터 '성우회'와 '안나회'에 들어가기 전의 본당 형제자매다.

요셉회는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본당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영적 향상과 친목을 도모한다. 또 본당 사목 지침에 따라 전교와 봉사, 성지 순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토마스회

토마스회는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의 교우들로 구성됐다. 현재 28쌍 부부, 56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들 간의 친교는 물론이고 주님과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매주 교중 미사 후에는 모든 교우들을 위한 '커피방'을 운영하고 있다.

○ 요아킴회 1반

요아킴회 1반은 63세부터 64세까지의 형제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요아킴회는 교회의 가르침과 본당 신부님의 사목 방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요셉회



토마스회



요아킴회 1반

○ **요아킴회 2반**

요아킴 2반은 본당 60세부터 62세 사이의 남녀 교우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회원들의 신앙심 증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현재 회원은 56명이다.



요아킴회 2반



바오로회

○ **바오로회**

바오로회는 55세부터 59세까지 교우들의 모임이다. 1980년대 중반 이십 대의 나이에 청년회에서 시작한 모임이 30여 년간 본당 역사와 함께 계속돼 왔다. 그동안 청년회를 비롯해 밀알회, 방지거회, 스테파노회,

대건회, 베드로회를 거쳤고 2014년부터 바오로회로 활동 중이다.

지난 30년은 신앙 안에서 우정을 다지고, 본당 일에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격려하며 지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며 성우회까지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 **베드로회**

1996년 12월 22일에 발족했으며, 50세부터 54세까지의 남녀 교우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교중 미사 후 모임을 갖는다. 분별과 사과의 나이 지천명, 박력이라면 다른 젊은 에이지 그룹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50대 전반, 우리 생애에 있어서 추수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의 회원들은 각종 본당 활동에서도 앞장서면서 ‘베드로회’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공동체의 반석이 되 고자 노력하고 있다.

베드로회 회원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지 나온 이야기, 이민 생활의 지혜도 나누면서 삶의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수렴하고자 노력한다.

○ **대건회**

대건회는 20여 가정으로 구성된 40대 중 심의 연령 그룹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다양한 공동체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진심 어린 도움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사랑의 모임이다.

○ **스테파노/ 피데스회**

스테파노회는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파 노 성인의 뜻을 이어받아 1993년 본당 내



베드로회



대건회

40세부터 45세까지 형제자매들이 모여 희생, 봉사, 사랑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매월 첫째 주 교중 미사 후 정기 모임과 윌레회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1994년부터 스테파노회가 시작한 경로잔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봄가을 피정을 통해 회원들의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야외 미사에서는 대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청년 연합회(St. Andrew Kim Young Adult Group)

본당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 연합회는 1980년 초, 칼리지파크 성전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청년 연합회의 목표와 활동은 '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년 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청년 미사가 거룩하게 봉헌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 사목과 선교를 목표로 정해 활동하고 있다.



피데스회

○ 한마음한소리 청년 성가대(One Heart One Voice YAG Choir)

청년 성가대 'One Heart One Voice'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로 이루어졌다. 매 주일 오후 5시 미사 성가를 봉헌하고 있으며, 매년 크고 작은 콘서트도 개최한다. 성가 연습은 주일 오후 3시에 시작한다. 또 청년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본당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노래나 악기 연주로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

The OHOV choir sings primarily at 5:00pm Mass, as well as providing music for the Easter Mass and the Christmas Mass. It is open to anyone, beginning with high school graduates. Mandatory practices are on Sundays at 3:00pm.

○ 청년 전례단

청년 전례단은 매 주일 오후 5시 청년 미사에서 사제의 미사 진행을 돕는 단체로서, 해설과 독서, 복사 등 15명의 단원이 있다. 미사 전례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청년 레지오(사도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

청년 레지오는 2006년 2월 “씨를 뿌려야 싹이 나지 않겠느냐?”는 레지오 마리아 선배의 권고에 따라 6명의 단원으로 출발했다. 레지오는 개인 성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목적이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원이 늘면서 2010년 4월 두 개의 브



청년 연합회



청년 성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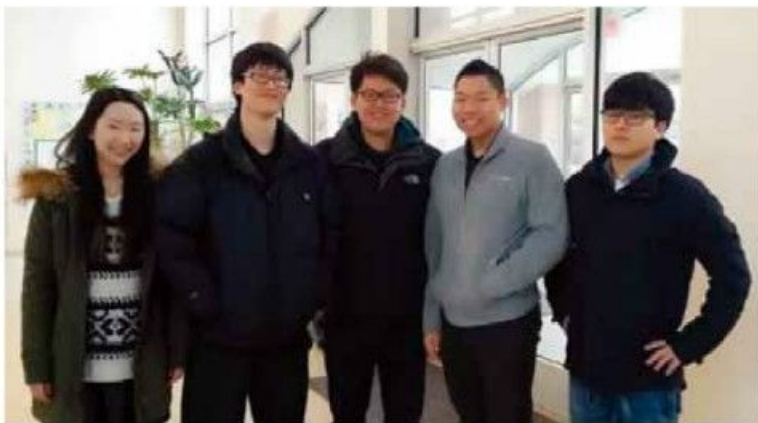


청년 전례단

✧ 본당 소개 ✧



청년 레지오



청년 밴드



청년 빈첸시오

레시디움으로 분가해, 2014년 1월 현재는 각 브레시디움에 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청년 밴드 'the Apostles'

'the Apostles'는 성당 청년 밴드다. 키보드와 기타 2, 베이스, 드럼 그리고 보컬로 이루어진 6인조 밴드로서, 미사 반주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피정이나 여름 캠프 등에서도 성가대와 함께 더욱 풍부한 음악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밴드의 목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밝은 미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며, 밴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청년 빈첸시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의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청년 봉사 단체다.

- 청소년 단체

본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청소년 단체들도 활동 중이다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교리 문답 교사(Catechist)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수업과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피정과 캠프, 교회 전례력에 따라 여러 행사와 활동 등도 준비한다.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1학년

✧ 본당 소개 ✧



주일학교 2학년



주일학교 4학년



주일학교 3학년



주일학교 5학년



주일학교 6학년



주일학교 7학년



주일학교 9학년



주일학교 8학년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청소년 성가대(Voice As One)

청소년 성가대는 매주 미사에서 함께 노래로써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 교회 방침에 맞게 노래함으로써 찬양으로 미사를 주도하고, 매년 여름 콘서트도 개최한다.

성가대는 단장과 부단장, 회계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연습과 미사를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 또 청소년 성가대 활동은 주님을



주일학교 10학년

위한 봉사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봉사 시간에 대한 기대를 해선 안 된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청소년 성가대



청소년 미사 하접자

○ 청소년 미사 해설자

청소년 미사 해설자는 미사 시작에 앞서 그 주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미사 순서에 따라 기도와 화답송 등을 이끌어 학생들이 미사 전례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주일학교 자모회

주일학교 자모회(PTA)의 목적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리 교육에 협조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PTA는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다. PTA는 주일학교 교육과 피정, 성경 학교와 캠프 등을 지원해 왔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일학교 자모회



한글학교 교사

- 한글학교

우리 본당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글학교는 1978년에 문을 열어 2014년 개교 36주년을 맞았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글학교 중 하나로서, 오랫동안 메릴랜드 지역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에 기여해 왔다.

본당 개교 당시 3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현재 성인반을 제외한 9개 학급 120여 명으로 발전했으며, 학생 유지율이 90%를

넘는 데서 알 수 있듯 한글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성 김 안드레아 한글학교는 워싱턴 지역에서 2세 한국어 교육의 명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21세기 2세 한민족 교육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한글학교의 이러한 발전은 본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우들의 후원, 역대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한민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크셨음에 감사한다.

1 9 7 4
2 0 1 4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신자들의 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거듭납시다!



박달규 비오(전 사목회장)

워싱턴 성당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님과 수호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찬미와 감사 그리고 영광을 드리며 이 기쁨을 본당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0이 가리키는 숫자에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이민 교회의 온갖 어려움과 성전 부지 구매, 성전 건축 등의 고통과 희생, 봉사를 뒤로하고 오늘의 교회로 성장 발전한 올해의 40주년은 당연히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40년이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거나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신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자주 영성체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또는 자신들의 가정 안에서 최선의 신앙생활과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유언이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키워 가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참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 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안고 그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신앙의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신자들의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물 한 모금을 청하는 저 목마른 이웃들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 선포자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든 권능을 위탁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의 나를 내려놓고, 가난하고 배고픈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혹은 메말라 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외롭고 소외된 형제의 벗이 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 봉사하고 나누며 섬김의 형제적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의 나를 발전시키고 어느새 베푼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받음을 깨닫게 되어 이웃을 밝히는 빛이 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 나를 키운 빛은 밖으로는 사제의 손발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고 본당 신부님의 사목이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커다란 평신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당이 이렇게 40주년의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은총을 받아 주님의 뜻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평신도는 주님의 열이 지배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위싱턴 한인 성당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끼며, 귀에 들리도록 해 주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몸으로나 말로써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왕국을 증명하고 확장하는 공동체로 성장 발전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하여



최규용 알베르토(전 사목회장)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인 마태오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두 각자 집안의 족보가 있으며, 소위 뿌리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지니는 것이니 과연 예수님의 족보 끝자락에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생긴 지 4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이 사십이면 미혹되지 아니한다(四十而不惑).”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또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대대손손 기억하며 기념하고 삶으로써 단결된 힘으로 세계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전 몇 명의 신자로 시작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고 이국땅 미국에서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를 세워 오늘에 이른 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넓고 쾌적한 성전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었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친교실로 갈 때 친교실 옆에 있는 작은 방에 ‘성우회’라고 쓰인 팻말을 보며 성우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주보에 ‘안나회’ 모임이 언제 어디서 있다고 공지가 나올 때 안나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교우들이 막연히 그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니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크게 틀린 관측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상의 관심은 별로 없지 않나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전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본 것입니다).

또 친교실로 가는 복도의 창문 옆에 걸려 있는 김치부대 할머니들의 사진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사진이 걸려 있나 생각해 보거나 알아보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사시사철 텃거나 훑거나 김치를 만들어 새 성전 건축을 위해 20만 달러에 이르는 봉헌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김치 한 병에 10달러였으니 무려 2만 병의 김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속으로 대답하셨다면 ‘뼈대 있는’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의 교우로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잔뼈가 굵어 생겨난 뿌리 깊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우들 중 상당수가 칼리지파크에서 새 성전으로 이사 온 후 입교했거나 이전해 온 분들로서 오래전부터 다녀온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섞여 있을 뿐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져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회색빛이 나는 바둑돌로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직접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는 교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나 나 자신부터 돌아켜 생각해 봅니다.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우는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는 교우들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우는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우들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바쁘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남녀노소, 직업, 사상, 건강 상태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관심은 그저 바라다보기만 하는 관심이 아니라 교육으로, 치유로, 축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첫 출발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불러 주는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하느님은 호렙 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의 이름을 어둠 속에서 불러 주셨으며, 성전 안에서 즈카르야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성당의 연로하신 분들의 이름을 알아보려 노력해 보고, 또 새로 온 교우, 새로 영세한 교우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이름을 불러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통 꽃밭이 되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오늘의 아름답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진다면 그 관심은 교회 사랑, 하느님 사랑으로 금방 꽃이 되어 활짝 필 것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는 따뜻한 공동체! 그것은 먼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와 나



이병기 도밍고

1974년 6월 한국에서 처음 와서 얻은 직장이 '워싱턴 호스피탈 센터(Washington Hospital Center)' 마취과 수련의. 6월 마지막 주일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걸어서 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당시 미사 장소는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걸어 다닐 수 있던 '가톨릭대학(Catholic University)' 안에 있는 '카푸친 칼리지(Capuchin College)'의 성당. 아는 사람이라고는 볼티모어에 수련의로 와 있던 친구 한 명뿐, 한국에서 홀로 떨어져 와서 뿌리를 내리겠다면서도 불안에 떨던 나를 포근히 안아 준 한인 성당. 성당 안 십자가 앞에서 첫날 드린 감격의 기도는 지금까지 지키려는 천주님과 나의 평생 약속이기도 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1974년 3월에 왕영수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내가 6월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워싱턴 일원 전체에서 시작한 한인 천주교회 초기 신도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어느 미사 후 공지 시간에 왕 신부님이 "우리 한인 공동체가 워싱턴 교구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음을 늦게나마 알려 드립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전 교우들이 감격해하던 일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성당의 한 역사인가 싶다.

첫 성가대의 조직 발표가 있었고, 이용현 형제가 지휘를 맡고 김지문 형제가 단장을 맡아 시작한 성가대에 나는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로 음치인 내가 감히 베이스 파트의 정식 일원이 되었던 일. 이덕효 신학생이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게 매달려 기도하던 전 신자들, 한참 후에는 드디어 이덕효 신부가 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제품을 받은 첫 한인 신부님이 되었고, 우리 성당에서 드리던 첫 미사 때 감격해하던 신자들의 모습. 이 공동체의 실제 구심점이 되면서도 뒤에서 조용히 인자로운 미소로 맞아 주며 항상 거기에 계시던 이원길 선생님. 초기 교회를 이끌어 감에 한국과 미국을 따로 잘 아시던 김상규, 김현태 공동 총회장님들의 헌신하시던 모습. 급기야는 카푸친 칼리지가 협소하여 가톨릭대학 내의 '오블레이트 칼리지(Oblate College)', 그 이후에는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성당을 빌려 미사를 드리던 일. 남의 성당을 빌려 쓰면서 아이들이 분별없이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일. 내가 4년 수련의를 마치고 미 공군에 입대해 외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온 고향. Holt(한) 신부님 때는 칼리지파크에 있는 폐쇄된 학교 건물을 인수하여 성당을 만들고, 성당 여기저기 비가 새는 곳에 그릇을 받쳐 놓고 미사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소유라고 마냥 즐겁기만 하던 일. 총회장을 하시던 장면 전 총리의 동생 장극 박사, 훗날 국무총리가 된 강영훈 총회장, 장기간 총무를 하며 정성을 다해 헌신하다가

나중에 총회장을 한 이덕선 형제, 박달규 형제 그리고 이인탁 형제, 윤지현, 홍성원, 엄지원, 이효준, 이제덕 종신부제님들의 수품 그리고 부제님들의 첫 미사.

한국에서 부제님으로 오셔서 다년간 수고하다 가신 김철호 신부님. 그다음에 오신 부제님은 한국에서 교구장님이 직접 우리 성당에 오셔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사제가 되신 주인배 신부님. 김수환 추기경님의 방문 미사.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생활 중에는 조용히 뒤에서 미사만 참석하고 가시던 일. 꾸르실료를 도입하시고 열기 넘치게 이끄시던 남규백 회장님. 시카고, 리치몬드, 뉴욕도 멀지 않다고 새 꾸르실리스타 형제자매님들의 탄생을 환영하러 다니시던 열성 선배 꾸르실리스타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신자 수가 많아지면서 버지니아에 공동체를 형성할 때까지 버지니아 형제자매님들이 낸 교무금을 따로 모아 독립할 수 있게 도와 드렸던 일. 백년대계라 하여 올니 현 성당 부지 50에이커를 마련할 때 땅 주인이 당시 130여 에이커를 따로 떼지 않고 한꺼번에 팔겠다고 하여 급조한 교우들의 주식회사. 성당 부지를 사는 것 따로 성당에 내고, 회사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 집이나 신용을 담보로 진 빚에 극도로 쪼들리면서도 우리 땅을 산다는 희망에 힘든 표현도 하지 않고 수고하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이를 총지휘하시던 회장단과 남규백 형제님. 한 푼의 돈이라도 모아 성당 건립에 쓰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김치 판매, 일일 장터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봉사하시던 안나희 할머니들, 그리고 성모회 자매님들의 모습은 지워져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들이다.

미사 때마다 술선수범해서 안내를 맡아 주시던 김일훈 형제님. 미사가 끝나면 현금 정리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던 윤기초 형제님.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셨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 안타까운 그 수많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초창기 교무금 정리 일을 하면서 경험한 형제자매님들의 각기 다른 이름들. 성파로 이름과 세례명 따로 주고 가셔서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한 부부의 이름이 여섯, 일곱 가지로 들어와서 고생하던 일은 즐거운 고민이었다.

내 몸이 어디에 가 있든, 떨 수 없는 마음속 제2의 고향은 우리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로 언제나 내게 남아 있다.

주님의 큰 뜻



백용기 아오스딩

나는 부모님 두 분 모두 가톨릭 신자인 집안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 주일 미사에 참석했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신부님을 제대 위에서 도와 드리는 복사들 복장이 멋있어서 복사 시험(라틴어로 전 미사 전례 경문을 외우는 어려운 과정)을 봐서 수년간 복사 생활을 하였다. 중·고등학교를 서울로 통학하면서 대학 입시 공부하기 어렵다고 어머니가 수소문해서,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분 소개로 복아현동 감리교 재단 기숙사로 고3 때 입사시켰다. 그때까지는 천주교 외 다른 종교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또 주위에서 다른 종교는 사이비라고 하여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일이면 반드시 기숙사 강당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다. 처음에는 아주 고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교를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나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심이 불타오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한 적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편한 미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개업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심한 위장병, 군대에서 디스크 수술한 것이 재발하여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떤 신부님의 강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불타는 신앙심은 마치 빨래 통에서 빨래를 바짝 쥐어짜듯, 건강이나 재정, 직장 문제 등으로 극한 상황에 접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의도에서 생겨날 수 있다.” 나도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신앙으로 치유받으려고 각종 피정에 참가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치유의 기적은커녕,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던 어느 토요일 아침, 환자가 약속을 취소해 날씨도 좋고 하여 밖으로 산보를 나갔다.

그날 아침, 사무실 옆 주차장에 야시장이 들어섰다. 이리저리 물건을 살펴보니 한 퇴색된 카세트 제목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제목은 <How to Feel Great 24 Hours a Day>였다. 그 당시 나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단 한 시간도 몸 컨디션이 좋은 적이 없었다. 그날 퇴근하면서 이 테이프를 듣고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치과 개업하느라 운동을 등한시한 것이었다. 이 테이프의 강사인 시한 박사에 의하면, 하루 30분 이상

씩 일주일에 4~5회, 3개월 이상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300%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한 박사는 심장 전문의로 미국 마라톤계 대부라 할 정도로 러닝에 대한 많은 기사를 쓰고 책을 저술한 분이였다. 그 당시 워낙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비가 올 때는 음악을 틀어 놓고 혼자 집 안에서 에어로빅댄스를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몇 달이 지나면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병들이 눈 녹듯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지금도 봄가을로 풀 마라톤(42.195km)을 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전 친분이 있는 신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경험담을 말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많은 피경에도 참여하고 통성 기도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자 해 주셨던 그 신부님의 답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그 당시 주님께서서는 기적을 일으켜 형제님의 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형제님을 그 벼룩시장으로 인도해 시한 박사의 테이프를 듣게 하여 운동을 통해 병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알팍한지 스스로를 질책하였다. 나는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 오로지 시한 박사의 테이프 덕분이라고만 생각 했지, 20여 년 전 여름 어느 날 아침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는 전혀 고맙다는 기도 한마디 못 드린 것이었다.

성경 말씀대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께 달려 있다’. 사실 그 당시 피경에서 기적이 일어나 내 병이 단번에 완치되었다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환자들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간의 머리로는 감지하기 힘든 주님의 큰 뜻에 감탄하며, 나에게 영육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천국의 문턱을 다녀오며



노학수 바오로

1989년 9월 어느 날 직장 일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밖에는 비가 왔는지 길은 여러 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아직도 젖어 있었다.

그날 나는 직장 주차장을 막 빠져나오면서 우회전을 했다. 길은 조금 가다가 45도 정도로 왼쪽으로 굽어지면서 곧바로 철길을 횡단해야 한다. 그 굽어지는 지점까지 간 것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 굽어진 지점을 지나는 순간 내가 운전하던 닛치 밴의 운전대를 놓치고 말았다. 옴푼 파인 길인데 비 때문에 물이 고인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앞바퀴가 충격을 받는 동시에 손을 놓았는지 차가 미끄러지며 앞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치면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딪치는 바람에 차는 대파되고, 전봇대는 두 동강으로 부러지고 주위의 전기가 모두 끊어졌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주변은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햇빛보다 강하고 밝은 빛이 비치는데 눈은 부시지 않고, 나는 그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언제 지나왔는지 커다란 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를 걷다 보니 길가 왼쪽에 대형 트럭 뒷문 같은 문이 열려 있고, 그 문간에서 몇 년 전에 철길 횡단 지점(내가 사고 난 지점)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직장 동료와 몇 달 전 위암으로 사망한 사촌 형이 하얀 병원 환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서 오라며, 그 문으로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시골 주막집 같은 것이 있고, 주막집 문 앞에는 계산대 같은 곳에서 옛 로마인들이 입는 흰색 제의 비슷한 옷차림에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장부를 펴 보이면서 등록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왼쪽 옆을 보니 길 가운데로 아내(노 율리아)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꽃무늬의 밝은색 옷을 입고 목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가고 있었다. 나는 율리아에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불러 보았지만 율리아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체 계속 가고 있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런 나를 보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는 빨리 등록하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나는 기다리라고 하며 율리아에게 낯선 길을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알았으니 등록부터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하면서 올리아를 자꾸만 불리도, 올리아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주 기도만 하면서 가고 있었다.

나는 손에 펜을 들고 장부에 내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낯선 길을 혼자 가면 길을 잃을 것이니 저 사람부터 데려오고 난 후에 쓰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할아버지는 정 그러면 가라고 손짓하며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찬란한 빛이 비치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미식 축구장보다 조금 넓었는데 아주 고운 잔디로 덮여 있었고, 오른쪽은 3층으로 된 잔디밭이었다. 그 위에 빨간 벽돌로 된 긴 3층 건물의 창문에는 전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아! 천국에 오니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하며 한참을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고 있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 나는 다시 좁은 굴속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굴속은 아주 밝은 형광등 같은 빛이 양옆에서 비추고 있었고, 실로폰 음악 소리가 들리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부른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니 앞에 집사람이 묵주를 손에 들고 나를 보고 있었는데, 옷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보았던 그 옷이었다. 다시 주위를 살피니 이상한 기구들이 있었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정신 차리라고 자꾸 말을 시킨다. 희미하게나마 주위를 다시 확인하니 나는 엑스레이 검사실 안에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의사 앞에 앉자 있었다. 알고 보니 8시간 정도 혼수상태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뇌 촬영을 해서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던 때 내가 깨어났다고 한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나를 퇴원시켰다. 우리는 사고 자동차를 확인하러 갔다. 경찰이 알려 준 폐차장에서 차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살아 나왔는지? 운전대 앞은 잔봇대를 끼웠다 빼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고 운전대는 꺾어서 앞 유리에 닿아 있었다. 가운데 문은 삼각형 모양으로 굽어 있었다. 꼭 삼중 충돌이 난 것처럼 보였다.

경찰 말에 의하면 누군가 운전대를 앞으로 꺾어 준 것 같다고 한다. 만약에 운전대가 꺾이지 않았다면 나는 가슴이 파열되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했다. 그래도 나는 다친 곳 없이 정신만 잃었던 것이다. 올리아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며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을까? 나는 올리아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다.

나는 이 사고로 수호천사님과 성모님이 나를 지켜 주시며,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항상 예수님께 청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올리아의 정성 어린 기도로 다시 소생한 것을 알았다. 항상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올리아에게 감사하며 주님의 은총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사고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나는 다른 이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봉헌된 삶, 봉사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회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내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주님께서는 못난 이 몸을 통하여서도 찬미와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드린다.

하느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아멘!

순교자 성 김대건 후손답게



정 테레사(Andrew Kim House)

우선 워싱턴 한인 성당 설립 40주년을 맞게 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그동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성당 신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역대 신부님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뜻있는 교우 여러분과 제 단체장들, 특히 아무런 사심 없이 노구를 이끌고 수년간 전심전력한 김치부대 할머니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람 나이 40이면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불혹의 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혈기가 넘치는 청년기를 지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장년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장년기는 사람으로서 한세상 사람답게,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까지, 젊어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자기 것으로 지녀야 할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가다듬어, 그것들을 자기 삶의 탄탄한 터전으로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년기가 보다 더 나은 새 삶을 과감히 시작하는 의젓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청년기에 거두어들이 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장년기에 접어든 단체의 구성원답게 매사에 이기심을 버리고 적극적이면서도 원만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듯이 장년기 단체에서 소년기 또는 청년기를 면치 못한 졸렬한 사람들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그 공동체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됩니다.

공동체 리더에 대한 반발 의식과 행위, 상식을 벗어난 멤버 간의 의견 충돌 모습, 수치스럽게 사분오열된 분파, 그 분파들의 일탈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청년기의 경험만으로 족한 것들이며, 청년기로 필히 끝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젊어서 한때 겪어야만 하는 시기적 산물, 즉 청년기를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기 과정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장년기에 와서도 음으로 양으로 계속된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미숙한 몇몇 멤버들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빈민과 절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미치는 교육적 손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장년기에 접어든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공동체의 전 멤버가 지도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그 단체의 설립 목적만을 향해 아름답게 전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톨릭이 2000년 동안 하나로 이어져 온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명,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사목자인 사제들에게 절대 순명하고, 사제들은 주교에게, 주교들은 교황님께 절대 순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당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당이 왜 있으며, 각 본당에는 왜 사제들이 부임하며,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오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교우가 계신가요? 만일 계신다면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본당 교우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자기 성찰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장년기에 접어든 우리 성당 공동체의 신자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당 내 소그룹에 임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내가 살고 있는 구역모임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가까운 내 이웃에게 가톨릭 신자다운 면모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후대 젊은이들에게 연장자로서의 바람직한 언행을 보여 주고 있는지, 우리 성당 수호성인이신 순교자 김대건 성인의 후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현재이십니다. 항상 현재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만족하시며 나의 잘못된 과거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만일 미루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항상 현재이신 하느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그것을 실천합시다. 사후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물으신답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에게 그분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삶, 그 자체 모두를 기도로 그분께 봉헌하는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현대의 우리에게 종교 때문에 목숨 바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순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손님 신부님의 강론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쓴 교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정성껏 지어 놓은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직자들을 위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성화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성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성모님께서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맹세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와 더불어 꼭 해야 할 것은 ‘희생’과 ‘극기’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교우들 입에서 희생과 극기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희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극기인지조차 모르는 신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와 함께하는 희생과 극기의 삶,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교인데 말입니다. 희생과 극기 없는 신앙인의 삶을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팥 없는 찜빵’이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잠시 참을 때, 본능적으로 쏘아 주고 싶은 말을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내뱉지 않을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공동체 평화를 위해 먼저 인사를 하는 순간, 공동체 화목을 위해 나쁜 말을 전하지 않을 때, 상한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절제하거나 하고 싶은 쇼핑을 참고 그 돈을 선교 사업 쪽으로 돌릴 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분을 생각하고 내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느님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겨내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희생과 극기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같은 삶을 더없이 흐뭇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당 수호성인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스무 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떠나, 낯설고 물선 외국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그리웠던 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 교회만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분의 삶은 희생과 극기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본당 주보이신 순교자 김대건 성인의 후손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기도드립니다.

- 주님, 우리 성당 교우 모두가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는 장년기 성인답게 사목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에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하느님 사업에 일사불란하게 하소서.
- 주님, 가톨릭 신자인 우리 모두가 사목자인 사제들에게 왜 순명해야만 하는지를 깨달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제들에게 순명함으로써 우리 본당이 한인 사회에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
- 주님, 우리 교우 모두가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삼감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신자상을 보여 우리 성당이 날로 발전하게 하소서.
-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무디게 하시고, 자신의 단점을 살피는 데는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 주님, 우리가 남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내 잘못을 쉽게 깨달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에게 순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에 찬 이기심과 고집을 버리고 공동체 의견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 주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교만과 자만심, 이기심과 사랑 없음으로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이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 주님, 과학 문명 속에 빠져 인간미를 상실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당신을 증거하고자 목숨 바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을 본받아 현대적 순교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 주님, 우리 성당 모든 교우가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수호성인의 후손답게 기도와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살아 완덕의 길을 걷게 해 주소서. 아멘.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건대, 때맞춰 받을 갈고 거름을 주며 터위에 그 고생도 아랑곳 않고 가꿉니다. 거둘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되면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즐기며 기뻐합니다. 거둘 때 빈 껍질만 있다면 주인은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을 박대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시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신 피로 우리에게 물 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좋은 결실을 보았으면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했으면 주님의 의로운 자녀라 하더라도 영원히 마땅한 밭을 받을 것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옥중 편지》 중에서

사도 바오로 여정을 따라서



유정희 아네스

한 번의 여행이 끝나면 나는 늘 어디론가 다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사도 바오로 여정은 이전의 성모 성지 순례 후 첫 성지 순례였기에, 오랜 시간 기도와 함께 많은 준비와 마음의 각오가 필요했다.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긴장과 설렘을 안고 떠난 이번 여정의 첫 도시는 터키 이스탄불이었다. 그곳은 그동안 내가 동경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우울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었고, 케이블카에서 내려 사과차 한잔을 마시며 내려다본 이스탄불은 터키 총인구의 15%를 차지한다는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리는 본격적인 바오로의 여정을 떠나기 전, 그래도 오스만 제국의 상징으로서 많은 볼거리가 있는 '돌마바흐체 궁전', 성 이레네 성당이 있는 '톱카프 궁전', 200개가 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스테인드글라스와 타일이 환상적인 '블루 모스크', 그리고 그리스 정교의 본산으로 360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가 여러 번 재건되어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이야 소피아'(성스러운 지혜'라는 뜻) 대성당 등을 먼저 둘러보았다.

터키 국내 항공편으로 사도 바오로의 고향인 '타르수스'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바오로 여정은 시작되었다. 바오로 생가에 있는 '바오로 우물'은 실제로 그 시대에 있던 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도 똑같이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다니엘 예언자의 무덤'이었는데, 다니엘 예언자는 발굴 당시 금빛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에서 오신 수녀님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웠다. 다음에 도착한 '카파도키아'는 터키 현지인들이 터키 여행의 백미라고 말할 정도로 유적과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하지만 약천후로 인해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광대한 카파도키아의 모습을 조망할 기회를 놓쳐서 아쉬움이 컸다. 추운 새벽 열기구를 기다리며 먹었던 따끈한 컵라면이 그나마 위안이었다고나 할까…….

다음으로 우리는 지하 도시 '데린쿠유'라는 동굴로 들어가 보았다. 이곳은 좁은 통로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며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다 갖추어져 있었고, 현대인들도 생각지 못한 과학까지 접목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석굴 교회가 많은 '괴레메 계곡'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 기이한 풍광이었지만, 이상한 모양새로 솟아 있는 바위들의 형상이 박해받던 옛 선조들의 아픔으로 느껴졌

고, 나의 신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돛에 그려진 가브리엘 천사가 들고 있던 지구 모양이 사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사과 교회', 말을 타고 뱀을 퇴치하는 성 제오르지오와 성 테오도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뱀의 교회'라 불리는 두 석굴 교회를 거쳐, 바오로 사도가 1차와 3차에 걸쳐 전도하면서 숭한 핍박을 받았던 성경 상의 도시 '이코니온', 그리고 또 다른 선교지인 '리스트라'와 '팜필리아'로 향했다. 너무나 추웠던 이곳 동굴 교회에서 우리는 신부님과 미사를 드렸는데, 제대 앞에 누군가 채워 둔 마른 들꽃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하드리아누스 왕의 문(로마 황제 기념문)'을 구경하고 나서 우리는 온천 휴양 도시 '히에라폴리스('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에 있는 '파묵칼레'로 향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여러 겹의 석회봉이 장관이었던 이곳에서, 우리는 석회봉 위로 흐르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여기저기 뒤통뒤통 걸어 다니면서 또 하나의 즐거운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에페소'였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이곳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멸망한 도시의 슬픔보다는 여전히 화려함이 더 느껴지는 곳이었다. 4세기,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선포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지가 된 '에페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수난 후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곳에 6세기경 지어진 '성 요한 교회(현재는 성벽만 남아 있음)',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교회 뒷부분 포석만이 남아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 조그마한 석조 교회가 너무나 예뻐서 '성모 마리아의 집(메리 에마니)' 등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집' 근처에 각자 소원을 적어 묶어 둔 후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나야 했지만, 사도 바오로가 전도를 위해 걸었던 이곳 어딘가에 나의 발자취가 남게 된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신들도 가세하여 10년간 전쟁을 벌였다는 전설의 무대 '트로이'를 거쳐, 우리는 페리를 타고 다넬스 해협을 건너 그리스 국경 '압살라'에 도착했고, 다시 '암피폴리스', '네아폴리스', '아폴로니아'를 거쳐 '필리피'에 도착하게 되었다.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이 도시는 사도 바오로가 2차 전도 여행 시 꿈의 계시로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로 온 후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사도 바오로는 첫 세례자인 '리디아' 부인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필리피 서간'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리디아 기념 정교성당'을 방문하고 세례 터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바오로 사도가 갇혀 있던 감옥, 공회당 터, 야외극장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 뒤 도착한 곳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카'였다. 네아폴리스 남서쪽, 옛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이곳은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 3주간 머무르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운 곳으로, '디미트리오스 기념 성당(그리스 정교회의 가장 큰 성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메테오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답게 그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낸 위대하고 경이롭고 참으로 거룩한 작품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으로 세워진 수도원인 '메가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다소 상업적인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안개가 자욱한 아침, 절벽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수도원들, 수직으로 솟아 있는 바위기둥들……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 왕이 창건했다는 '코린토스(코린토)'는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된 후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고 한다. 이곳 코린토스에서는 '오데온(음악당)', '옥타비아 신전' (기둥만 남아 있음), '아크로 코린토스' (높은 곳에 있는 코린토스라는 뜻), 바오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재판받던 '비마 터', '코린토스 고고학 박물관', '코린토스 운하' 등의 유적을 볼 수 있었다. 바오로 여정의 거의 끝자락, 피곤함으로 인해 힘들어질 즈음,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이제 조금은 초라한 모습의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과 다른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논쟁을 했던 곳으로 매년 6월 29일 사도 바오로 기념 행사가 열리는 '아레오파고스 언덕' (대법원을 뜻함)을 볼 수 있었다.

사도 바오로 여정의 뜻깊은 기행문을 마무리하며, 함께해 주신 신부님,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이 여정을 통해 내 영혼과 육신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길이 아닌, 멀고 깊고 좁은 길을 터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큰 디딤돌이 되었기를 기도해 본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만이라도 곱고 화려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또한 다짐해 본다.

2013년 10월 사도 바오로 여정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황혼의 길목에서



김경희 테레사

이민 한참 전의 이야기다. 배불뚝이가 된 몸으로 천방지축 어린 아들 녀석까지 데리고 교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리를 제대로 받기는 받았나 싶을 정도였고, 영세 후에도 느긋하게 냉담을 했다. 그런데 구역에서 나를 두고 젊은 애기 엄마가 구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잘되게 해 주신다면야 성당 일은 얼마든지 하겠다며 덤벼들었다. 성경 어느 구절처럼, 겁 없이 하느님과 흥정도 마다 않던 참으로 철없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과 흥정하면서도, 하느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 덕분에 아이들을 영세시켰고,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정착시키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성당이 내 공간의 일부가 되어 가는 그런 부르심을 애써 밀어내고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어느덧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 부는 대로 또르르 구르는 모습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황혼의 길목에서 있다. 참되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 삶이란 뭔가 하는 뒤늦은 상념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멧쩍게 발목을 잡히고 만다.

나의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귀가 시간이나 약속을 어길 때면 어김없이 시퍼런 생나무 가지 회초리로 엄중히 가르쳤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결국 공산당이 막무가내로 몰아치던 어느 시기에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 떠나보내는 아픔을 참으셨는데, 결국은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 할머니도 너무나 엄한 가풍에 짓눌려 안타까움이 북받쳐도 아들을 감싼다는 건 어렵도 없었고, 이른 새벽 정화수 한 그릇에 당신 가슴에 안고 있던 원을 담는 것으로 다소곳이 순응하며 사셨다. 이런 조부모의 삶을 떠올리며 다시금 삶의 회한에 젖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흐트러짐 없이 사셨다는 조부모님, 아버지의 가족력이 자랑스러웠고 그런 가족에게서 태어난 것에 감사했으며, 또 그렇게 살고자 했던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남은 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가는 건지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읽어 오던 성경을 통해, 행복한 삶의 길을 말씀 안에 안착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터득하게 된다.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며, 시소 놀이처럼 기쁨과 절망 사이를 오르내리는 인생살이지만, 어차피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여정이며, 가장 풍족한 삶의 길이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감사하고, 고통과 기쁨이 와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며 다스려야 하는 운명임을 깨닫게 된다.

성경 안에는 나의 삶이 숨 쉬고 있고, 희비를 다독이며 삶의 길을 터 주기 때문이다. 말씀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상심하고, 해코지당하는 게 두려워서 한눈파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 안에서 떳떳하게 성장해 가는 희망을 키워 준다.

남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노라고, 주님 뜻을 새로이 하며 무거운 것 버리고 가벼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느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주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며, 하느님 당신을 향한 그리움에 겁 없던 도도함도 한풀 꺾인다.

하느님은 어쩌다 거액의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평 쓰며 영예도 얻을 그런 되지도 않는 허깨비 꿈도 꾸게 하시지만, 돌이켜 보면 강원도 시골뜨기인 나를 지금 최대 문명국인 미국 이 자리에까지 서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갖은 영예를 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삶이던가.

생판 모르는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는 신비로움, 오늘도 성당에서 고부라진 두 손 모아 기도했다는 두 살배기 손녀, 탄생이나 죽음의 교차로를 거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하느님 당신 섭리 안에서 다소곳이 행복을 꾸려 가게 하신다.

기복이 심한 고르지 못한 굴곡인 삶이 일상이더라도,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벗 삼아 흔들림 없는 삶이기를……. 그리고 가족과 형제, 친지, 이웃, 조국, 이민의 이 곳 미국, 전쟁터, 아니 하느님이 복되게 만드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은총의 삶을 깨달으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

33일 봉헌의 은혜와 감사

이은정 리아

저는 이번이 '33일 봉헌' 다섯 번째입니다. 매년 33일 봉헌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꼭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고, 봉헌이 끝날 때쯤엔 일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33일 봉헌으로 인해 저는 매년 신앙생활이 성숙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맨 처음 33일 봉헌을 시작했을 때, 저는 남편과의 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만한 남편 없다. 너는 정말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그저 부정적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랬는지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도, 그의 향기도, 살이 닿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수술을 여러 번 한 이유도 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남편 탓을 했습니다. 봉헌을 하는 동안 남편이 몇 번 옆에 와서 같이 묵주기도를 하려고 하면 “나 건드리지 말고 나가!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할거야.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에는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혼자서 너무나도 울었습니다. 큰 덩치의 남편이 십자가가 되어 저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3일 봉헌이 끝날 때쯤엔 정말 기적같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필름이 뒤로 되감기면서 제가 남편과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보니, 저는 너무나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바꾸기보다는 남편을 제 스타일로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16년이란 세월 동안 남편이 안 바뀌니까 거기에 너무나 속상해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 33일 봉헌을 통해서 저는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인정해야 하며, 또 그를 고치려 하지 말고 대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이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걸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굳이 십자가를 이고 갈 필요가 없고 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3일 봉헌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수술을 막 했을 때라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몸이 좀 성한 상태였다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33일 봉헌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그 친구와 편안히 마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배반을 당했다기보다는 그 또한 친구의 성격이려니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고 상황도 이해가 갔습니다.

야고보 서간에는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1,2-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째 33일 봉헌을 통해서 시련의 아픔을 인내로 견디어 냈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그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심정으로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섭지 않고 다 견뎌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33일 봉헌은 온 가족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큰아들 주완이의 골반과 다리 수술 날짜를 막 잡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많이 해 봐서 아들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약간 기형적인 다리로 태어났고, 끝내 다 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 골반 뼈를 잘라서 붙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 무릎과 발목이 돌아가서 그 역시 바로잡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흔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수술 이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왼쪽 다리 수술을 해야 해서, 1년 이상 회복 기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회복이 다 된 상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수술을 성공리에 잘 마쳤고, 우리 주완이도 대견스럽고 감사하게도 불평불만 없이 잘 견디어 주고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완이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 두 아들의 형제애를 더욱 절실히 느꼈고,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공부로 억압했던 일들을 반성했습니다. 착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 주는 것만으로 참 많이 주님께 감사했고, 형과 아우의 우애가 저리도 깊을까 하는 맘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도 모두 예쁘게 보이고,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많이 대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 두 아들이 변치 않는 형제애를 이어 가게 해 주십사 하는 것과 항상 건강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 주어 언젠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섯 번째 33일 봉헌을 시작할 때쯤 이상하게도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은 남모르게 많이도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생각 없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봉헌을 시작할 때 남편에게 이 봉헌이 끝날 때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어떤 결정이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봉헌 마지막 날 해답을 찾은 듯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리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원하던 회사에서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6,31-34)

제게 스스로 말을 걸어 봅니다. 무엇이 그리 걱정인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번 33일 봉헌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주님의 현존하심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매번 같은 33일 봉헌 책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도 전에 못 느꼈던 많은 것을 또다시 배웠습니다. 항상 악마는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그 유혹에 나는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열심히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의 죄는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탐식), 시기(질투), 나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어려운 이에게 베풀며, 인내하고, 온유하게, 욕심내지 않고, 용서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잊지 마시고 33일 봉헌을 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9일

가을날

이택제 데레사

주여 오늘은
이대로그 좋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황금으로 입었습니다
이제 막 채비가 놓여
떠날 시간입니다

물 길어 올린 아스라한 끝
나직이 말씀으로 오니
내일 위한 고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은 마른 화판이 되고
노란 물결이 되어
아낌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수북이 축복이 쌓이는 길목
되살아오는 당신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여 오늘은
이대로그 좋습니다



마흔 즈음에

본당 교우

“가슴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슬기운이 감도는 내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입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몰랐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정든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잘 살라’고, ‘잘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친구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헤어져 이곳 멀리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설고 물선 이곳에서 좌충우돌 부딪치며 쉽게만 생각했던 이민 생활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깨우치며 때론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생소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 손잡고 걸어서 10분이면 가던 상당도 차를 몰아 약 40분 정도 걸리는 칼리지파크로 다니던 일. 김치 같은 꼭 필요한 음식을 사기 위해 또 30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그와 비슷한 거리를 달려야 하는 이곳, 미국이 처음엔 참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민 오신 어르신과 주위 분들을 보면 정말 초창기에 고생을 안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당신 한 몸 희생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신과 또 그것이 가능한 이곳 이민의 나라가 고맙다고 하시던 환갑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선배님부터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항상 웃음으로,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며 같은 말단 시급 종업원이지만 그래도 주인 의식이 똘치 배우게 해 줬던 선배님도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은 정말 게으름을 피우면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임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때로 신앙은 제게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속 바리사이처럼 형식만 중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그저 휴식만 그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역모임에 나가면서 알게 된 야고보 형제님은 언제나 제게 “돈 걱정(?)은 하지 마. 그럼 행복해져(Don't worry, Be happy!).”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세르지오 형제님 내외는 저희 내외를 동생네 가족처럼 대하시며 항상 웃음으로 “형제님은 금세 자리 잡을 거야. 우리와는 세대가 다르잖아!” 하시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격려와 등 두드려 줌 속에서 제 인생의 서른 즈음이 흘러갔습니다.

이민 생활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신앙생활이었으며, 또한 제 신앙의 근본에서 우리 성당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돌아켜 볼 때, 미천하기만 한 제 믿음의 기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이제 선, 예수가 되신 성당의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였을 때 더욱 값진 것처럼, 건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교우님들은 우리 성당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은 델라웨어에서 먼 길을 달려서 이곳 성당에 오신다는 교우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미국 성당이 있지만 그래도 한인 성당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을 찾아서 먼 거리지만 찾는 것이겠지요. 그 교우님과 저를 비교할 때 제가 얼마나 우리 성당의 존재에 대하여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가 이곳 메릴랜드 주에 터를 잡고 한인 교우들의 신앙생활 터전을 마련한 지 스무 번째, 서른 번째 해를 넘기고, 이제는 마흔 번째를 맞이하여 사람으로 친다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 합니다.

우리 한인 교인들의 신앙의 터전인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가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도 항상 주님을 모시기에 건강한 신앙인, 주님을 열심히 모시는 한인 교우들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아울러 저 또한 한인 교우로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였어

김 아가다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간혹 뒤늦게 뭔가를 알아내고 혼자 중얼거린다. 모르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데,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사는 데 도움이 되기에 될 굳이 알려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은 이기적인 무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머리 복잡하게 될 알려고 해. 그냥 넘어가자.

어느 하루 어지간한 것들은 머리 위로 흘러면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 한 자매가 말한다. 성당 체육 대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잔디밭에 있는 거위 선생들 변을 손으로 주워서 치웠다고. 진짜? 그런 거였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알았겠다. 알려고나 했으려나. 그저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겠지. 그리고 뭐 내가 꼭 알아야 하나? 그렇지만 내가 기분 좋게 미사 드리고 재미있게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밟고 다니던 풀밭조차 누군가의 손길 이 지나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역시 내가 참 맘 편하게 사는구나 싶었다.

순간 작은 불빛이 머릿속을 스치며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성당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니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성당, 그리고 우리 공동체. 40년 전 이 공동체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던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 이민자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시절, 함께 모여서 미사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공간을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 열망이 모여 시작된 이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신 그분들에게는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걸까?

그 40년간의 갈망과 풀밭 위에 놓인 거위 톱을 주워 신자들이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손길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당이 서 있는 것이었구나. 주일에 잠시 와서 미사 드리면 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커다란 성당 건물일 뿐일 수도 있는 우리 성당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아직도 내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숨어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 거였다. 단지 내가 못 보고 있었을 뿐 우리 공동체와 본당은 공동체를 위한 많은 신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숨 쉬며 살아 있는 거였다. 아직도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이기적 무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못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와 본당의 작은 것들 까지에도 그 누군가의 마음과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에 감사하게 되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윤주숙 마르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부 박영식, 모 문화 유씨 사이에서 5남 5녀 중 아홉째로 1936년에 태어났지요. 남동생은 일곱 살, 제가 열한 살일 때 국민학교에 입학했으며 왜정 시대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일본 공부를 하다가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복도로 뛰어다니시면 전체 학생들이 다 뒷동산으로 뛰어가서 소나무 밑에 숨었다가,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교실로 내려와서 공부를 합니다. 끝나면 이십 리가 넘는 산굽이 길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양말을 한 보따리 풀어 놓고 께매십니다. 아버지는 이야기책을 읽어 드리다가 어머니가 누워야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가 일본 군대에 간다고 '셋림밭이'라고 하얏고 긴 천에 새발뜨기로 100집을 다니며 수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오빠의 어깨에 걸어 행운을 빌며 보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군에 간 오빠가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어머니는 이미 좋지 않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졌고, 때마침 동네에 열병이 돌아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열한 살, 동생은 일곱 살이었습니다. 열병으로 돌아가셔서 장사도 쉬쉬하며 선산에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지요. 동생은 어머니를 기다린다고 대문에 턱을 기대고 앉아 있기가 일쑤였고, 그런 동생을 저는 달래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불쌍하고 어머니가 그리워 굴뚝 뒤로 가서 한참 울곤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가 예배당에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고 하셨지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며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어머니의 사랑은 끝났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 중에 어머니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뒷동산 집 가까이 내려오시어 저를 보았고, 저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꿈이었지요.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지요. 학교는 휴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에 갔다 오는 길에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곳으로 가 보니 동생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라 병원까지 먼 길을 혼자 업고 죽을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속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무사히 병원에 당도하게 해 달라고, 무사히 병원에 그 동생을 맡기고 돌아오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힘이 나왔지 싶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로 신앙생활의 맛을 들였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리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천주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이며, '교회 마당에 그 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님께서 이르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신가!' 이런 의구심은 결국 천주교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중매 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포 사람인 그는 그곳 성당 총회장 둘째 아드님이고 파평 윤씨라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소와 이름을 써 보라 하니 글력이 괜찮더라. 너 고생시키지 않겠더라."고 하시며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혼배를 준비하면서 바빠졌습니다. 사순 시기에는 혼배를 할 수 없다는 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달 공부해서 영세를 받고 혼배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천주교로 개종하길 원하는 저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지요. 남편도 직장 없이 수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병환이 나셨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이라 뭘 준비해 가지도 못했고 오랜 기간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모내기가 급하여 사흘 만에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붙잡으십니다. 하지만 일이 급했던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그 길로 시댁으로 왔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친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하느님 품에 보내 드리고, 저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도를 바쳐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베드로를 낳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공무원이 되어 저희는 연천에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네 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침 김포 시택에 가야 할 일이 생겨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잠깐 사이에 베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장실에 가서 방송을 부탁하고 오는데 막막했습니다. 목주를 꺼내 들고 무조건 성모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애달프게 지나갔습니다. 저쪽에서 역무원이 한 아이를 데려오는데 베드로 같았습니다. 달려가니 베드로가 맞았습니다. 하느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하느님께서 아들 바오로도 주셨고, 저는 인천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구역 반장, 제병회 활동도 하고 ME도 1983년에 받았지요. 1985년에는 꾸르실료 교육을 받고, 1978년 정진석 주교님으로부터 시노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성하게 주님 사업을 위해 노력하던 때였지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대부도에 땅을 사서 개간하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남편은 선천적으로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때마침 남편과 적잖은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죽어 버리겠다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는 엄포를 퍼붓습니다. 남편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나를 떠날 거냐?”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기분대로 미운 마음에 남편을 잡지 않고 나가도록 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하나 남편에게 많은 말을 하여 간신히 안정을 찾게 하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런 전조가 치매의 시작임을 그때는 인지하지 못하였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죄 지을 뻔한 저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후 남편은 치매를 앓다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느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부르시는 날 달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립 40주년을 축하함



오차환 요한

꽃 푸른 대서양 파도를 넘어
붉게 찬란히 타오르는 태양.

오늘따라 더욱 밝고 힘차다.

2014년 창립 40주년.

아름다운 땅. 그래도 이민자에게는 동토의 땅.

광활한 불모지에서 땀과 노력과 인내로
우리는 오늘을 탄생하게 했네.

소수 민족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셋방살이 핍박과 괘시도 받았고,
기차길 옆 낡은 오막살이 소음 속에서도, 굳세게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난 용사들,
군고구마, 붕어빵, 손수 담근 김치로.

한 톨 두 톨 모으려고, 절약하고 줄이면서 이룬 오늘의 장한 성장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형제자매님들이 합심하여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참아 온 날의 영광이며

자생한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닮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척한 장한 우리의 금자탑.

오늘, 이렇게 40주년을 맞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형제자매님들,
환희와 희열 속에, 그 고난의 세월들 가슴 깊이 새기며,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곱게 아름답고 힘차게 키우고, 사랑과 믿음 속에서, 보람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룩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의 투병기



김종한 요한(풀턴 구역)

어느 날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심한 무기력감과 함께 피곤이 온몸을 엄습해 왔다. 가슴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기도 해 잠을 많이 설치기도 했다. 얼마 전에 아이 결혼식도 있었고 단체 행사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기도 해서 피곤이 누적됐을 거라 생각했다. 피 검사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당시 의사 얘기로는 결과가 다 좋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상한 증세가 느껴지는 걸까?

얼마 후 용기를 내서 25년째 다니고 있는 가정의를 찾았다. 그때가 2012년 7월 어느 날이었다. 혹시나 폐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갑상선암 아니면 간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 의사는 여기저기 검사를 해 보더니 심전도 검사를 해 보자고 했다. 다른 검사에서는 그리 나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했다. “4개월 됐어요. 혈액 검사하신 지.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나는 의사를 뒤로 하고 나왔다. ‘별일 없을 거야. 난 운동도 많이 하고 늘 건강했으니까.’

며칠이 흘렀고 전화 통화 중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 닥터 권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다시 검사 한 번 해 보시죠.” 나는 의사의 황당하고 심각한 얘기에 화가 났다. ‘누군가의 기록과 바뀌었을 거다.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던지.’

다음 날 다시 혈액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려면 사흘 정도 걸린다고 했다. 동행했던 아내가 사흘이나 기다릴 수 없으니 혈액 전문의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의사가 인도인 전문의를 소개해 줘 두어 시간 후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었다. 그곳은 검사 시설이 있어 몇 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조마조마했던 몇 시간이 몇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미스터 김! 예상대로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왔네요. 다른 검사도 해야 하고…….” 의사의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혈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쥐고 입에 큰 마스크를 하고 골수 검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소설 속 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도 있었다. 나는 ‘작가가 내용의 흐름을 바꾸려고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럼 나도 소설 속 주인공처럼 치료도 제대로 못해 보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목요일부터 몸이 오싹오싹 춥더니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진통제 두 알을 먹고 잤는데 열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치솟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 가정의한테 전화를 걸었다. "열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다. "미스터 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미국에 와서 바쁘게 지낸 세월들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저녁에 퇴근한 아내에게 의사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줬다. 병원에 가기 전 직장에 잠시 들러야 했다. 주말이니 직원들 주급도 계산해야 하고 다음 주 물건 구입도 요일별로 작성해 줘야 하고……. 나는 책임자들에게 몸 상태를 설명한 후, 직장 근처에 있는 '워싱턴 어드밴티스트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상태가 위중해서인지 금방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다음 날 위층에 있는 입원실로 옮겨 주었다.

내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가까운 자매가 음식을 갖고 와서 차에서 먹었다고 했다. 가까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응급실로 나를 찾아왔지만 고열 속에서 누가 왔었는지 기억이 없다. 얼마 후 인도인 혈액 전문의가 나의 병실을 방문하였다. "미스터 김! 괜찮아요? 지금 골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는 큰 주삿바늘을 나의 척추에 꼽더니 뼈를 뒤들며 골수를 채취하였다. 두 번의 골수 채취가 끝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얼마 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난 모양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앰블런스에 실려서 '존스홉킨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에 고정된 침대에 누우니 창문을 통해 밤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많은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나의 아내는 다리가 후들거려 혼자 운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는 언니의 차를 타고 뒤따라왔다고 했다. 존스홉킨스 병원에 온 뒤부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수술 시설을 갖춘 병실로 옮겨진 후 중년의 의사가 팀을 이끌고 병실에 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내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 이삼 일이 지났다. 수치가 조금 올라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경과가 호전되었다. 의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의 목 옆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심어 심장 쪽으로 보내는 수술을 했다. 관을 통하여 항암 치료도 하고, 약물 주입도 하고, 수혈도 한다고 했다. 의사는 수치가 올라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10여 개의 링거 병이 스탠드에 걸려 있었다. 이 약물들은 내 몸속에 들어가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높일 것이다. 조금씩 희망이 보인 것이다. 다시 골수 검사도 했고, 매시간 당뇨 검사, 혈압 검사, 체온 측정 때문에 잠들 만하면 간호사들이 나를 깨웠다. 병실에 나 혼자일 때도 침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켜 주는 것일까…….' 배를 타고 어딘가를 헤쳐 나가는 환상도 체험했다. 약이 독해서 오는 증세 같았다.

이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병실을 찾아 주었다. 형님과 누나는 한국에 갔다가 급히 귀국했고, 교우들, 이웃들 모두 걱정스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 주었다. 또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 신부님의 매주 봉성체도 있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몸도 조금씩 씻을 수 있어서 상태가 호전됐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다시 고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머릿속의 미세 혈관이 터졌다는 것이다. 또 많은 검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혈병에 중풍까지 왔단 말인가? 이젠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주님! 이렇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울고 있었다. 만 하루가 지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터진 혈관이 아물었다는 의사의 얘기에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생겼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나쁜 짓도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여태까지 살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죄도 지었을 것이다.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살기 위하여 짓는 그런 죄 아닌가? 또 우린 성사를 통하여 늘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던가?

회개가 느껴졌다. 앞으로 두어 달의 입원 생활이 필요하고, 몇 달의 통일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경과가 좋아졌을 때의 일이다. 간이침대에서 2주간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아내 수산나의 모습이 안쓰러워 집에 가라고 해도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병원에서 주는 음식은 입에 맞질 않아 먹으면 토하곤 하였다.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은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정말 맛이 없었다. 하기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환자에게 산해진미를 준다 한들 먹지도 못했겠지만 말이다.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 나는 병실 창문을 통해 거리의 풍경을 보았다. '나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피부는 온통 붉다 못해 퍼렇게 멍들어 가고 있었다.

수산나가 안돼 보였는지 형님이 간병인을 보내 줬다. 개신교 신자인 그는 알고 보니 같은 학교의 동창이기도 했다. 그때 한참 런던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다. 한국 팀의 선전에 마음이 기뻛고 우리 팀의 낭보가 들릴 때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 가끔씩 병실을 들어오는 나이지리아 남자 간호사에게 한국의 올림픽 소식을 자랑 삼아 늘어놓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스터 김! 우리 인구가 세 배도 더 되는데 금메달 하나 따 본 적이 없어. 너희 인구가 많지 않은데 금메달을 열 몇 개나 따고……. 대단하다. 정말 너희 나라는 잘사는 이유가 있는 나라야. 너도 위대한 나라 사람이니까 이 시련을 잘 이겨 내고 완치 판정을 받는 거야. 자! 힘내!” 그는 그렇게 나에게 좋은 친구였고 희망을 줬다.

어느 날 구역 형제님이 장모님께서 해주셨다고 냉면을 가지고 왔다. 나는 원래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국수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남에게 넘어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그 이후 엄청 힘든 시절에 매일 수제비나 국수를 먹고 지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냉면은 정말 맛이 있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맛있게 냉면을 먹어 본 적이 없었다. “요한 형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치료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형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받이 세거든요. 기도의 힘이 기적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배어 나왔다. ‘맞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그날 이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 당신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당신을 많이 원망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제 두렵지 않다. 나에게서는 든든한 주님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기도해 주시는 많은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 또 성모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프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는 너무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도 해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부터 더 사는 나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 보너스다. 늘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새삼 다짐해 본다.

레지오 마리아 체험기



손인숙 테레사

나는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우의 적극적인 권유로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레지오가 성모님을 모셔 놓고 기도하는 단체라는 것 외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매주 화요일이면 저녁 미사 후에 참관하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회합 때면 묵주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졌고, 바쁜 미국 생활에 활동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하였지만 심적으로 불편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를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새로운 것이 느껴졌다. 바로 봉사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나의 일, 나의 가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매주 활동 보고를 해야 하니 주위에 나의 손이 필요한 곳은 없는가 살피게 되었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게 되었다. 하다못해 가족에게 하는 것도 싫은 때가 있었지만 '나는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니까 하면서 하게 되었다. 나는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다.

그렇게 3개월 후 나는 레지오 마리아 활동 단원으로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 큰 감동 없이 세례를 받았던 나였지만 단원 선서 때에는 마음이 설레었다. 두려운 느낌까지 들었다.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함으로써 교회 전례를 알 수 있었고, 여러 단체, 즉 꾸르실료, 성령 기도회, 프란치스코회, 구역의 일을 하면서도 레지오 마리아를 기본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쁘고도 두려웠던 나의 기분과 감정이 떠오른다. 몹시도 떨리는 마음으로 선서를 하고, 주일이면 미사 참례를 지키듯이 열심히 주회에 참석하였다.

1993년 3월에 활동 단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1996년에 '천사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단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서툴러 힘이 들었다. 단장으로서 맨 처음으로 오전 팀을 만들어 시작하였지만 선서를 한 단원은 나뿐이었고 나머지 단원들은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아에 들어온 예비 단원들이었다. 낮에 레지오 주회합을 하다 보니 미국 생활에 바쁜 교우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었고, 단원들 대부분이 유학생 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이들이 어린 학부모 교우들이어서 어린이들의 학교가 끝나기 전에 주회를 마쳐야만 했다. 또한 대부분이 유학생 부인들이어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자리가 비기 시작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교 일로 빠지는 단원들이 생겨서 나 혼자서 시작 기도와 묵주 기도를 하고, 출석을 부르
고, 주회를 마치는 때도 많았다. 그렇게 나 홀로 주회를 할 때는 몹시 슬펐다. 어느 날엔가 성모
상을 붙들고 “성모님, 단원 한 사람만이라도 보내 주시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하며 묵주 기도를 하였다. 혼자서 주회함을 하는 것을 본 백기철 시몬 형제님이 안타까웠는지
같이 묵주 기도를 해 주셨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어느 날 성모님께서 이런 내가 불쌍하였던지 단원 한 사람을 보내 주
셨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묵주 알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교우였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이 못하니 교통편이 해결되어야 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고정
단원이 있어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성모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자매님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주를 놓지 않으며…….

그렇게 단원들은 늘어났고 모두들 열심히 한 덕에 ‘천사들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날로 발전해
갔다. 그 자매님은 ‘성실하신 모후’ 브레시디움 단장으로 분단하여 부단장과 회계를 거쳐 지금
은 단장으로서 그 브레시디움을 지키고 있다.

모시 적삼과 옥색 치마

김동렬 리처드(가나안 구역)

그해 동짓달은 하얀 눈이 산야를 뒤덮고, 북풍의 차가운 공기가 콧등을 시리게 할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다. P여인은 출산을 앞두고 만삭의 몸으로 마을 어귀에 있는 점방에서 막걸리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서 길거리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막걸리를 담았던 주전자는 찌그러져 있었고, 누런 막걸리는 길거리에 흥건했으며, P여인의 손바닥은 얼음 조각에 스치어 빨갱게 되어 있었다. P여인은 상황을 대충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여인의 남편은 만삭의 부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여자가 조심스럽지 못해 막걸리를 길바닥에 엮질렀다며 잔소리와 비난을 되풀이했다.

P여인은 주눅이 들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뒷방에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이 또 딸인가 보네. 내가 얼음판에 낙장거리로 넘어졌는데도, 목숨이 질리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딸이구먼…….” 사실 P여인은 이미 다섯 명의 딸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2대째 독자인 남편에게 큰소리도 치고, 조상님들에게 체면도 세울 요량으로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터였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 그날로부터 며칠 후 P여인은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아들을 낳은 기쁨과 혹독한 시집살이로 인한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조용히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 사이로 비치는 사내아이의 ‘거시기’를 보고 또 보며 아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산모의 신체적 충격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일찍 태어난 조산아였다. K의 세상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후 K는 자라는 과정에서 건강하지 못해 잔병에 시달렸고, 이런저런 사고도 당했다. 그럴 때마다 P여인은 K의 허약한 체질이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란 가책을 느끼며 헌신적으로 K의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K는 자신의 부모가 친구들의 부모에 비해 연로하고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옷차림마저도 부끄럽게 느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곤 했다.

K가 중학교에 다닐 즈음에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러 온 P여인은 어느 학부모의 복장과는 달리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는 쪽을 저 비녀를 꽂고 있었다. 가뜩이나 부끄럼 많고 소심했던

K는 그 모습이 창피스러워 어찌 할 줄 몰랐다. K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무더운 여름날, K의 하숙비를 전해 주러 온 P여인의 남편은 직접 경작한 쌀 현물을 싣고 리어카꾼들을 대동한 채 새 하얗게 풀 먹인 모시 적삼 차림이었다.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하며 하숙집으로 들어서는 풍경에 너무나 당황한 K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

평소에도 P여인은 유난히 옥색 저고리와 치마를 즐겨 입곤 했다. 질감이 부드럽고 선이 고운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치마 끝자락을 거드랑이로 살며시 휘감은 채 사뿐한 발걸음으로 단아한 자태를 보이기도 했다. P여인의 남편 역시 희고 가는 실로 지은 모시 중의 적삼을 입고서 고향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인정 어린 말투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 권하며 정담을 나누는 넉넉한 촌로의 모습을 보여 주곤 했다.

이 순박하고 우직한 시골 부부에게 있어 모시 적삼과 옥색 치마는 그 시절 가장 보편적이고 맵시 있는 외출복이었을 것이다. 또 사춘기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도, 가장 적합한 복장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심하고 반항적이었던 K로서는 부모의 이런 의복과 구시대적 행동이 그저 촌스럽고 창피하기만 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K는 어른이 되고 결혼 후 자식도 낳아 기르면서, 무의탁 어른들을 모시는 양로 시설에서 자원봉사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어른 공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지만, 그때쯤 P여인도 15년 전에 자신의 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저편의 세상으로 홀연히 올라감으로써 K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부모에 대한 이별의 슬픔을 겪게 되었다.

P여인의 장례는 개신교 목사인 외손자의 조언에 따라 고향 마을 교회에서 다섯 딸들의 통곡 속에 쓸쓸하게 치러졌고, K는 15년 전 부친을 하얀 모시 중의 적삼으로 고이 덮어 보내 드렸듯이 모친의 관에도 평소 그리 즐겨 입으시던 고운 옥색 한복을 넣어 드렸다. 남편 만나리 갈 때 옛 추억을 그리면서 단아한 모습으로 상면하시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 후 K는 모친의 제사가 다가올 즈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개신교 전례에 따라 추도식으로 진행하자는 다섯 누이들에게 진심 어린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다. “제사는 종교의 원리를 떠나 조상을 섬기는 관습이다. 그리고 인간이 지녀야 할 근본이고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자

신을 낳아 주고 손자를 길러 주신 부모에 대해 종교의 가르침보다 자식의 도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내 어렸을 적 부모님에 대한 과오를 뉘우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부모님의 영정에 술 한 잔 바치면서 반드시 제사를 모시고 싶다.” 이윽고 누이들도 K의 설득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들로서의 권한을 인정했는지 K의 의견에 동의했고, K는 그토록 고민하고 갈망하던 부모님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K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부모님(조상)의 제사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교리에 매력을 느껴 천주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는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다른 교우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세례명을 정하게 되었는데, 성가정을 이루고 참된 신앙인 가족이 되고자 자신의 결혼기념일과 순교 날짜가 같은 성인의 이름인 ‘리처드’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된 K는 천주교 입문 당시의 각오와는 달리 가정의 일상과 직장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수행에 소홀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 입신양명의 그늘 속에 얽매인 나머지 종교 생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에 모든 것이 척박하고 황무지처럼 느껴져 처부모님이 살고 있는 미국 땅으로 가족과 함께 고달픈 이민 길에 오르게 되었다.

K에게 있어 초기 이민 생활은 말 그대로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천주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던 처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곧 종교에 대한 믿음과 이민 생활을 위한 희망을 키워가며 기회의 땅인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가정도 안정되고 사업도 성장해 가던 중에 처부모님께서 석 달 간격으로 선종하시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인생의 지천명을 넘긴 K로서는 타국 땅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장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가득했다. 그때 천주교회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어 천주교의 전례에 따라 연도와 장례 미사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관해 주시어 처부모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

K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따뜻한 손길을 펴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계획임을 자신과 약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민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소공동체

에서 털털한 감초가 되고, 슬픔과 고통에 잠긴 분들을 위한 복음 말씀과 기도 봉사를 통하여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K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지닌 성모상 앞에서 묵상하노라면, 어렸을 적 소심하고 반항적이던 자신에게 정성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던 P여인의 모정을 느끼기도 하고, 옥색(하늘색) 성의를 입고 그윽하고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시선은 마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갖 시련을 헤치며 살아가는 막내아들의 일상을 걱정하는 P여인의 동정 어린 눈길과 흡사한 것 같아 가슴 깊은 곳을 통하여 뭉클한 감동이 전해 오는 듯하다.

K는 모시 적삼과 옥색 치마에 대한 집착과 회상은 하느님의 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인 동시에 외로움의 표출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아미 같은 그믐달이 서편 하늘의 숲 속으로 떨어질 즈음, 생업을 위해 사업장으로 출발하면서 현관 안쪽에 모셔 둔 옥색 성의를 입으신 성모상을 향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조아린다. 그러면 인자하고 애처로운 눈길로 “힘한 바깥세상 조심하거라.”라고 당부하는 듯한 P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K는 문득 무언가가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과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은 단어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의미였구나!’

“여보! 부지런한 양반이 오늘 따라 웬 잠고대까지 하면서 늦잠이요? 교중 미사에 늦겠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K가 아내 안젤라의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떠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오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K는 너무도 선명했던 지난밤의 무성 영화 같은 영상들을 되새기며, 잠자리에서 미처 일어나지도 않은 채 바깥세상을 보기 위해 창문 커튼을 살며시 젖혔다. 그때 창문 틈 사이로 희고 가는 모시 실선 같은 투명한 아침 햇살이 안방 한편에 모셔 둔 성모상에 투영되어, 백색과 옥색의 성의가 그지없이 신비롭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었다. 이윽고 K는 교중 미사에 늦겠다고 투덜대는 아내의 잔소리를 달래고, 지난밤 자신과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가슴에 품은 채 늦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 안식처인 성당으로 향하였다.

하느님과 만남

백승자 소화 테레사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백성(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대학교 시절 학생 운동하면서 부르던 데모송이다. 당시 나는 주님이 아닌 사회에서 소외되고 삶에 억눌린 소외 계층의 희망이요 그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젊음을 불살랐던 많은 80년대 세대들, 그들 중 하나였다.

난 태어나기 전부터 천주교인이다. 그렇게 모태 신앙 안에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첫영성체, 견진 교리까지 다 마쳤고, 일요일이면 동생들과 함께 꼬박꼬박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정말 하느님은 계시는 걸까? 내가 일요일이면 늘 보러 가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교 합격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톨릭학생회 문을 두드렸다. 정말로 절실하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입학식 전에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간 나는 서클 역사상 전무후무한 명물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서클 문을 열자마자 “하느님 정말 계십니까?”라고 외쳤던 나의 첫마디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하느님을 알기도 전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냉담기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 시기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교분, 그 속에서의 색다른 경험들과 만남 등은 나를 성장시킨 좋은 계기들이었다. 여의도 바닥이 나의 안방인 것처럼 드나들었고, 정말로 바빴고 재미있었고 마음먹었던 일들은 다 해 보았던 시기였다.

결혼 생활 5년 차 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조용히 나에게 오셨다.

운전 연습을 하다가 클러치를 너무 세게 밟았기 때문이었을까, 왼쪽 복숭아뼈에 혹이 생겼다. 조그마한 혹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했다. 급기야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며 분당의 ‘제생 병

원'이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양재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혹 안의 이물질을 주삿바늘로 뽑아 버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혹이 생기더니 더 커져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걸을 때마다 아프더니 저절로 절뚝거리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신홍 과학 종교에 빠진 젊은 엄마들이 매일같이 아침이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다.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수 없이 나는 매일 아침 10시 미사를 핑계 삼아 성당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만난 성당 교우분(나중에 딸아이의 유아 세례 대모가 되어 주심)이 불편한 나의 다리를 보더니 금요일 철야 기도를 소개해 주었다. 혹시 다리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의 말과 함께.

정말로 생소한, 들어 보지 못한 일들이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개신교에서의 부흥회를 들어 보긴 했지만, 가톨릭교회 안에서 철야 기도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너무나 낯설어서 뛰쳐 나오고 싶었다(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쓰인 대로 통성 기도, 이상한 언어와 갖가지 차유와 기적 등이 눈앞에서 일어났을 뿐인데……). 그러나 소개해 준 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삼세번이다. 세 번만 나가고,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나에게 나가자는 말은 못 할 거라고 생각하며 3주를 나갔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기도하시는 분의 인도에 따라 온전히 맡겨진 내 마음이, 내 마음 안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난생처음으로 아주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주님! 살아 계신 분이셨군요. 늘 나와 함께하셨군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 안의 잠재의식 밑바닥까지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찾던 하느님은 계시었다. 그렇게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을 만났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나의 자유 의지조차 존중해 주시면서 그분께서는 나를 기다리신 것이었다.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렇게 나는 주님께 고백하였다.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다.

그동안에도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심과 안일함 속에서 종교적으로 몇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확신만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독재 타도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복음 성가를 불러 본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포대기가 되어

김명숙 안젤라(가나안 구역)

그이를 처음 만난 날……
건장하고 준수한 청년의 모습에
설레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애꿎은 커피 잔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거렸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호랑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주님을 처음 영접하는 날……
자비로운 주님의 표정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문만 읽고 또 읽었다.

그 후
고비마다 소리 없는 회초리를 맞으며
마음을 다스려
지금은
또 다른 얼굴의 순한 양이 된
내 모습을 바라본다.

먼 훗날 나는……
자상하고 변함없는
그이의 깊은 뜻을 헤아려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서로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폭넓은 포대기가 되어 봄은 어떨까

뜻하지 않은 사건 속에도 숨어 계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김호용 아브라함

2013년 12월 3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던 중 생긴 일입니다. 충남 대천 휴게소에서 잠시 쉴 때, 딱끈한 새우튀김 우동 한 그릇을 서둘러 먹고 다시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골집을 향해 급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옆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막차가 끝난 늦은 시각, 삼촌을 위해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며 마중 나올 조카가 배고플까봐 산 호두과자 상자는 보이는데, 정작 제 배낭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14시간 반의 긴 비행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버티고 있던 저의 머리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실수에 당황스럽고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슬며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15분 안에 서둘러 식사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카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머리로 애를 써 가며 그 작은 가방 안에 무엇들이 들어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분 후 대략 생각난 건, 기내에서 추울까 봐 챙긴 가벼운 재킷과 성경, 십자고상, 기도서 두 권, 책 한 권, 치약, 칫솔 그리고 미국에서 쓰던 휴대 전화 정도였습니다. 우선 현금이 없으니 주문 사람이 크게 유혹받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다소 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기사분께 다가가 사정 말씀을 드렸더니, 버스를 천천히 몰면서 가지고 계시던 근처 휴게소 전화와 그 지역 114 안내 전화 거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대천 휴게소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제 가방을 그 직원이 찾아냈고 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90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가족들의 예상보다 일찍 운명하시어, 적어도 그다음 날에 있을 장례식에는 늦지 않으려고 급히 귀향하고 있던 저의 마음은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찾을 때까지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이 없으면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다음 날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빨라도

삼우제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던 순간 저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도 계시는 소중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감사함에 숨죽이며 전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0월 목주 기도 성월에 저의 짝이자 십자가의 벗인 멜라니아가 매주고리에에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됐습니다. 멜라니아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산에서 올며 저의 가족을 봉헌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점차 저의 관심은 할 때만 재미있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하고 나면 기쁜 신앙적인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 5월 성모 성월에, 저도 그 거룩한 땅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녀온 후 기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기도가 한 없는 만족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가슴 터질 것 같은 충만함과 뜨거운 떨림까지 제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 기도를 몰랐는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대림 시작 일주일 전 토요일부터 기도서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다른 매일 기도에 더하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르짓다 성녀께서 일 년을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모든 약속들을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12년을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은총의 잔을 저는 다만 감사하며 희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서들이 대천 휴게소에 놓고 온 그 작은 가방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감사할 지혜를 제게 허락 하셨는데, 그것은 두 권의 매일 기도서를 한 세트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세트를 준비하여 이곳저곳에 두고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거실, 여행용 십자가고상 상자, 출근 가방, 두 대의 차, 재킷 호주머니 등 여러 곳에 보관하게 되었고, 이 하느님의 자비하신 지혜의 배려로 인해 그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기도가 끊어질 위기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귀국할 때도 다행히 한 세트는 여행용 십자가고상 상자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입고 있던 재킷 호주머니 안에 둘 생각을 하게 하시어, 또 한번의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한낱 인간이며 약한 제가 어찌 지난 시간 매일 잊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저를 유혹 많은 세상 것들로부터 회개시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리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기도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제게 심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제가 쓰던 묵주와 입었던 스카폴라를 드릴 때조차 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글을 읽으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가 당신께 가까이 가는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문들을 열어 주시고, 제 가슴에 식지 않을 기도의 열망을 늘 부어 주시고 또한 항상 새롭게 해 주심을……. 그 믿음으로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또 한 명의 벼슬, 십자가의 참벼슬.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흠숭하올 예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나눕니다.

성모님께 제 손을 맡깁니다



박양분 비비안나

짧아져 가는 하루해 넘어가며
어두움 불러 길어진 그림자 거두어들이고
가슴 한쪽에 채워지지 않는 물음들을 두고 간다

하얗게 눈으로 덮인 밭을 바라보며 지난날들을 회상해 본다. 봄부터 정성 들여 가꾸어 온 나의 작은 농장, 고추, 토마토, 김장거리 무, 배추 등 온갖 채소 씨를 뿌려 자란 사이사이에 풀포기가 려내는 호미 든 내 손을 바라본다.

순간 가슴 뭉클 차오르는 감사를 느낀다. 손이 없어 팔뚝에 호미를 형겅으로 칭칭 동어매고 수건을 깊숙이 눌러쓴 아낙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나 했는데……. 아하! 어느새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려고 하는구나!

아주아주 젊었을 때, 라자로 마을이라는 팻말의 탑을 지나 나병 연구원 수위실을 통과하면서 내 생애 가장 보람 있었고 만족스러웠던, 그리고 희로애락을 체험하며 지냈던 길지 않은 2년간의 시간들이 떠오른다. 어떤 사명감이나 희생, 봉사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 좀 주저함도 있었지만 별 두려움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나환자와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때론 가슴을 저리게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아픔을 느끼게 했던 하나하나의 얼굴들이 스쳐 간다. 체육 시간에 발목이 빠짐으로 나병임을 알게 된, 텔런트가 되려고 했다는 고3 서울대 지망생, 그때부터 그에게 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약물 투여로 둔화되어 가는 머리로 안간힘을 다하여 모두가 잠든 밤과 새벽 시간이면 창가에 앉아 달빛과 먼동의 햇살을 맞으며 책과 씨름하던 그가 가끔 마음을 열어 보이며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했고, 퇴원 후에도 사회 속에서 부딪혀 가며 살아가는 얘기를 종종 전해 주던 그 애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

언제나 붓글씨로 마음을 달래던 대학교수였다는 김씨 아저씨의 허망해하는 모습, 육사 졸업식 날, 졸업식 중계방송을 병실이 떠나가라 들어 놓고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움켜잡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던 육사 졸업생, 설교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장래 목사 지망생, 12세 어

린 나이로 나병이라는 병명 때문에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투병 생활이 시작된 그 아이의 티 없
이 맑은 얼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언제나 깊은 절로 감사 표시를 하는 소록도에 있다 온 김씨 아저씨, 가끔 마을에 내려가 오그라
진 손으로 내어 주는 달걀을 사며,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정상인보다 더 곱게 껌매 놓은 이
불깃을 보며 그들의 애절한 아픔을 느끼고 울부짖음을 들었고 쌓인 한을 보았다.

그들의 손톱 발톱을 깎아 줌은 물론,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고 속옷 빨래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
주며 자신의 숙소까지도 병실 옆에 마련했던 평화 봉사단 미국인 남자 간호사, 그의 모습이 바
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들과 팔짱을 끼고 걷기도 하고 샌드위치를 싸 가지고 산에 올라 나눠 먹기도 했고, 때론 조심
스레 화장실도 같이 쓰며 그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냈던 그때, 나에게 붙여진
별명은 원더우먼이었지. 맞아! 그랬었지……. 가끔은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했는데……. 그 시
절이 꿈에도 종종 나타나더니 언제부터인가 삶의 무게에 눌러 희미해져 잊고 살았는데…….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이 있다.

1977년 안양천 사태와 함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기숙사를 덮쳤던 한밤중의 산사태 이후로 친
둥 번개만 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했었다.

그러나 연구원 바로 옆에 성당이 있었지만 난 한 번도 성당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었다. 난 그
때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세속에 빠져 그저 멀리하다 보니 선뜻
가까이 가기가 내키지 않았던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이제야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을 때 주
님께서는 늘 내 곁에서 일그러진 환자들의 모습 안에서 당신을 알아보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
며 그들을 통해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닫는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회의 냉대와 질타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세상에
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값 때문이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닐 텐
데……. 참, 가혹하다.

누군가 말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나의 젖값을 그들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자. 그들을 동정하며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지껄었던가!

부끄럽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미명으로 그들과의 생활을 끝내고 교적을 옮기려 용기 내어 성당 사무실을 찾았을 때, 어느 자매님이 다가와 지금 레지오 회합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다짜고짜로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얼떨결에 들어가서 보니, 지루한 목주 기도 5단을 바치고 나서 각자 무슨 무슨 활동을 했다고 돌아가며 발표하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다. 저런 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시 냉담이 이어졌다. 성당에 가면 또 그 자매를 만날까 두려워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없는 일이지만 그때 그랬다.

둘째를 낳고 성당을 다시 찾았을 때도 누가 레지오 소리만 하면 거부감부터 들어 외면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 와서 꾸르실료 교육을 받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어느분의 권유로 순순히 입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레지오 마리아는 내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가야 하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레지오를 권유할 때 나의 경험도 들려주고 혹여 부담감을 느껴 그 지난날의 나처럼 도망갈까 봐 조심스레 다가간다. 그리고 레지오가 뭔가부터 알아야 할 테니까 우선 교본 1~3장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거기엔 레지오의 명칭과 목적, 정신이 명확히 나와 있으니깐.

그렇듯 내가 세속 생활에만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내 짐을 지고 간 보속의 대가로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이제 이렇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조금씩 나를 비워 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어두웠던 날들이 있었기에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굳게 확신한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내 손을 꼬~옥 잡아 주님께로 이끌고 가시리라 믿기에 어머님께 의탁하여 나의 두 손을 내어 드린다. 엄마! 엄마 제 손 꼬~옥 잡아 주세요!

아침

보다 찬란한

황혼을 바라보며

우리네 끝자락도

저 노을의 물들처럼

아름다운 색채 하나 더해 가는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겨 드리고

심표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싱그럽던 초록의 빛깔도 화려했던 오색의 단풍잎도

겨울바람 추위에 맞서려고 낙엽 되어 모두 떨어져 버리고

아무 가림도 꾸밈도 없이 처음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나무들처럼

나는 무엇을

더 버려야

저 하~얀

눈꽃 옷을

입을 수 있는 걸까!

착한 의견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박양분 비비안나

103위 성인의 모후 꾸리아

돌과 보석

허건행 야고보(레이힐 구역)

나는 산행을 좋아하여 매 주말 아침이면 등산로 입구에 발이 머물곤 한다. 걷는 길은 항상 같고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마도 나름대로 종종 명상에 잠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불과 몇 종의 원소가 조합되어 수만 가지의 다른 물질이 된다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길바닥의 흙이나 나뭇잎, 바윗돌도 따지고 보면 대동소이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

산속에 구르는 하나의 검은 돌이나 도시의 화려한 보석상에 진열된 작은 보석도 결국은 같은 본질일 수 있는데, 길가의 돌들은 태양의 빛을 모두 흡수해 버리고 조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참 욕심이 많고 자기 잇속 잘 챙긴 것 같지만, 그 돌 하나가 발에 차인다 해도 과연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늘엔 눈부신 햇살이 비쳐도 그 돌은 항상 검고 어두침침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화려한 불빛 속에 곱게 모셔진 아름다운 보석들은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가? 돌과 보석은 하나뿐인 태양 아래서 같은 햇볕을 받고 있지만 보석은 돌과 달리 자신에게 온 태양의 모든 빛을 아낌없이 되돌려 주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누가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삶 대신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돌과 같은 삶을 원할까? 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배려치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면, 그런 삶에서 보석 같은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직업을 고집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직 자녀들만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그런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과연 보석같이 아름다운 색깔을 기대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아마도 자신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남을 생각하기보단 본인이 먼저 더 많이 갖추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놓은 후에,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자녀들이 더 성장한 후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과연 지금의 우리가 남을 생각하기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일까? 혼자 시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선뜻 사회에 기부하여 신문에 작게 기사가 실렸던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과연 내가 기대했던 그 준비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가?

항해 중인 선장에게 난민을 구조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까지 있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회사로선 당연한 요구이며 지침을 어길 땐 파면당할 걸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풍전등화의 생명들을 외면치 못하고 뱃머리를 돌린 그때 그 선장의 용기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한 가지 선행인 것뿐이었을까?

아무리 이름 있는 의사라도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섬에 혼자 있다면 그의 훌륭한 의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타인에게 그의 의술을 베풀기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 그 보석같이 아름다운 내 삶의 빛깔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결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바로 지금의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인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빛깔이 보일 수 있는 건 아닐지……. 길가에 구르는 무심한 돌 하나지만 잠시 나에게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그 돌이 새롭게 느껴진다.

천국의 문

김광수 크리스토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인접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올니(Olney)에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있다. 여기서 조지아 에버뉴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10분 거리에는 유명한 달리한 본당 교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름하여 '천국의 문(Gate of Heaven)'이다. 워싱턴 대교구 산하의 비영리 기관인 이곳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민을 왔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성을 마감한 후 천국행을 꿈꾸며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의 공식 명칭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이민의 나라 미국의 수도에 위치한 이 '천국의 문'은 이곳에서 태어난 신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 출신 가톨릭 교우들이 사후에 찾아오는 미국 안의 또 다른 아메리카 합인종국(合人種國)이다.

우리 한인 천주교인들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다.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월조소남지(越鳥巢南枝)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을 때도 남쪽 방향으로 뻗은 가지를 골라서 앉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농경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는 우리 한민족의 향수를 잘 표현한 말이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본당 창립 이래 40년 동안 남쪽 가지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산 설고 물 다른 수만 리 타향, 더욱이 말도 잘 안 통하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굳은 결심 하나로 갖은 고초를 겪어 오는 동안 한 주일간에 쌓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위안을 받는 곳. 텅 비어서 허전한 마음에 영기어 있던 전기 코드를 가지런히 뽑아서 하느님께서 계신 제대에 꽂고,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충전받는 곳.

서울 대교구장께서 보내 주신 두 분의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 신앙 한국 가톨릭의 전승을 이어받고 있다. 또 그분들은 우리에게 오랜 객지 생활로 인해 희미해져 가는 조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신부님들은 2, 3세대들에게는 한글 교육과 더불어 조국의 얼을 심어 주어 뿌리 깊은 문화 민족의 후손임을 주지시켜서 정체성을 확립한 자랑스러

운 소수 민족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한 정이 들어서 고향이 된 본당에는 집을 떠난 친구를 기다리는 교우들이 항상 모여 있다. 우리가 미국의 어디에 있든지 본당은 디아스포라 워싱턴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의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정들고 아름다운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천국의 문’은 연로한 이민 1세대들이 점차 모여드는 또 다른 고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우리의 고향 동산**

장벽 하나로 세상을 갈라놓고 생(生)과 사(死)가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지듯이 ‘천국의 문’도 그런 곳이다. 워싱턴을 내왕하는 8차선의 번잡한 도로 조지아 에버뉴를 뒤로 하고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판 세상처럼 느껴진다. 안개 끼고 가랑비 내리는 해가 짧은 일요일 오후 고즈넉한 공원묘지에는 영령들의 대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듯하다.

우측 아스팔트 길을 거의 끝까지 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납골당을 가기 전에 좌회전을 하면 희뿌연 안개 속에 단아한 모습의 갓 쓴 선비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우리 고향 동산의 아이콘 김대건 성인의 상이다. 도로 오른쪽의 상 주위 일대가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를 거쳐 나간 교우들이 영면하고 있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묘지들로, 이곳 지하 6피트 되는 곳에는 생전에 형제자매로 다정하게 지내던 교우들이 수백 명이나 몰려 있는 지하의 교우촌이다.

1990년대 초 이철호 신부님 재직 시 김대건 성상 이전 결정이 내려지고 교회 묘지가 분양될 때, 성상 건립 예정지 주변은 인기가 높아서 그곳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며 분양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OO와 죽어서도 이웃이 된다.’고 좋아하던 교우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OO와 이웃하고 싶으니 앞뒤로 연결된 몇 기의 묘지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기로 했다. 당시 묘지 분양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질문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묘지에 묻힌 상태가 얼마간이나 유지되느냐?’였다. 길어야 100년, 짧게는 50년 기한도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25년간의 전세 묘지가 많다는 등의 코멘트를 들었다.

우리의 고향 동산에는 성자께서 영광에 싸여 다시 오실 그날 “애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하실 때까지 평안히 잠들 수 있게끔 묘지 당국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관리비도 영구히 면제된다.

*** 아름다운 장례 문화**

우리 공동체는 작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모임으로 방문하시던 신부님들을 초빙하여 미사를 올리던 것을 시발로 하여, 1974년에는 워싱턴 대성당 건너편 언덕 대학 성당(오블라이트 칼리지)에서 워싱턴 대교구로부터 본당 인가를 얻었다. 우리 본당은 이후 1980년대에 버지니아에 정하

상 천주교회를 분리시킨 후 현재 약 4,000명의 교우를 유지하면서도 초창기의 가족적인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톨릭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고, 그 바탕에는 아름다운 장례 문화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당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병환에 걸리면, 아파트 주위 교우들의 기도와 여러 도움을 받는다. 별세한 후에는 연령회의 도움,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 신부님과 장례에 관련된 여러 교우들의 보살핌으로 '천국의 문'에 안장해 드린다. 이후 천주교인이 아니었던 친지들도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인정에 감동하여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매년 위령 성월인 11월이 되면 첫째 주일에 본당 주임신부님은 교우들과 더불어 고향 동산에 가서 위령 미사를 드린다. 가톨릭 왕국은 천국의 영혼들, 현재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도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영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 신부님이 한 울타리 안에 있던 교우들을 잊지 않고 방문하여 그들 영혼을 위해 위령 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이곳에서 태어난 2, 3세대들에게 조상을 기리는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다. 옛날의 한국 정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본당은 아는 교우분이 타계하는 경우에 마지막 배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불과 몇십 명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민 1세대의 피땀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2004년 본당 설립 30주년에는 광활한 터전에 꿈에 그리던 새 성전을 건립하였고, 그보다 두 해 전에는 우리가 대지를 제공하여 노인 아파트(공식 명칭 '앤드류 김 하우스')를 건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성년 교회에 걸맞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신정순 신부님에 의하여 1995년에 창설된 '나눔의 회'는 빈첸시오 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바, 2013년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합심하여 생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2013년 성탄절에는 교우들이 현금한 구유 예물로 교구청의 빈민 구제 기관인 'New York Avenue Emergency Shelter'에 400명분의 일용품을 지급했으며, 'Catholic Charities Organization'에 해마다 노숙자를 위한 담요와 겨울용품을 지급해 오고 있고, 한국 출신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원(Mission of Charity)'과는 오랫동안 지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아는 만큼 더욱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본당 주임신부님의 방침에 따라 내적 충실에도 등한시하지 않고 있으니 지난 2013년 전 신자 신약 성경 완독에 이어서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2년 계획으로 구약 성경 완독을 진행하고 있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

우리 본당은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매일같이 안팎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의 신앙 체험 수기



김금순 마리아(로렐 구역)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시어머니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이셨다. 내가 갓 시집을 갔을 때 내가 자란 친정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엄한 분위기에서 어린 막내딸이 어떻게 잘 살아갈까 나의 친정어머니는 무척이나 염려하셨을 것이다.

시댁, 시집 식구는 어렵고 힘들어서 오죽하면 시금치도 싫다는 말까지 있으리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친정어머니의 깊은 걱정은 세간의 그런 시집살이보다도 불교를 믿는 집안으로 기어코 시집을 가게 된 딸자식이 신앙적인 갈등을 어떻게 감당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시름이 깊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나 보다. 나는 겁도 없이 불교 집안에 발을 들여놓곤 15년간을 참으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불경을 틀어 놓고 일과를 시작하시는 시어머니는 일어나시면 깨끗이 몸을 씻고 곱게 분단장을 하셨다. 그리고는 틀어 놓은 독경 소리에 맞추어서 염주를 굴리면서 정성을 다해 불경을 외우셨다. 혹시라도 비린 음식이 아침 식단에 오르는 날은 부정스럽다고 하여 독경을 접을지언정 항상 깨끗한 몸가짐으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였다.

시집 온 첫 토요일부터 시작해 거의 10여 년간을 시어머니는 매 주말마다 우리를 시댁으로 불러 들여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야 보내 주었다. 성당에 다니는 새 며느리를 절대로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려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감히 일찍 집에 보내 달라는 말을 할 엄두도 용기도 없었다. 지금도 나의 이러한 용기 없는 점에 대해서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애통해 빌고 싶을 뿐이다. 그 옛날 순교 성인들은 시뻘건 화덕 앞에서, 창칼 앞에서 죽어도 배교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을 증거하며 칼을 받고 피를 흘렸거늘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맺들을 엮은 듯 짓눌리듯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다. 시집을 온 여자는 시댁 기풍을 따라야 한다는 한 마디로 나의 변명은 조금의 여지도 없이 묵살되었고, 그 이후로 성당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운 친정집이 되어 슬픈 종소리만 내 마음에 울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쉼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딸자식을 보내는 마음이라며 내 손을 잡고 우셨던 어머니의 깊은 시름이 처음으로 눈에 선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 돌아가야만 했다.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불경 기도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나는 간절한 목주 기도를 곱절로 더하여 정성스럽게 바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길을 막는 시련의 걸림돌을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아 두려웠다.

정월과 10월 일 년이면 두 차례씩 어김없이 치리지는 고사와 곁들여지는 떡시루. 그 끝에 꽂힌 식칼은 내 가슴을 그대로 찢어 고통을 주며 피를 흘리고, 말라비틀어진 북어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내 마음을 자기 모습처럼 비틀었다. 그리고는 그 죽은 눈으로 나의 서글픔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접시에 담아 놓인 시루떡과 정화수들, 그 떡 접시를 들고 날라야 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호경을 굶고 짧게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이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당신만이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임금이시나이다. 주님을 알면서도 행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비겁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적을 사서 내 집안에 붙여 놓는 일은 그래도 거절할 수 있었다. 하느님이 어느새 내게 그럴 용기를 붙여넣어 주셨음이다. “어머니, 잘되라고 비싼 돈 주고 사 오신 부적인데 아무래도 제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만으로도 좋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 어머니, TV 드라마를 보면 스님들이 무당이나 악귀를 불경을 외거나 법력으로 물리치는 걸 보았는데 무당은 불교와는 달리 잡귀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토록 열심히 불경을 외우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왜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드리고 부적을 사서 붙이세요?”

그때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는 집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얼버무리듯 말 씀하시고는 “네가 싫으면 부적은 도로 가져가마. 네 살림이니 어찌겠니?” 하시고는 다시는 부적을 가져오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때 나의 질문에 담은 피하셨지만 어머니나 나나 모두 알고 있었다.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마땅히 자녀들을 성당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혼인 때 주님 대전에서 일찍이 서약했듯이, 반드시 세례를 시켜야 하고 천주의 뜻에 따라 교리를 가르치고 양육할 의무. 아이들은 시키기라도 한 듯이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에는 성당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삼갔고, 토요일 주말

교리 시간에 가야 할 때가 되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듯 조용히 사라졌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오곤 했다. “잘 놀다 왔어요. 할머니.” 하는 인사말도 빼놓지 않고.

큰딸 아이가 첫영성체 기념으로 받은, 성체 형상에 십자가를 새겨 넣은 성물을 벽에 걸어 놓은 날, 어머니는 “저게 무엇이나?” 하고 물으셨다. 교회당 같으니 치우라신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앞질러 큰딸이 말했다. “안 돼요, 할머니. 그건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음…….’ 노여움 섞인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다음 날로 시어머니는 큰 집으로 되 돌아가셨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지만 성체고상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 씀하지 않으셨다. 집 안에는 십자가상의 성광으로 가득 차 있는 듯 그 기쁨과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번은 어느 대축일 전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방문하셨다.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리고는 있었지만 ‘내일 어떻게 미사에 참례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을 앞서고 땅거미 어둠에 깔리듯 무겁게 그늘졌다.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나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가며 현관 앞에 미리 표시해 둔 신발을 터듬터듬 볼도 못 켜 채 집어 들고 나와 정거장으로 뛰었다. 새벽 첫 마을버스를 타면 6시 첫 미사는 참례하겠고, 미사 끝나고 돌아올 때 슈퍼에 들러 장을 봐 오면서 적당히 둘러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차는 나를 두고 출발했고 나는 벌이 총총한 새벽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어 든 채, 뽀뽀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냥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새벽어둠을 밀치고 자그마한 트럭이 나를 불러 세웠다. “구역장님, 성당에 가세요? 새벽 미사 참례하시러요?” 차에 감자를 실어 파는 낮익은 구역 형제님 부부가 창문을 열며 “차를 놓치셨나 보군요. 괜찮으시다면 좀지만 같이 가지지요.” 하고 자리를 내주셨다.

이렇게 숨죽이며 살기를 15년, 나는 끝내 시어머니를 입교시키기는커녕 못한 두 얼굴로 신앙생활을 해 왔다. 그리고는 늘 지난날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와 연미사로 보속을 대신하는데, 그 후 시누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생전에 이미 딸에게서 나의 신앙생활을 굳이 말리지 말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몇 년 전부터는 알고도 아무런 말씀을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 시누이는 시댁 집안의 작은동서의 전교로 세례를 받고 입교한 터였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용덕을 갖고 입교를 권했더라면…….’

참, 후회스럽기만 하다.

나는 하느님께 죄인이고 비겁한 빌라도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충실히 신앙을 지키고 또 증거하며 살아왔을까?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성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난 벌써 구원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을 벗어났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내게 빛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용서하며 참아 주고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 번번이 배신당하고, 실망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임에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시는데 어찌 그 길을 마다하고 가지 않으리까?



율니 성전 성모자상

꽃사과



안 루시아

꽃사과 먹으면 배가 아프다
설익은 과일은 쓰거나 뺏다

익지 않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쓴 것을 주면서 단것을 준 양 흐뭇해하며

피약벌 임의 빛으로
얼른 어물고 싶다 내 시간 안에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꼭 익고 싶다
누구나 따다 먹고 행복해지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주렁주렁 꼭 익은 풍성한 열매들

든든한 하느님 ‘백’

이덕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베데스다 구역)

“이모, 성당에 다녀도 술 먹어도 되지? 담배 피워도 되고?”

“그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래? 그럼, 나 성당 다닐게.” 수녀이신 아델라 이모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받은 후 난 성당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대학생이던 나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독재에 항거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분들처럼 든든한 하느님이라는 ‘백(?)’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하느님 ‘백’을 갖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난 그냥 성당만 다니면 저절로 신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비자 교리반’이란 큰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무려 일주일에 두 번씩 6개월을 다녀야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듯했다. 한참 망설인 끝에 결국 결심했다. 좋다. 해 보자. 하느님, 예수님, 아멘.

노량진 성당을 다니기로 했다. 다른 이모가 그 성당에 다니고 있었고 이모부가 총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좀 덜 낯선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었고, 여차할 경우 이모부 백을 기대했던 것도 있었다. 오나가나 그놈의 백 타령은……. (이모부가 세례 받을 때 대부를 서 주셨다).

노량진 성당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길에서 골목 골목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 예비자 교리가 있던 첫날은 깜깜한 밤이었다. 난생 처음 성당에 가는 난 약간의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이모로부터 받은 약도를 들고 조금 헤매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노량진 예배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아, 여기가 성당이구나. 겨우 찾았네. 그런데 왜 예배당이라고 하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가 아픈 나는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엔 신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다다미가 깔린 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나도 안내를 받고 바닥에 앉았다. ‘예비자 교리는 어디서 하는 거야? 수녀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피자 같은 빵이 신자들을 돌아 내 앞에

왔다. 모두 손으로 그 빵을 조금씩 뜯어 먹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나도 따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온 듯 싶었다. 그들 나름의 영성체 의식인 듯했는데 초보자인 내가 봐도 이건 성당에서 하는 영성체 의식은 아닌 듯했다.

그 길로 '예배당'을 나와 한 골목을 더 돌아서 보니 성모 마리아님이 멀리서 보였다. 가까이 가 보니 성모님이 길 잃은 양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셨다. '아이고, 성모님, 반가워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예비자 교리는 몇 번의 결석으로 호랑이 수녀님께 야단도 많이 받았지만, 겨우겨우 기도문을 다 외우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 나도 드디어 하느님 '백'을 갖게 된 것이다. 1982년 겨울이었다.

그 이듬해 하느님은 갑자기 내 갈비뼈를 뜯으시더니 내 짝을 만들어 주셨다. 지금의 아내다. 아 나와 나는 성당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만날 때 우린 이미 둘 다 가톨릭 신자였다.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맺어 주신 것이다. 명동 성당 근처에서 즐겨 데이트하던 우리는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딸 셋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었다. 시작은 열렁뚱뚱이었고, 아직도 난 '발바닥 신자'지만 난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좋고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 뒤엔 든든한 "하느님 '백'"이 있기 때문이다.

《흑산》을 읽고



이하연 바실리아(컨그레셔널 구역)

내가 읽은 책 중에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책은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을 쓴 작가인 '김훈'의 소설인데, 신유박해를 배경으로 '정약전'과 '황사영' 등이 주인공으로, 제목인 《흑산》은 '정약전'이 '사학죄인'으로 유배된 장소인 흑산도를 의미한다.

'정약전'의 삼 형제와 처조카인 '황사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 삼 형제 중 막내인 '정약중'은 죽음을 불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반면, '정약용'은 '황사영'을 고발하고 배교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정약전'은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채 배교를 하고 유배지인 흑산도로 숨어 버린다. '황사영'은 신유박해의 참상을 백서를 통해 알리려다 능지처참을 당하고 순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약전'은 자신의 형제들과 '황사영'에게 천주교를 알려 준 장본인으로서 천주교로 인해 죽어 간 '정약중'과 '황사영'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흑산도로 유배된 그는 천주교를 계속 믿어야 하는 명분도, 버려야 하는 명분도 찾지 못한 채 섬의 물고기들을 관찰하며 《자산어보》라는 실학서를 편찬하고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낸다.

이 소설에서는 천주교를 구원과 믿음, 학문으로 여겼던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형제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황사영'의 젊은 열정,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여신도들의 희생, 비참한 현실의 돌파구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민초들의 삶이 너무도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그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숭고하게 그려 내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인간들로 그려 낸 작가의 솜씨가 참 놀라웠다.

특히 천주교 속에 담긴 진리와 박해 정신에 고무되어 학문으로서 천주교를 믿게 되는 학자들과 달리, 노비나 마부, 용기장이 같은 민초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비루한 삶에 유일한 구원으로 다가온 천주교를 본능적으로 따르는 간절함 그 자체였다. 그래서인지 민초들이 소설에서 항상 위우는 과부 '오동희'가 지은 '언문 기도문'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게 있어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주여, 우리를 매 맞아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

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주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거두시어 당신의 품 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 죄를 묻지 마옵시고 다만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이들이 벌을 받기보다는 신을 믿는 자신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하고 순박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슬픈 기도였다. 이런 바람은 간절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후손들이라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바라며 의연히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소설은 배론 성지에서 ‘황사영’이 발각되고, 배교한 신도의 밀고로 인해 숨어 있던 여신도들이 모두 순교하며 끝이 난다. 나는 항상 ‘황사영’의 순교 장면을 읽을 때면, 그와 비슷한 또래의 ‘김대건 신부’가 떠올랐다. 소설은 ‘김대건 신부’의 앞 세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열다섯 살의 어린 소년을 마카오로 보내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을 지켜 왔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 후에 돌아온 소년은 우리나라 최초 신부가 된 그해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순교한다.

‘황사영’이 신유박해를 겪으며 ‘배론’에서 백서를 썼던 그 마음과,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을 떠나는 ‘김대건 신부’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나라가 박해하는 종교, 그로 인해 순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 최초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낯선 이국땅으로 떠나야 하는 어린 ‘김대건’의 마음은 너무나 부담되고 두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신부가 되어 돌아올 조국은 예정된 죽음의 길이나 마찬가지로였을 텐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의연하게 떠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 최초의 신부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여 우리나라 천주교를 이 땅에서 지켜 낸 위대한 성인이심은 물론, 미국에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고향과 같은 이국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정겨운 성인이시며, 우리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의 수호성인이시기도 하다.

태어나서부터 성당에 다녔으니 나에게 성당은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도 일상적인 존재였던 나머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 메릴랜드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뉴욕 이타카라는 곳은 한인 성당이 없어 미국 성당을 다녀야 했고, 전례는 비슷했지만 강론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었다. 매일 쉬던 숨을 못 쉬는 느낌이었다. 답답하고 죄책감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성당에서 첫 미사를 드렸을 때, 귀에 익숙한 성가와 전례, 한국인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본당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을 아름답게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였다. 흔히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모습을 새긴 의미 있는 것이었다. 성당 창문에 새겨진 순교자들의 모습과 《흑산》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생애를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편안한 환경과 좋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 말미에 ‘정약전’이 물고기의 생태를 담은 책의 이름을 《자산어보》라고 짓자, 지인이 왜 ‘흑산’이 아니냐고 묻는다. ‘정약전’은 ‘흑산(黑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지만, ‘자산(茲山)’은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는 ‘어두움’이라고 했다. 아마도 배교한 자신과 순교한 동생, 어린 처조카를 보고 느낀 좌절감을 앞으로의 희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싶다. 가혹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는 의연한 마음으로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적인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흑산 표지

미쳐야 정상이다



조 이사벨라

요즘 나는 집에서 3.2마일 거리에 있는 '레이크 프랭크' 호숫가를 거의 매일 아침 한두 바퀴씩 조카뻘 되는 K와 걷고 있다. 어둑어둑 해 뜨기 전에 숲 속으로 들어서 5분쯤 걷다가 나무 사이나 호수 위로 선홍색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척 설레곤 한다. 숲은 걷는 방향이나 시선에 따라 처음 가 보는 낯선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서 매번 새롭다.

가끔은 뱀이 썩은 나뭇가지와 함께 등 뒤로 떨어지고, 길 위에서 S자를 그려 가며 깜짝 아침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여기저기 감추어 둔 먹이를 찾는 부지런한 다람쥐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기도 한다. 비가 오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흙길이며..... 이른 아침의 호숫가는 아주 매력적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호숫가 산책을 거르지 않는 우리를 보고 남들이 악의 없이 미쳤다고 하기에 "미쳐야 정상이다."라고 대꾸를 해 주었다. 한동안은 이렇게 근사한 길을 바로 옆에 두고 몸무게를 맘껏 늘려 가며 나는 무엇을 했을까 애통해하였다. 나이를 먹어 가며 가끔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양가 없는 심사다. 얼마 전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던 '나짐 히크메트'의 시에 이런 글이 있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훨씬 적을지도 모를 나에게, 이보다 더 위로와 용기를 줄 말은 없을 것 같았고 정신이 번쩍 들며 무척 기뻐다.

살아가며 내가 했던 선택 중 즐겁게 기억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라식 수술 직후 흐릿하지만 수술실 맞은편 벽시계의 작은 숫자가 보였을 때는 단연코 다섯 손가락 안이다. 김종수 요아킴 씨가 회장이었던 베드로회 회원들과 성당 마당 벽에 "참여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배너를 걸고 매 주일 지지고 부던 성전 건축 포장마차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모두 십인십색 서로 다른 입맛에 짜다, 싱겁다 하며 때로는 부딪치기도 했었다. 어떤 마켓에서 사온 토란대에 끼어 있던 독초를 익었나 보려고 입에 넣었다가 입이 헐어 죽을 것같이 아픈 와중에도, 만약 죽으면 식구들이 사인(死因)을 모를까 봐 종이쪽지에 “토란대”라고 크게 써 놓았다는 조 사비나 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다. 가끔 그 이야기에 파안대소할 때는 사비나 씨의 순수한 얼굴이 무척 귀엽게 느껴지곤 한다.

사람은 뒷모습이 가장 정직하다고 한다. 일하는 우리의 기분을 맞추어 주느라 친교실 부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두툼한 손으로 만두를 빚으시던 임승철 신부님의 넓은 등도 떠오른다. 사업 후 결산 때 생각지도 않게 결과가 좋으면 건너편 성모님상을 올려다보며 혹시 살짝 더 넣어 주셨나 하는 황당한 상상에 기뻐하는 회원들의 모습에 ‘자기들 사업이라도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참으로 많은 해프닝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독이며, 성당 일이라면 엄치 없어 보이거나 말거나 열성이었다. 사회성도 배웠고, 결단을 내리고 결과를 책임져야 할 단체장이 얼마나 외로운 자리라는 걸 알기에, 일 잘하는 단체장 뒤흔드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개개인의 독특한 장점들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톱니가 돌아가며 이가 맞아 가듯이 서로 배려하고 낮아지면 만사가 순조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깨우쳤다. 좋은 노력의 결과에 다 같이 행복했고,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열정을 갖고 함께했던 날들이 먼 훗날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며, 스스럼없이 서로가 각별한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도 미처 몰랐었다. 여동생이 둘 있는 김종수 요아킴 씨는 자신의 전화에 내 번호를 ‘세 번째 여동생’이라고 입력해 놓았다는 것을 얼마 전 부인 안나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들어 알게 됐다. 아마도 그 전화기에는 우리 회원이었던 여동생들이 여럿 있을 것 같다. 하여튼 그 시절 우리는 아주 곱게 미쳤었고 또 그것이 그때는 정상이었다.

얼마 전 본당 경로잔치에서 합창을 하시는 할머니들 중에 옛날 김치부대 분들을 헤아려 보다가 두세 분밖에 안 계신 것을 알고 세월의 무상함에 마음이 아팠다. 언젠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신 안나 아주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었다.

새 구두를 신고 간 첫날에 뒷굽이 벗겨지곤 하던 자갈밭 주차장이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뺨뺨 대며 지나가던 기차길이 있었던 내 젊은 날의 옛 성당이 가끔은 무척 그립다.

뜻깊고 은총 가득했던 한 해

박 스테파노

한 기억, 두려움과 심란함, 고마움과 행복, 기도, 은총, 편안함과 허전함 그리고……

나에게는 고집이 있었다.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조지아 주 에턴스(Athens)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조지아 대학교 옆에 있는 미국 성당 안에 한인 공동체가 있었다. 매년 회장을 뽑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추천해 줬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떠한 일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회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많은 분들이 해 보면 은총 많이 받고 하는 일도 잘될 거라고 설득했지만 끝내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던 터라 부담스러워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학생 두 명이 공동으로 회장 일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잘했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일 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결국 공부를 마치고 그 공동체를 떠날 때까지 나는 회장 일을 맡지 않았고, 그 일은 내 마음 한편에 짐스런 기억으로 줄곧 남아 있었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다른 주에서 이곳에 온 지 6개월 만에 구역장으로 선출되었다. 가족이 미리 이곳에 와 있어서 구역모임에는 일 년에 한두 번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6개월 동안 구역원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알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2012년 11월 구역모임에 가기 전에 아내가 “당신이 구역장 후보야!”라고 말하기에 “안 할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나는 그 짐스런 기억이 떠올랐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우선 내 마음에서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다. 그다음으로 아내가 나에게 자주 말했던 나의 고집스런 생각과 행동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진정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알고 싶었고, 내심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싶었다. 그래서 구역장으로 추천되었을 때 수락하였다.

두려웠다. 과연 내가 구역장으로서 일을 잘 해낼지. 심란했다. 그동안 내가 간직했던 고집스런 생각과 그로 인한 행동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는 고집이 세다. 10년 넘게 미국 성당에 다니면서 그 시스템과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한인 성당에 나가면서 그 익숙함을 뒤로 하고 새 형식과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덜컥 구역장이 되어 버렸다.

이런 두려움과 심란함을 추스르기 위해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했다. 나의 많은 근심 걱정들을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도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다. 신앙생활이 먼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바뀌어 버린 환경과 문화에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서서히 적응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주님께 슬픔을 드리고, 그로 인해 나 자신에게는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렇게 신실한 것도 아니니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니 혼자 끙끙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비록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때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전에는 기도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았다. 단지 나와 내 가족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 없는 이국땅에서 으레 다가가서 간구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이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었다. 그 와중에도 내가 대견스러웠다.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들어주셨구나 생각되었기에. 물론 기도에 경중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지위 고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구역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 먼저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구역장이 아니었다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만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역 행사가 있을 때 맑은 날씨와 무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이미 많은 구역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Thank God!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많이 내려 주셨을까? 어느 신부님이 CD에서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느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 곁에 있는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성호경을 우리 몸에 긋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아무리 많은 은총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해도 인지하지 못한 은총은 내 것이 아니다. 설사 인지했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단지 머리로는 알더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은총은 단지 내 주위를 떠도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이렇게 나는 많은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내 왔다. 그저 형식에 얽매어서 성호경을 긋곤 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뭔가를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총이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은총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인내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은총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이요, 아이를 만나면 순수함이 은총이요, 나이 지긋한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을 산 것으로도 은총이다. 은총은 전염성이 강하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만 한다면…….

한 해 동안 구역장을 하면서 나는 구역원들을 통해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다. 구역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체육 대회를 하면서, 점심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구역원들의 격려와 따뜻한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서로 도와가며 웃는 얼굴로 함께하는 모습에서, 가끔은 서먹하지만 금방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많은 은총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많은 구역원들 또한 은총을 많이 받았기를 바라본다.

구역장으로서 한 해를 마치고 첫 구역모임에 갔다. 부담이 없어서 편안해졌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기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총이었다. 내 아내와 아들이 나에게 정말 큰,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 은총 덩어리임을 새삼 깨달았다.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여동생 자매를 얻었고, 구역장이 끝나니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동생 형제도 얻었다. 이들이 나에게 은총 덩어리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럽다.

어느 신부님이 “가끔은 원본이신 주님보다 복사본이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순간순간은 아니지만, 가끔은 주님을 닮은 누군가를 통해 은총을 받아서 기뻛고, 자주 그런 은총을 받고 싶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끔은 그런 주님의 복사본이고 싶다. 나는 아직도 적응 중이다. 우리 성당의 환경과 신자들에게 적응 중이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적응 중이고, 내 아내와 아들에게 적응 중이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과 예수님께 적응 중이다.

끝으로 나를 구역장으로 불러 주셔서 좋은 구역원들과 함께하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청동색 외등

이택제 데레사

청동의 외등 불빛

노오랳게 달무리 지면

드넓은 숲은 황혼이 내리고

광활한 우주 대서양의 일각

목시록 펼쳐 놓은

'김대건' 성지의 적막한 밤이

질푸른 숲을 끌어안는다

구부정한 허리 노인들은

저마다 가끔씩 시려 오는 등을 펴고

고독한 침상에서

차츰 잠 속으로 빠져든다

그 길고도 짝막했던

행여 외로운 여정 속으로

가끔씩 신음하면서

잠고대처럼 망향을 달래며

가슴 안에 호롱불 땡기곤

설친 잠으로 새벽을 맞이한다

다리 저는 할머니 목발을 짚고

육천 매듭 조금씩은 닳아서 해져

목마가 살불이가 되어 버린 할아버지

주마등같이 땀돌아만 가는

회오리 파고를 넘어

다난했던 인생 향해

희끗한 머릿속에서

이제 외길 향해

노 저어 가는 일엽편주

달줄 감아올리는 과종시계의
짜깁거리는 베킷머리 영상보다
부지런히 새벽길 찾아 나선
눈빛 마알간 사슴 한 마리 서성이면
노인들의 어둠이 지킴이 사향의 달
청동색 외등 불빛도
깜박 눈을 감는다

바야흐로 가지 무성한 산수유나무 숲으로
희망이란 이름으로 점화되는 붉은 태양이
노인의 복지 앤드류의 숲으로
유유히 솟아오른다

성경 필사



김숙이 브랜디나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이 세상에 왔노라.”

저에게 있어 첫 번째 신부님인 이철호 암브로시오 신부님이 옛날 교리 문답 1장이라며 강론 때 하신 그 말씀은, 그냥저냥 아무 생각 없이 성당에 나가던 저에게 성경을 쓰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알아야 믿지.’라는 생각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었지만, 깊이 못한 신앙심으로 인해 얼마 못 가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성전 건립 등 열정적으로 사목하신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부임으로 할머니들은 김치를 담가 기금을 모으는 등 전 신자들이 성전 기금 모금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 에이지 그룹 베드로회(현 토마스회)에서는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은 성당으로 해 밤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어 기금 마련에 힘을 모았지만, 저는 볼티모어에 새로 오픈한 빨래방을 아침 7시에서 밤 9시까지 주 7일간 운영하는 관계로 친구들과 함께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가게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성당에 가 있었기에,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면서 ‘그래,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자.’는 생각으로 신부님을 위해 ‘사제를 위한 기도’와 봉사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화살기도와 묵주 기도를 했고, 처음에는 나도 봉사에 동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기도에는 힘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있음을 느낄 즈음에, 언제 들었는지, 언제 읽었는지(아마 미사 때 수없이 들었던 복음이었던 것 같음),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생각이 스쳐, ‘그래, 성경을 적으면서 기도하자.’는 생각으로 다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쓰기 전 “주님, 수익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쁨 충만하여 봉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고, 간단한 기도였지만 저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지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 참여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는 수익 사업의 플래카드로 만들어졌고, 그 플래카드는 기쁘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기도와 함께한 필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답니다. 1999년 대림절 즈음, 마침 임승철 신부님이 전 교우 대상으로 성경 필사를 하게 한 그때, 저는 이미 모세 오경을 다 적어 놓았기에 2년 6개월 6일간(1999년 1월 18일부터 2001년 7월 24일까지)에 걸쳐 끝낸 성경 필사 원본을 새 성전 제대 밑에 교우들의 필사본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 해 주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골로 3,17)라는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진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봉사하시는 교우들의 기쁨을 보았기에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엔 힘을 얻고자 성경 필사를 했는데, 주님께서서는 성전에 봉헌할 수 있는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지! 그 일은 저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였고, 그래서 저의 아픈 마음은 그때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위해 누군가가 한 만큼 성전 건립 기금을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이라 신용조합에서 3년 상환으로 용자를 받아 봉헌했는데, 1년 반 만에 용자금을 완불하게 하였고, 2차 봉헌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동안 있었던 본당 설립 25주년 행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M.E. 식구들이 정말로 많이 수고했고, 각자의 큰 봉헌(행사 상품들)과 40명이 넘는 부부들이 하얀 M.E. 티셔츠를 입고 성전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그 시간들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영화 필름처럼 스쳐 가는 기분 좋은 영상……. 15년 전 임승철 신부님이 25주년 행사를 M.E.에서 맡으라고 그해 7월 10일에 말씀하셨고, 3개월 동안 준비하여 10월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 단체 주관으로 11만 달러라는 금액을 바자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임승철 신부님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전 교우들의 동참으로 이루어 낸 성과였지만, 그 당시 <평화신문> 등에서 저희 부부가 대표로 과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칭하면 넘치도록 채워 주는 사랑이십니다. 그 시간 저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칭하는 바를 주시리라,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시편 37,4-5)란 말씀에 힘을 얻었기에 지금도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성경을 쓰는 동안 한 가지 더 큰일이 있었습니다. 구역모임에서 술을 한 잔 마신 남편이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차는 구겨진 빈 깡통(그 사고로 폐차)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앰블런스로 병원에 옮겨진 남편은 손가락 하나 상한 곳 없이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1박 2일 레지오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차 운전자는 아마 죽었을 거야.”라고……. 인자하고 사랑 깊으신 성모님의 손길이 남편을 보호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차를 구입한 후 차 안에 작은 성모상을 모셨고, 목주를 걸어 놓아 그 차를 탈 때면 항상 “저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오니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며 목주 기도를 바쳤는데, 어머니는 저의 기도를 주님께 전구해 주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목주 기도는 주님의 생애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관상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고통까지도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저는 23년 근속 레지오 단원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의 크고 작은 고통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바치는 매일매일의 목주 기도는 저에게 있어 완전한 기도였기에 어떤 지향으로 올리든지 빠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기도로 만족해하는 생활이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 속여까지도 함께하시고 크나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찬일 안드레아 신부님이 본당에 재직하시던 당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저희 본당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총구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본당 미사 때 자리 배정, 친교실, 부엌, 다과 등 이것저것 신경이 쓰여) 추기경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다음 날인 월요일 사제관에서 추기경님이 신부님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 “양 신부, 저 말괄량이 성사 줘.” 하시며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저에게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제관의 미사에, 감히 평신도인 제가 추기경님과 마주 앉아 드린 그 거룩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추기경님이 사제관에 머무셨던

며칠간 식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며 보냈던 시간은 지금도 추기경님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되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구역장으로서 봉사하면서 참 즐거웠지만, 저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되지 못해 섭섭할 때면 이사야서 49장 4절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 주님을 믿고 봉사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앞자리에 앉아 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써 내려간 성경 필사를 제대 밑에 봉헌했던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은 깊은 감동이 저에겐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 사랑하는 딸, 엄마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엄마를 배려하던 제 딸을 하늘 나라로 데려가셨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일 년 동안 매일 미사를 다니며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알고 있는 교우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어 미국 성당에 다니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미사가 끝나면 매일 미사 책 복음 묵상을 하였는데, 성체 앞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서는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의 주님께서서는 성모님의 고통을 보게 하심으로써 저의 고통에 동참하시어 제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셨기에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많이 아파야 할지 모르는 효성이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리고 딸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엄마의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에 주님께서서는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하늘 나라로 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껏 주지 못한 사랑, 성모님 품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은총 또한 받았지만, 그래도 아련한 그리움은…….

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눈물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건네준 기도 책 《치유를 위한 복음의 열쇠》(이인복 마리아 지음)에서 읽은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찬일 신부님이 쓰신 몇 권의 강론집 또한 저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에게 닥친 큰 아픔과 슬픔을 이기려고, 신부님의 강론집에서 읽은 “고통은 자기 자신의 부활이며 기쁨의 구원이라는 은총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신다. 고통에 직면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를 때 구원과 참자유를 얻는다.”는 말씀과, “고통은 또 다른 은총의 시간”이란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론집을 읽으면서 성경 필사할 때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했던 몇 년 동안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을 즈음에,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 부임 후 “성경의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 삶의 중심이 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로 신부님은 신약 필사와 봉독을 권하셨습니다. 신부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필사하면서 힘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친정어머니가 중병으로 널싱홈에 있을 때였음)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제 엄마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엄마의 삶 속에서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보속으로 이 시간이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지향을 두고 신약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어머니를 하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필사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신 것은 지금 나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 전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이 미사 강론 끝에 묵상하게 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마태오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 필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으면서, 저에게 있어 필사 전과 지금 달라진 점은 미사에 참례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면 먼저 “주님, 저에게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란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의 전례에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거룩한 성찬의 전례에선 찬미와 영광을 느끼고,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내 삶을 반성하고, 기쁨과 희망을 느끼면서 정성되이 드리는 미사는 저 브랜디나에게 평화를 줍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 105). 그대가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필경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 《치유를 위한 복음의 열쇠》 중에서 -

성우회 짝꿍들

본당 교우

신랑에서 남편 그리고 영감님, 한낱한시에 부부가 되어 살아온 반백 년 세월, 서로 끔찍이도 다른 성품으로 만나 티격태격 바쁘게 살아왔다. 한 친구는 대학 축제 때 만나 연애 4년 만에 성공적으로 결혼까지 한 그런대로 우리가 부러워했던 커플이었다.

어느 날 35년이란 긴 공간과 문화적 생활 패턴을 뛰어 태평양을 넘어온 전화 목소리, “삼식이, 밥 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재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남편, 젊어서는 임금님 상투 끝자락보다도 보기가 어려웠던 남편과 매일 붙어 다니며 재래시장을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용돈을 벌려고 푸성귀 몇 단을 늘어놓고 잇기에 팔아 줄까 해서 사고 있는데, 저것은 싱싱하고 이것은 시들하고 덤으로 더 달라드니 어깨너머로 참견을 하는데, “이 남자 재벌 회사 사장, 명문 대학 나온 사람 맞아? 이 남자 이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하늘이 부영게 되더라.

인터넷에 떠오른 덩어리 시리즈 한 편. 옆에 있으면 웬수덩어리, 같이 나가면 골칫덩어리, 혼자 나가면 걱정덩어리, 이진 바로 나야. 요즘 주택은 부엌, 사랑방, 안방, 구조상 입식이라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한 열린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달다, 짜다, 싱겁다, 우리 어머니는 조기에 참기름을 발라서 팬에 노릇노릇하게 굽고 김은 들기름에 구워야 바삭바삭 맛있다.’고 하더라. 팔순을 코앞에 둔 영감이 친사가 되어 있을 어머니의 손맛 타령이다.

칸칸이 문을 닫아 재래식 주택으로 바꿀 수도 없고, 미국에 살고 있는 노부부들, 꼭 무인도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그나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덕분에 성당에 나가는 것이 일주일의 화려한 외출이다. 성우회 영감님을 기다리는 테이블의 할매들. 어느 분이 성우회 짝꿍이라고 핏말을 놓아 주었다.

어느 할매는 맞선도 보지 않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사주단지 받고 바로 결혼한 사람, 스토커처럼 열렬한 구애 때문에 결혼한 사람.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마워서, “여보 영감, 사랑해!” 하면 “원, 새삼 쓸데없는 소리.”, 아니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허튼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란다.

친정에서 시집가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는 광신 김씨 진골이란다.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란다. 남편 그림자도 밟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걷고,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너도 모르게 그 집 귀신이 되어 있을 거야.”

남편 하늘에다, 인공위성에다, 로켓에다, 우주 정거장까지……. 하늘은 오염되어 가고, 값을 헤아릴 수 없이 치솟는 땅값, 바람과 풍랑과 지진, 쓰나미 파도 등 날씨는 동네와 마을 사람들을 집어삼키면 자연 재해라고 한다.

그래도 50년 가까이 해로하고 사는 성우회 짝꿍들. 다 낡은 고무신짝이 벗겨질 때까지 영감님과 함께 대지 품으로 갈 때까지 가 봅시다.



올니의 마지막 보금자리

남은숙 루시아

하느님이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신 반세기에 가까운 40년 역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작은 씨앗을 뿌려 하느님의 섭리로 이곳 올니 성당으로 오기까지 40년 흐름에……

저의 마음 빈 땅에 세레라는 작은 씨앗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햇수도 4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꿈도 한 올타리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져 성 김대건 안드레아 공동체가 한 알의 씨앗으로 뿌려져 놀라운 생명력으로 잘 자라서 이제 숲을 이루고 자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2세, 3세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어 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 신부님들 사목 방침으로 이곳 올니로 이전해 오기까지 공동체 각자에게 심어졌던 작은 씨앗들을 모아 누군가는 물을 주고 또 어떤 이는 거름을 주고 고랑을 파고 주님께서는 햇빛과 비, 공기를 쉴 새 없이 주시고, 또 우리 성당 우리의 힘으로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날이면 어느 대갓집 잔치 분위기로 즐겁게 목주 한 알 한 알 벽돌 한 장 또 한 장 봉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업에 최선을 약속으로 씨앗 한 알 키우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어 이제 40년 된 나무로 우뚝 섰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성장해 온 믿음의 공동체에서 알알이 익어 가는 가을의 결실과 같이 우뚝 선 도성에서, 그리고 믿는 이로써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분 안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은총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이룩한 40년 역사 안에 조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어려움도 마다 앓고 이제는 두고 온 조국보다 모든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신부님의 권유로 2013년에 전 신자가 함께 한 성경 필독, 성경 필사의 기회는 은총의 나날이었습니다.

하느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어제는 무사히 지나간 날이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새로 주신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무는 햇살을 붙잡고 씨앗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성경 필독과 성경 필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소풍이 끝나는 날 제가 필사한 성경 말씀을 하느님 앞에서 읽을 성경을 가져가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준비된 마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의탁합니다.
아멘.



울니 성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선교라면 점쟁이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동철 미카엘(포토맥 구역)

저는 중1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영세 입교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부모님은 평안북도에서 피난 온 가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른들의 연극과 수녀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에 친구들과 복사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라틴어로 통회 기도 등을 외워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뜻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메아 꿀바, 메아 꿀바, 메아 막시마 꿀바.”입니다. 번역하면 “제 닻이오, 제 닻이오, 저의 큰 닻이옵니다.”입니다. 대미사 중 복사들끼리 떠든 죄로 신부님께 꿀밤을 먹었습니다.

연젠가 도봉산을 넘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 미리 친구 집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사방으로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의 생사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아드님은 무사하다.”고 하며 덧붙여 말하길 신앙을 가지라고 했더니요. 그 후에 어머니는 천주교에 영세 입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선교라면 점쟁이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저는 영적 독서 중에 “사람은 우연히 창조되지 않고, 아주 세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메커보이 신부님의 글에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재속 3회를 할 때로 기억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면 좋겠구나.’ 하는 꿈을 꾸고 나서는, 거의 2주일 동안 저는 희열을 느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 아프리카 수단을 위한 기도문 중에 “현존하는 성모님”이란 구절에서 ‘성모님이 현존하시나?’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느 신부님께 질문을 드리니 신부님은 당연히 현존하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성모님은 원주민 모습으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후안 디에고는 주교님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증거를 원합니다. 장미가 없는 철에 장미를 가져오라고……. 후안 디에고는 이 사실을 성모님께 고합니다. 성모님은 장미를 마련해 줍니다. 후안 디에고가 다시 주교님 앞에 나아가 장미를 바치는 순간, 후안 디에고의 망토에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이 박힙니다. 주교님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망토는 40년이면 삭아 없어진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과달루페 성당엔 이 망토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멕시코 전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존하시는 성모님이 저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기에 저는 믿습니다. 신앙 체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르던 옥수수밭 위의 하얀 십자가

이지현 데레사(베데스다 구역)

잔칫날 받아 놓은 신랑 신부처럼 우리 본당 교우들은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다가올 주일의 날씨가 어떠할지, 하는 일은 뒷전이고 그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본당 큰 행사 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큰 관심거리로 그 일에만 머릿속이 꽂 차 있었다.

너무 넓어 언제나 끝이 보이질 않아 다 보기에 어려웠던 푸르던 옥수수밭. 그때 그 시절 그곳을 지나다닐 때 처음에는 옥수수밭인지 콩밭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봄에는 연녹색의 작은 잎으로, 여름엔 뜨거운 태양 아래 무성한 잎과 그 사이로 솟아나는 갯고리를 보고, 그제야 옥수수밭인 줄 알았던 우리. 푸르던 그 옥수수밭이 우리 땅이 되어 그 광대한 대지 위에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가 우뚝 세워지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꿈엔들 알았으리요.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은 하느님께서 이곳 우리 워싱턴 한인 공동체에 특별히 내려 주신 은총이라 생각한다.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리도 바랐던 모든 기대는 허사였다. 행사 주일 아침부터 쏟아지는 장대비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야속하다는 생각에 짜증도 나고 눈물까지 핑 돌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그날은 옥수수밭이 성당 땅이 되어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이곳 교구장님이신 제임스 히키(James Hickey) 추기경님을 모시고 삼으로 첫 흙을 떠 집짓기를 시작한다는 뜻깊은 개토식 날이었다.

토질이 좋고 비옥한 땅이라 비가 오니 붉은 흙이 범벅이 되어 말이 아니었다. '추기경님의 그 깨끗한 옷자락에 흙탕물이 튀어 얼룩이 지면 어쩌나, 추기경님을 따라오신 수행 비서 신부님의 까만 수단 자락에도 흙탕물이 튀어 얼룩이 지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은 비 쏟아지는 것 빛 하늘보다 더 어두웠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성당을, 멋진 성당을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치단결하여 쏟아지는 장대비를 막아서라도 오늘 행사를 치러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본당 총회장님 진두지휘 아래 일사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 한 방울 못 들어오게 천막을 치고 추기경님 옷 버릴까 완성된 성당 안에 양탄자 깔 듯 둔장을 다 모아 착착 접어 깔고, 고무 비닐 장판까지 구해 고속도로로 깔 듯 우리는 그 비를 맞아 가며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교우들은 우산, 우비 그리고 장화까지 완전 무장하고 그 질퍽거리는 옥수수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표정들은 '이 정도 장대비쯤이야 뭘,' 하는 것 같았다.

미사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쯤 언제 봐도 아기 천사처럼 예쁘고 친진난만해 보이는 추기경님이 도착하셨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교우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느님이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직접 성수를 뿌려 주시는 겁니다."라고 웃으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정말 기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추기경님을 환영했고, 좋고 또 좋아서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려 가며 뜨거운 눈물을 닦아 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추기경님이 첫 삽을 떠내신 그날 이후, 우리는 성당 짓는 일에 모든 힘을 합쳐 돈 되는 일이라면 도둑질 말고는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불사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밤에는 성당에서…….

성전 건축위원들은 밤새는 줄 모르고 더 좋은 성당을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고, 김치부대 할머니들은 한 손엔 목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무, 배추와 씨름하시며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으로 새 성전만을 생각하셨다. 에이지 그룹 회원들은 주중에는 서로 전화로 메뉴를 정하고 주말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먼저 성당으로 달려와 씻고, 썰고, 익히고, 버무려서 훌륭한 음식을, 아니 예술품을 만드는 데 열중하셨다.

칼에 손을 베어도, 뜨거운 물에 손을 데어도, 일하다 넘어져 다쳐도, 우리는 "멋진 새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 이쯤이야." 하며 서로 만져 주고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 주며, 그래도 환하게 웃어 가며 열심히 일했다. 우리의 새 성전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어지고 있었다. 땀으로 얼룩진 그 얼굴들 위엔 삶의 의미와 보람도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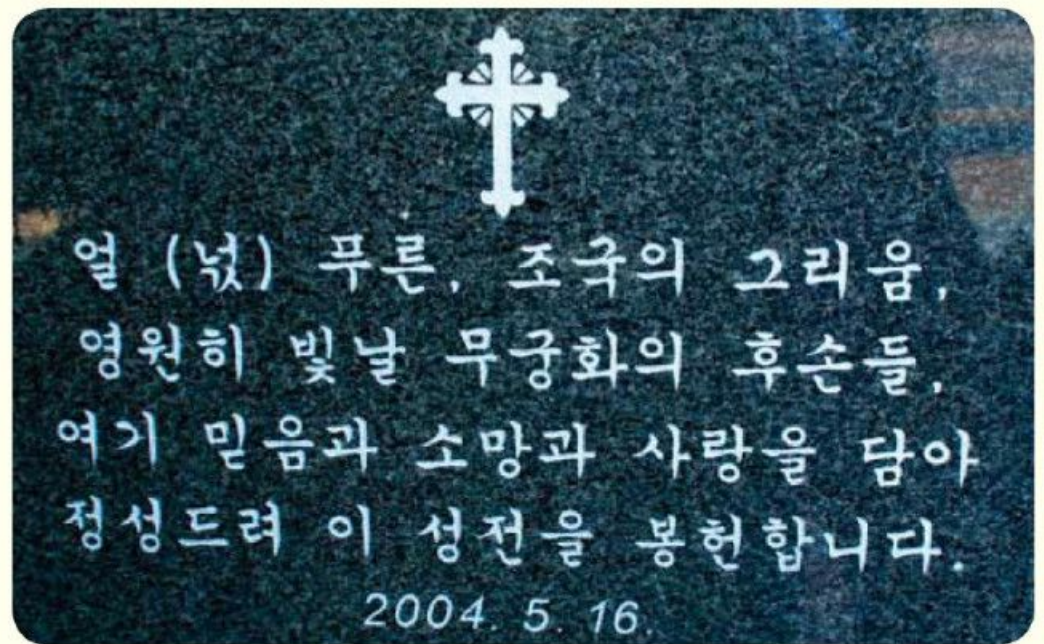
지나간 시간 속에 가 버린 날들은 퇴색되어 빛바랜 종이처럼 희미하지만 성당 높은 지붕 위에 하얀 십자가가 보이며 성전이 완공되던 그날,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그 승리감 어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으리오, 누군가 나를 붙잡고 당신이 지금껏 살면서 생애에 어느 시간이 가장 잊을 수 없는 때인지 묻는다면, 나는 올년에 있는 한인 성당을 지을 때 하루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살면서 아버지 하느님 일에 부족하나마 나 자신을 봉헌하면서 다 함께 땀 흘렸던 그 시간들! 다른 곳에서는 감히 찾을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그 환희와 기쁨, 감사의 시간들을 맛보

왔던 그 순간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 태어나 그 무슨 일을 하였다 한들 이렇게 가슴 뜨겁고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성당 앞 푸른 잔디밭 위로 저녁노을이 질 무렵 한가롭게 뛰어노는 사슴 가족들의 풍경은 언제 봐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다.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고요와 여유로움…….

언덕 위의 높고 큰 집, 우리 성당!

이 터가 지금 이곳에서는 제일 으뜸이란다. 바람도 더 시원하다.



예수 성심을 찬미하오며

김금순 마리아(로렐 구역)

6월

뜨거운 태양 아래
타오르는 불가마 같은 성심의 사랑이여,

창끝에 찢린
피맺힌 성심 앞에 엎드려
저는 부르나이다, 찬미의 노래를.
'나의 주는 사랑에 눈먼 하느님이시다.....'

죽음에서조차 눈감아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내어놓기조차 부끄러운 티끌만한 저의 사랑을,
그래도 어여삐 보아 주신다면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받아 주십시오.

힘없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숨는 달팽이처럼
저의 이름 어느 날 당신께서 부르시면
놀랍고 떨리어 숨 막히는 가슴
껍질조차 없는 빈 몸, 얼굴 두 손으로 감싸오며
당신 품으로 숨나이다.

햇빛만 보면
저절로 힘이 나는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으로 목마른
당신 이름 부를 때면
저도 겁 없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핏빛 붉은 성심 내 보이시며
불타는 사랑 드러내실 때
아, 저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홀딱 빠져 버렸나이다.
사루비아 꿀보다 더 진한 달콤함에 녹아
그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의 사랑도 아뢰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와 워싱턴 한인 성당

본당 청년

미국에 온 지 3일 만에, 낯선 나라의 호텔에서 네 식구가 조촐하게 맞은 2002년 새해는 참 외로웠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각종 설음식 냄새와 대가족의 왁자지껄한 안부를 묻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어찌어찌하여 2주 만에 어렵사리 구한 집 거실에, 우리 네 식구, 개 두 마리가 용기종기 모여 누워,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밤새도록 수다를 즐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집이 최고고, 무조건 모이면 산다고 네 식구가 입이 마르도록 파이팅을 외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한 달쯤 후에야, 여기저기 물어 소개를 받은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칼리지파크에 있던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은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던 저는 한동안 성당에 가지 못해 가족의 이야기만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미사를 낚은 분교 같은 건물에서 본다고? 기차길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데 미사할 때에도 기차가 덜컹덜컹 지나가 시끄럽다고? 미사 후엔 그곳에서 밥도 판다고?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제게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뉴욕의 시내가 전부였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한 미국 드라마 <달려라, 레시>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기대에 가득 차 마침내 보게 된 성당은 가족들이 묘사한 그대로라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의외였다면, 푸른 풀밭이 펼쳐진 들판은 아니었던 것 정도?

부모님과 교중 미사를 보러 다닌 지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국말을 주로 쓰는 청년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운전면허도 땀꿔다,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성당 청년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한국인 친구들이 그리웠던 저에게 성당은 갈증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소해 주는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밤'에 우리가 지어낸 창작 연극도 올려 보고, 성가대 공연으로 모금해 자선 단체에 기부도 해 보고, 직접 청년회장단의 멤버가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다른 이들이 즐기는 모습에 가슴이 뚫히지는 것도 느껴 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나만의 테두리를 갖고 다양한 연배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앙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회'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당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이 많은 한인 친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을까요? 기쁨은 가족 만으로 충분치 않은 위로와 응원을 성당에서 받아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해에 받은 견진성사는, 대학 입시와 이민 문제로 바쁘고 정신이 없던 시기에 욕심을 내어 급하게 받은 터라 부끄럽게도 기억에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성당 활동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미사에 나오면서 신자로서 미사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고, 성가대에 참여하면서 미사 전례를 배웠습니다. 레지오 단원이 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회장단에 들어가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 구절이 친숙하게 들렸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워진 저 자신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당을 '제2의 집', 교우분들을 '성당 식구'라고 부릅니다. 부모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세상 어디를 가 보아도 내 집이 최고'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일 저희 집 현관 앞에서, 그리고 매번 성당 입구에서 실감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극심한 경기 악화와 기상 이변 속에서도, 교우분들이 힘을 모아 앞다투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모이면 산다'는 말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당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며 신나게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변함없이 교우들을 성당으로 모일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과 함께한 나의 광야 생활 40년



장석영 스테파니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 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신명 8,2)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글을 쓰려는 저와 이 글을 읽어 주실 귀한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흔히 광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밤에는 추위가 뺨속까지 스며드는 고통과 시련의 척박한 땅에서 목마름과 배고픔만 있는 시간을 떠올리지만, 우리 본당과 함께한 나의 광야 생활 40년은 그토록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했던 것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주님 백성으로 성숙되는 데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곳곳에서 한두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여 한국에 잠시 머무셨던 외국 신부님과는 DC 내셔널 슈라인 성당 한 모퉁이를 허락받아 미사를 여러 번 드렸었고, 또 워싱턴을 지나가시는 한국 신부님은 누구라도 측은지심으로 저희를 위해 미사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성당 한편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하물며 공원에서라도 저희는 매주 아니면 격주도 마다 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착해 주실 신부님과 미사를 드릴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겨자씨의 결실인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저희는 칼리지파크에 있는 폐쇄된 초등학교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빌려 쓰던 좁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움츠렸던 우리 아이들은 드디어 넓은 공간에서 힘차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밀려오는 교우들과 새 신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버지니아 교우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교무금과 성전 건립 기금을 따로 모아 주면서 섭섭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만 했던 정든 교우들! 마침내 버지니아 알링턴 교구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인내, 사랑, 믿음으로 저희 공동체는 메릴랜드 주 올니, 광활한 부지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도 올니 성당에 첫발을 내딛던 그날의 감격, 40년 동안 주님은 그렇게 본당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추억이며 또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초창기라, 또 얼마 지난 후엔 새 도약을 위한 성장통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느 해엔 두 번씩이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지요. 외롭고 고달픈 이민 생활의 애환까지도 손수 달래 주시느라 <향수>라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울어 주셨고, 김수희 마리아 자매님의 <애모>를 하느님 사랑으로 가사를 바꿔 들려주셨던 따뜻한 분. 빵도 함께 나누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추기경 서임되신 몇 년 후부터 은퇴하신 후까지도 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워싱턴 한인 성당을 결국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영세도 받고 혼배도 했던 명동 성당을 한국 방문 때마다 들렀고, 언젠가 그곳 추기경님의 집무실에서 차 한잔할 수 있는 만남도 가졌습니다. 추기경님은 여전히 다정다감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며 뜨겁게 강복해 주시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후 1주기 맨 용인 성직자 모지를 한나절 동안이나 찾았습니다. 언젠가는 성인 대열에 함께하실 추기경님을 위하여 위령 성월 한 달 동안 연미사도 드리고 매일 연도도 바쳐 드렸습니다.

누구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던 새 천년이 시작되던 그해엔 왜 그리도 절박하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하고 싶었던지, 십자가의 친구 몇 명이 의기투합하여 봉사자를 찾았고,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오랜 세월 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너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봉사자로 파견해 주시니 순간순간을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살게 된 것은 본당과 함께한 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었습니다.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
라고 하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 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준 불가동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였고,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동은 미사 중
에 듣는 말씀과 성체였습니다.

본당과 함께한 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느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제 영혼의 양식임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한순간도 떨어져 나
가지 않고 본당 공동체에 한 지체로서,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구원의 확산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위령 성월을 보내며

한국 성직자의 수호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유태 사도 요한 5학년

우리 성당 이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이다. 우리 성당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내에서도 역사가 깊은 한인 성당이다. 나는 3년 전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고, 이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첫영성체도 하고 또 복사도 되었지만, 우리 성당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부님 이시고,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성 김대건 신부님을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성당이 매우 많다는 정도였다. 루카 신부님께서 우리 성당 40주년을 맞아 주일학교에 대해 글을 써 보라고 하셨을 때 너무 막막하였지만, 우리 성당 주일학교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성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뻐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 솔피, 순교자 가정에서 태어나 1846년 9월 16일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느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조부 김진후는 1814년에, 그리고 1816년에는 백부 김한현이 순교하였고, 1839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인 김제준 이냐시오가, 그리고 1946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시어 3대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소년 김대건이 15세가 되던 1836년 한국에 부임한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님은 한국인 사제를 만들기 위해 세 명의 신학생을 뽑게 되었는데, 바로 김대건, 최양업과 최방제였다. 그들은 7개월간의 힘든 길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하였고,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신학, 철학 등 본격적인 신학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열병으로 숨지고 김대건과 최양업만이 신학생이 되었다. 김대건은 1845년 1월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하였지만 천주교 탄압이 거세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후, 같은 해 8월 사제품을 받아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었다. 김대건 신부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전국을 다니며 전교 활동을 하였지만, 다음 해 관군에 붙잡혀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시어 짧지만 굵고 빛나는 생을 마감하였다.

나는 김대건 신부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신부님에 대한 자료도 읽고, 한국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19세기에는 종교의 자유는커녕 희망도 없었구나! 김대건 신부님께서서는 정말 천재셨구나!’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생겼다. ‘그는 왜 신부님이 되기를 원했을까? 어떻게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부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 곧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은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까지 능통하여 큰 관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배교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시며 단 한 번도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순교하고 친구가 죽어가는 슬픔 속에서도 그들의 몫까지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성당에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복사도 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기도도 꾸준히 하지 않고, 기도보다는 게임이나 놀이가 더 좋고, 조금만 아파도 참을 수 없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부님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여셨다. 내가 만약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정말로 나는 작은 고통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김대건 신부님과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천주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의 자유로운 신앙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짐해 본다.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 순교 성인들을 본받아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요일 아침에는 주일학교에 가야 한다



김별(Jasmine) 이사벨 11학년

내가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나도 성당에 오래 다녔다. 내가 주일에 성당에 가는 이유는 단지 부모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일학교에 늦으면 엄마 탓을 한다. 가끔 나 때문에 늦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가 원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일 아침마다 주일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나는 여섯 살, 1학년 때, 주일학교에 처음으로 갔다. 메릴랜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성당에 학교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때는 주일학교가 친교실에 있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두 친교실에 모여서 하느님에 대해 배웠다. 솔직히 처음에는 낯설었다. 평소에는 밥을 먹는 식탁에서 모든 학년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톨릭에 대해서 배웠다. 나에게 주일학교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고, 주일학교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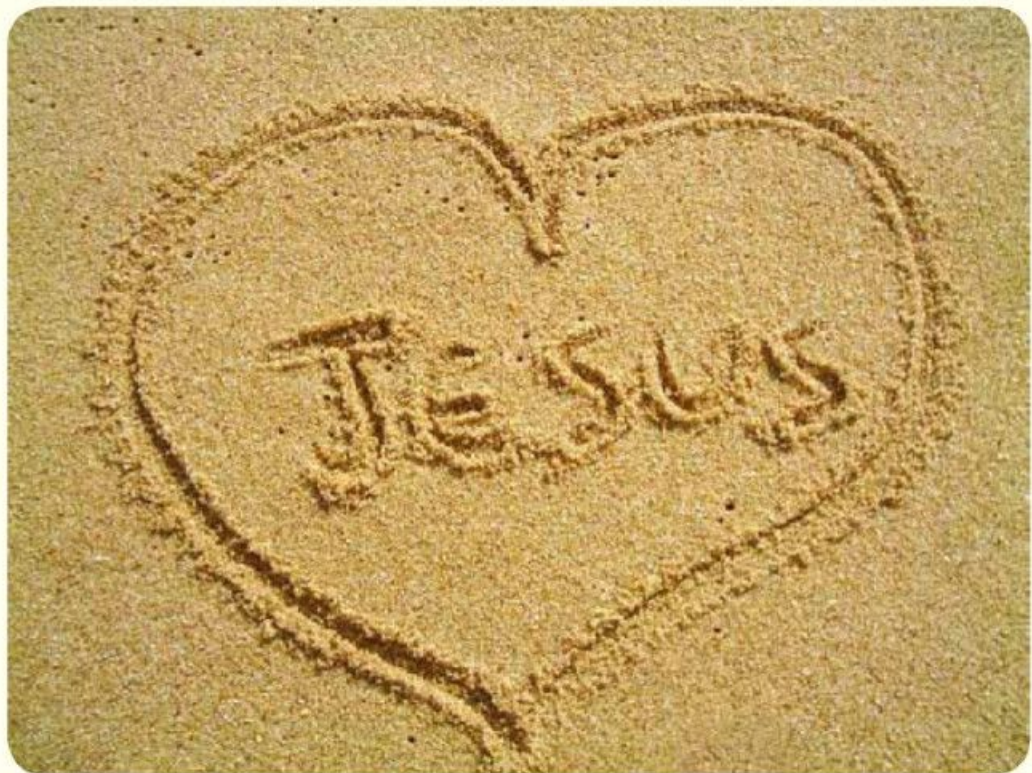
주일학교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례도 못 받았을 것이다. 2004년 크리스마스 때 나는 엄마와 쌍둥이 동생이랑 세례를 받아 드디어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날 1학년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셨는데, 목주 팔찌를 선물해 주셨다. 나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과과는 다르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들은 성당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리 생각과 기도도 많이 하신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세례받을 때 함께 있어 주신 1학년 선생님께 감사한다.

내가 주일학교에 가는 또 다른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과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성당에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보고, 미사에 참석한다. 10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친해진 것 같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친구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같이 피정 갈 사람도 없고, 미사에서 손을 잡아 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신자들이 늘면서 우리 성당도 커졌다. 교육관이 생기면서, 이제 친교실이 아니라 교실에서 주일학교를 한다. 밥 먹는 식당이 아니라 책상에서 칠판을 보면서 공부한다. 모두가 주일학교를 기다렸고, 선생님과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들도 늘었다. 특별한 날에는 같이 연극을 하고 피정도 가고 캠프도 간다. 모든 것을 할 때 하느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

내가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주일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주일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친교실에서도, 교실에서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믿는다. 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다닌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



Altar Serving at St. Andrew Kim Church

권나현 크리스티나

Honestly, I started altar serving for no apparent reason. Maybe it was because my mother had suggested it or my brother altar served before. Maybe it was because I was bored in mass, so if I serve at the altar, I actually have something to do in mass. Maybe it was because I just wanted to try it. But as I learned more in depth about altar serving, I understood what it took to become an altar server. My feelings toward God became more serious and holy. I became a different person. Besides, I had the time of my life.

When Father Bang was a priest at our church, he gave us an assignment to write a paragraph about why we became altar servers. I was a 5th grader at that time and I really did not know what to write. But after thinking for a while, I realized a very important reason for why I joined: To be closer to God. I know that sounds obvious, but there is a deeper meaning. It means that when I confess my sins, my sins will be heard more.

I can be more comfortable with God. I fulfill one of my biggest purposes in my life: to serve God. Altar servers are like Jesus' disciples. They served him and spread the Word of God. Even after Jesus Christ's death, they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of God and served him with strong belief and faith. They had that privilege to do so. Altar servers have the privilege too. We serve God by helping the priest in mass, and we spread the Word of God by showing the mass participants our service to God. Altar servers have a special and important place as Catholics.

My experiences serving the altar have been amazing. My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have been closer and more comfortable. I have become closer to my priests. My relationships with people have become more flexible and comfortable. However, I had to sacrifice something especially time. Training takes time and learning the procedure takes

a few days to register in my mind. Time is precious and valuable to everyone. With time people can do their business or do something relaxing.

One may think that altar serving is not that hard to do, but it can be difficult. Memorizing all those steps and carrying precious things can be pretty pressurizing. Moreover the lights are on the altar and everyone is looking at you and looking up to you. I also felt a “new” kind of nervousness. What if I mess up? Everyone will see! What if I forget? What if I trip on the altar? Being on time is a huge issue in altar serving. Since masses are usually in the morning and Sunday is a day where there is no school, I tend to wake up a little late and I have to rush to get to mass. Furthermore altar servers have to arrive 20 minutes before mass starts!

Despite the sacrifice and pressure, I just had a lot of fun as an altar server! When I am nervous in mass, I can always glance up to my friends who also serve at the altar and be reassured that I am not the only one who is nervous. I can always catch a smile from them then I feel that one slowly creeps up on my face too. Especially, all those amusement parks and retreats are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 can just relax and forget about all my worries and just hang out with my friends.

Being an altar server is like being a snowman. I know that sounds a little funny, so let me explain. A snowman is made in the winter, a fresh new life. A snowman also serves a purpose. That purpose is to put a smile on people’s faces and make the winter fun. As the spring comes, it melts, but it does not disappear. Although its body melts, instead of disappearing, it turns into water and soaked into the ground. Now the snowman is in the ground. Its purpose is not over yet. Its water makes flowers and trees grow and it will be there forever, improving people’s happiness by making a beautiful world of flowers and trees.

As altar servers, we are made as God’s servers. We serve to fulfill mass and to help the worshiper feel more holy to God. Even though we turn old enough to graduate and we do graduate, we will always have the altar server’s hearts in us. Our purpose will not over even then. Our purpose will last forever, helping God and to improve the faith of others and convince others to become one too.

I am so thankful for all those who helped me. I especially thank my parents for leading me to this opportunity to serve at the altar and to explore what it is to be like an altar server.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my priests, Father Luke, Father Michael, Father Bang, and Father Park, who have trained and encouraged me to serve at the altar. I like to thank my friends who have made altar serving more happy and exciting for me. I would like to give a humongous thank you to God. Without God, I wouldn't have had this wonderful life and altar serving experience. Thank you SO MUCH!!!!!!!!!!

I am going to be very sad to leave altar serving next year, but I hope the new altar servers have the best experience altar serving like me!!!!



My Special Experience at Sunday School

권지연 마리아(Sunday School Instructor_1st grade)

I am shy, very shy, in fact.

As far as I can remember, I have always been timid. My parents told me that until I was five, I did not speak, other than “umma.” They were very concerned that I may have a disability but the doctor told them there was nothing physically holding me back from speaking as a child. When I was younger, I had an extremely hard time speaking in front of people, especially in front of a crowd that I was not familiar with. I can still remember vividly how nervous I was to present my science project in front of my class in middle school, how I almost went into tears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when our priest made me do a reading during Mass in high school, how I broke out into hives all over my face during bible study session, and many other incidents that made me want to hide even more. Now, all these incidents seem to be stories from long ago. It is amazing how my family and friends at St. Andrew Kim have helped me overcome my challenges.

When my family moved to the States 21 years ago, my mom decided that our family would attend a Catholic church. Although going to a church was not a new setting but a Catholic church was different from a Presbyterian church we were connected with in Korea. I remember the fear of attention creeping up on me as I walked into that 2nd grade room at the College Park church on my first day of Sunday school. I sat quietly in my chair, counting the minutes, the seconds until the class let out. As that marks the beginning of my Sunday school experience.

From that point on, I made diligent effort to attend Sunday school, or at least, I tried. Then, slowly, I noticed changes taking place. I was able to make new friends, join the choir,(which did not require an audition even for a tone deaf singer like myself), participate in youth group activities such as summer camps and retreats, and serve as an

officer for the youth group during my senior year. Little by little, I found myself opening up at the comfort of my friends at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Simultaneously, there were more opportunities for me to stand in front of a crowd to share stories or make announcements or even give speeches. Although the hives never fully went away, my fear of speaking in front of a crowd was finally starting to decrease. Truly, it is a blessing to meet such a caring group of friends who understood and accepted me into this community.

Recently, I had a chance to serve as a chaperone for our high school retreat. With a tremendous support from our priest, myself, along with other teachers were able to plan and prepare for our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past 2 months. During retreat, there were times allotted for small group discussions, where we all got to share and reflect upon various bible passages. It was in those moments that I was aware of being recipient of the blessings that God continuously granted me through this community. As we were going around to share, I noticed anxiety in some participants and hesitation in others, making the effort to open up regardless. The realization came in the place as I was once that kid dreading my turn to speak. What a long way I have come up to this point. Now, was I really leading a mass, without a pair of nervous, sweaty hands or tears or hives on my face? As I was contented being present in the room, I imagined what it would be like for these kids as they get older at our church. I wondered if they too, will have their closest friends at church, instruct Sunday school classes, chaperone at summer camps and retreats consequently, sharing memories with each other just as I have.

If anyone asks today, I will confidently admit that I am shy but it is alright. As I have great friends who love and support me for who I am. As long as I dwell in God, in these moments of bliss here in St. Andrew Kim Catholic community, I feel truly loved.

Sunday School



김민수 로사 12학년

12 years, 626 weeks, 37,560 minutes; the time we spend at Sunday school. Typically we all think Sunday school is all about learning about God or reading the bible, but that is not true. Sunday school is not defined only by its name; it is defined by the things we do during the time we spend in it. Of course learning is a must, but that isn't the only thing we do every Sunday. We interact and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have fun while doing so.

Yeah, it's given that some might think of Sunday school as a boring thing where we only learn, but that is not the case. Not only do we build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we also build new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old relationships with those around us: friends, family, and with new people every day. It's a small society within which there are a variety of dramas and unforgettable events like. Coffee House where we show off to one another our talents to summer camp, where we get away from our daily stresses and distractions and spend time with one another; playing games while at the same time getting closer to God. We also feel many different emotions. Some fall in love, some develop hatred, and some make close friendships with each other.

The unique individual learn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through God's faith and creates a new atmosphere through fun youth group events every month, through relief retreats every winter and through eventful and adventurous camps every summer! Yes, Sunday school can be a bit boring sometimes, but that is all part of the unique experience one is involved in, which in the end turns out to actually be a part of a fun thing! Every week, we are able to see our friends and meet with God and have a fun time! Through Sunday school, God has brought all of us together in order for us to experience what many others might not be able to in their ordinary lives. In these 12 eventful years, I gained lots of experiences and it is time for me to share them with you.

My Experience of Altar Serving



최연서 아델라 4학년

I've always wanted to do altar serving because it looked fun and almost everyone I knew was doing it. I got permitted into altar-serving by going to 7:00 am mass and doing the rosary a lot. When I finally into altar-serving, I felt a lot closer to God.

I like altar-server meetings because we talk about what we have to watch out for when we serve, so we don't make mistakes. For homework everyday, the priest tells us to write one sentence from the bible everyday, and he checks at the meeting. When I copy a sentence from my bible, I understand how Jesus felt about everyone's sins.

I was nervous my first time I was serving because I thought I would make a mistake. But I didn't feel as nervous when I did bell for the first time because I had practiced a lot. I think practicing is the best way not to make mistakes.

I liked traveling with the altar-servers the most. We once all went to the 10th biggest church in the world, the national cathedral in DC! I heard from someone in altar-serving that they once went to the Six Flags, too! I hope I get to go there someday.

I wonder if you have a better chance of going to heaven if you do altar-serving. I hope you do. Even though altar-serving is hard, I want to keep on doing it because it helps me understand God better every time I serve at mass.

My Experience as a Sunday School Teacher

David Yu – 10th grade Sunday school teacher

I was ten years old, rather late compared to most Catholics, when my parents brought me into the Church. It was a time when I knew absolutely nothing about Jesus, but within months I was being poured with, what seemed to be, regular water and having this small wafer be placed in the palm of my hand. For many years following, my faith struggled to grasp beyond the visible, and once I was removed from all familiarities when attending college, the meager reality of my faith came to surface. Yet why did I continue to find myself sitting in the pews awaiting Mass and flipping aimlessly through Scripture? At first thought, the answer was routine and expectation(not of my own), but recent years have settled on a different conclusion.

The Church, of course, teaches us that we are offered to receive the Sacraments at an early age by the abundance of God's grace, but as many of my peers experienced, these were little more than scripted exercises we followed to please our teachers and parents. Therefore, attending Sunday School and Mass did, in fact, become nothing more than routine. As I progressed through high school, this routine continued and my spirituality matured very little.

Meanwhile, a struggle began to intensify, one that I believe all of our students endure today: that is, there is a deep yearning within us to find love, a love that fails to be described in words or images nor be solely provided by the friends and family who nurture us. Although my students may believe I have already aged to an older generation, I can recall the pressures and insecurities surrounding them, which, upon immediate reflection, may be oversimplified as barriers to the faith. However, I have discovered that once this very momentum of spiritual struggle converges on the love of Jesus Christ, the greatest of joys are to be found. All I needed was a slight nudge from the Church.

We have only but an hour on Sundays to focus on religious education, and so we certainly do not expect our students to remember countless chapter and verse in Scripture. Likewise, when I attempt to recall my own memories of attending Sunday School, it is difficult to recollect specific teachings. Instead, we pray that the Gospel embeds a curiosity in the students' hearts. As catechists, we believe that, no matter how far one strays from the life in Christ, the messages and images of Jesus we teach will continue to permeate until they can no longer be ignored but be explored!

I am convinced that this very curiosity was instilled in me during my earlier years of mindless routine, and once I directed it towards the Church, the rhetoric I conveyed my faith with greatly changed. The Mass was no longer a lifeless sequence of rites: It became the great banquet in which the heavenly sacrifice of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was being offered to us amongst all the angels in heaven. The Gospel was no longer jumbled stories of how we should treat one another: It began to reveal Jesus' Divine Plan in receiving the Salvation that He so dearly desires for us. By Jesus' grace and His bride, the Church, I began to discover, as our Holy Father describes, the "light of faith." I have been fascinated with joy ever since.

It all began with one step into the Church, and for even that one step, I am forever indebted to my parents and to the entire church of St. Andrew Kim that I now consider home. I thank all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in particular the pastors and mentors I have been blessed with, for offering me this vocation to spread the joy and love of Jesus Christ. I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s for the entire Sunday School program: the teachers, parents, and most of all, the students: that they may forever find comfort in Jesus Christ. And on this anniversary of our church, I cry out, "Saint Andrew Kim, pray for us!"

1974



2014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본당 연표



1974년

- 3월 19일: 초대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임신부 부임
- 5월 12일: 첫 야외 미사 봉헌(장소: 메릴랜드 워튼 공원)
- 6월 23일: 청년회 창립
- 10월 1일: 본당 신자 수 파악(157세대 500여 명 집계)
- 12월 31일: 송년 파티(장소: 트리니티 대학 체육관)

1975년

- 2월 23일: 오블레이트 칼리지(Oblate College) 성당으로 미사 장소 이전
- 3월 8일: 세인트 제롬 성당 피정
- 3월 23일~4월 5일: 이탈리아 로마 성지 순례
- 4월 13일: 본당 설립 총회
- 5월 4일: 신자 주소록 발간
- 5월 5일: 첫 사목위원 임명(회장: 김상규, 김헌태)
- 5월 18일: 볼티모어 한인 교우들과 합동 आय회(600여 명 참석)
- 7월 4~6일: 어린이 수련 대회(장소: 메릴랜드 오션시티)
- 11월 2일: 주일학교 백일장

1976년

- 1월 25일: 주소록 발간
- 2월 8일: 교리 강좌 실시
- 5월 9일: 춘계 야외 미사(장소: 버지니아 벨헤이븐 공원)
- 7월 15일: 청년회/학생회 수련 대회

1977년

- 1월 19일: 사목위원회 새 회칙 마련

- 1월 23일: 교회 일치 주간
(버지니아 한인 침례교회 박관민 목사 초청 설교)
- 2월 7일: 양 막달레나 수녀 부임
- 2월 25일: 춘계 구역 미사 시작
- 2월 27일: 신용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소집
- 3월 13일: 제1회 주임신부 배 탁구 대회(학생회 주최, 65명 참가)
- 5월 15일: 춘계 आय회(장소: 버지니아 벨헤이븐 공원)
- 7월 17일: 신용조합 개설
- 8월 6일: 주일학교 고등학생 및 교사 आय회
- 10월 1일: 교적 정리 시작(약 320세대)

1978년

- 1월 7일: 경로잔치(부인회 주최, 35명 참석)
- 1월 15일: 교회 일치 주간(워싱턴 한인침례교회 여운세 목사 초청 설교)
- 1월 26일: 서울 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본당 방문
- 1월 30일, 2월 3일: 구역별 무료 건강 진단(100여 명 진료)
- 2월 5일: 스키 강습
- 3월 5일: 개창 성가 연습 시작
- 3월 12일: 새 주소록 발간(320세대 수록)
- 4월 2일: 신용조합 제1회 정기 총회, 주일학교용 성가집 배부
- 4월 5일: 주임신부 배 탁구 대회
- 4월 23일: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부인회 주최)
- 6월 11일: 11개 구역 가정 방문 실시
- 6월 12일: 한글학교 설립
- 6월 18일: 본당 도서실 개방
- 6월 23일: 하계 수련회 실시(2박 3일)
- 8월 20일: 교회 건립위원회 구성
- 9월 10일: 건진성사 준비를 위한 문답교리 배부
- 10월 8일: 건진성사(집전: 마리노 주교)
- 11월 5일: 대학생회 창립
- 11월 12일: 성전 건립을 위한 여론 조사 실시
- 11월 14일: 서울 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본당 방문

11월 26일: 성전 건립을 위한 추수감사절 잔치

1979년

1월 28일: 새 주소록 발간 및 어린이 교리 교육 실시

2월 4일: 본당 설립 5년사 기념집 발간 준비

2월 28일: 사순절 선행 약속서 제출

3월 4일: 교회 건립 기금 마련 달력 제작 및 판매

4월 15일: 부활 대축일 및 본당 설립 5주년 기념 미사
(집전: 라이온스 주교)

4월 21일: 본당 설립 5주년 기념 탁구 대회

6월 3일: 성령 강림 주간 9일 기도 실시

6월 24일: 한글학교 첫 수료식

9월 30일: 초대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임신부
송별 미사(5년 6개월 봉직)
2대 한 바오로(홀트) 주임신부 부임

11월 18일: 안나회 발족

1980년

4월 6일: 세례성사 22명

6월 1일: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로 미사 장소 옮김

6월 20일: 가족계획 교육 실시

9월 7일: 미사 시간 변경(오후 1시)

9월 25일: 순교 복자 대축일 미사(집전: 학기 대주교)

10월 12일: 양 막달레나 수녀 이임식

1981년

1월 12일: 새 성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

2월 22일: 버지니아 지역 별도 미사 실시

2월 27일: 칼리지파크 새 성전 구입(폐쇄된 학교 건물 16만
100달러에 구입)

3월 1일: 새 성전에서 첫 미사 거행

3월 28일: 토마스 아퀴나스회(대학생회) 창립총회

4월 5일: 본당 버스 구입

5월 3일: 성전 건립 기금 마련 바자회(부인회 주최)

5월 22일: 토마스 아퀴나스회 피정(장소: 윈체스터 피정의 집)

7월 17일: 사목위원 피정(장소: 윈체스터 피정의 집)

9월 26~30일: 성령 세미나 개최

1982년

1월 29일: 워싱턴 교구 라이온스 주교 방문

4월 18일: 본당 유아원 개설

6월 8~9일: 신앙 새신의 밤 피정
(지도: 한 바오로 주임신부, 제주 교구 김창렬
바오로 신부, 서울 대교구 김대군 바드리시오 신부,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 안동 교구 정희욱 대건
안드레아 신부)

7월 18일: '게이트 오브 헤븐' 신자 모지 계약

12월 12일: 신자 교양 강좌 - '음주와 가정 문제'

1983년

1월 22일: 청년회, 토마스 아퀴나스회 스키 강습
(장소: 펜실베이니아 라운드탑)

2월 20일: 부인병 강연회(강사: 이 로사 박사, 부인회 주최)

4월 2일: 세례성사

5월 1일: 야외 미사(장소: 버지니아 벨헤이븐 공원)

5월 8일: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5월 28일: 이덕효 바오로 부제 사제 수품(본당 출신 첫 사제)

7월 29일: 견진성사(집전: 수원 교구장 김남수 안젤로 주교)

7월 30일: 주인배 베드로 부제 사제 서품식
(집전: 김남수 안젤로 주교)

8월 14일: 성모 동산 제막식(안나회 주최)

9월 11일: 본당 건축기금 모금 바자회(부인회 주최)

11월 27일: 한 바오로 신부 환송식

✧ 본당 연표 ✧

12월 1일: 3대 이세진 요한 주임신부 부임
 12월 11일: 교적 재등록 실시
 12월 11일: 주인배 베드로 신부 송별 미사
 12월 23일: 세례성사

1984년

1월 8일: 임신 중절 시청각 교육(강사: 김중호 미카엘 신부)
 1월 26일: 영어학교 개설
 2월 10일: 특별 강연(강사: 윤주병 베드로 신부)
 3월 2일: 본당 교우 윤지현 안드레아 형제 종신부제직 위한 식발례
 3월 30일: 사순절 특별 강연(강사: 황인국 마태오 신부)
 5월 6일: 본당 승격 헌판식 거행 및 축하 미사
 (집전: 희키 대주교)
 5월 12일: 제1회 본당 교우 친선 골프 대회
 5월 25~27일: 제1차 M.E. 모임
 6월 3일: 김중호 미카엘 신부 송별 미사
 6월 30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통합 결정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 학교)
 6월 30일: 성당 냉난방 시설 완비
 7월 1일: 친교실 주방 시설 완비
 8월 5일: 주임신부 전교 방송 실시(매주 1회 미주 방송)
 9월 15~16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바자회
 9월 15일: 윤지현 안드레아 형제 종신부제 수품
 9월 22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백건우 피아노 독주)
 9월 27~28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대강연회
 (강사: 마산 교구 박정일 미카엘 주교)
 9월 30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대미사(집전: 희키 대주교,
 장소: 내셔널 슈라인)

1985년

2월 6일: 특별 강연(강사: 대전 교구 윤종관 가브리엘 신부)
 2월 8일: M.E. 나눔 첫 모임

3월 10일: 교양 강좌 - "자녀와 한글 교육"(부인회 주최)
 3월 23일: 전 교우 대상 부부 일일 피정
 9월 14일: 흥성원 파스칼 형제 종신부제 수품
 9월 29일: 본당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10월 6일: 성모상 제막식
 10월 13일: 버지니아 공동체 첫 시목위원 임명(회장: 송상훈)
 11월 15일: 엄지원 미카엘 형제 - 평화의 모후(Our Lady Queen of Peace) 성당에서 시종직 받음
 11월 23일: 김 어거스틴 신학생 - 에미츠버그 성 마리아 성당에서 독서직 받음

1986년

6월: 주임신부 전교 방송 모음집 《아낌없이 주는 마음》 발간
 9월 25일: 버지니아 한인 성당 분리
 (원주 교구 박용식 시몬 신부 부임)
 11월 3일: 4대 유재식 안셀모 주임신부 부임

1987년

1월 11일: 노인 교실 시작(강사: 김 글로틸다)
 3월 1일: 새 성전 건립 상임위 구성(위원장: 남규백 프란치스코)
 4월 19일: 부활 대축일 미사 실황 중계(워싱턴 미주 방송)
 5월 15일: 레지오 마리아에 창단
 5월 24일: 청소년 연식 야구부 창단(감독: 장정웅)
 5월 31일: 전 신자 대상 종합 검진 및 검사
 (의료 봉사회 주최, 의사 14명 참여)
 6월 8~14일: 대전 교구장 경감홍 요셉 주교 본당 방문
 8월 6~8일: 은혜의 밤
 (지도: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유재식 안셀모 신부, 박용일 타대오 신부,
 성령 기도회 주최)
 8월 18일: 박정일 미카엘 주교(해외 교포 담당) 본당 방문
 10월 5~10일: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 10월 18일: 성전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 10월 25일: 혼배 허원 갱신식
- 10월 30일: 성전 부지 매입(메릴랜드 올니, 46만 달러)
- 11월 1일: 성전건립추진위원회 발족

1988년

- 1월 24일: 획키 대주교 본당 방문(성전 건립 노력 치하)
- 1월 10일: 의료 봉사회 봉사
(일반 진료 1, 3주 주일, 치과 진료 2, 4주 주일)
- 4월 3일: 부활 대축일 미사 실황 중계(미주 방송)
- 5월 8일: 구역부 개편
- 6월 5일: 청소년 마약 문제 부인회 특강(강사: 조세프 마 모)
- 7월 10일: 장년층(36~60세) 활동 단체 발족
(준비위원장: 정행룡 아오스딩)
- 8월 20~21일: 전 신자 피정(지도: 변갑선 치릴로 신부)

1989년

- 2월 12일: 건강 강좌(미 육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 로사)
- 3월 18일: 사순절 영화 감상-(초대 받은 사람들)(청년회 주최)
- 5월 14일: 주일 저녁 미사 시작
- 5월 14일: 구역부 개편(벨츠빌에서 그린벨트 구역 분리)
- 7월 8~12일: 대전 교구장 경갑룡 요셉 주교 본당 방문
- 7월 8일: 매주 미사 전 성전 건립을 위한 묵주 기도 시작
- 8월 12일: 하계 피정 - "생활 속의 신앙인"
(지도: 성병렬 아교보 신부, 엄지원 미카엘 부제)
- 8월 20일: 워싱턴 교회 대항 연식 야구 대회 본당 우승
- 11월 4일: 성가의 밤
- 11월 5일: 방지거회 창립(35~39세 형제)

1990년

- 1월 7일: 생활 강좌 - "실내 장식에 대한 기본 상식"
(부인회 주최)
- 2월 8일: 생활 강좌 - "청소년 정서 교육과 중년 부부들의 역할"(강사: 유근호 박사)
- 3월 4일: 제1차 혼배 준비 교육(지도: 엄지원 부제)
- 4월 7일: 사순절 특강(강사: 민경섭 박사)
- 5월 26일: 성모의 밤 및 성모 신심 특별 피정
(지도: 최경용 베드로 신부)
- 7월 8일: 워싱턴 교구 본당 주임신부 발령
(유재식 안셀모 신부: 7월 31일 귀임, 이덕호 바오로 신부: 8월 1일 부임 결정)
- 7월 20일: 유재식 안셀모 신부 임시 사목위원 직무 대리자 명단 발표(회장: 이용찬)
- 7월 21일: 워싱턴 교구 청문회 - 이덕호 바오로 신부 부임 취소 결정
- 7월 29일: 유재식 안셀모 신부 마지막 미사 집전 후 귀국
- 8월 1일: 5대 마크 브렌넨 관리 신부 부임
- 10월 5일: 주임신부 임명에 관한 청문회
(주최: 워싱턴 교구 인사 관리부)
- 11월 25일: 건진성사(집전: 코라다 주교)
- 12월 14~15일: 대림 피정(지도: 채준호 마티아 신부)

1991년

- 1월 20일: 부인회 특강 - "이중 문화권 학부모의 역할"
(강사: 한이라)
- 2월 2일: 사순 피정(대상: 부인회, 지도: 채준호 마티아 신부)
- 3월 15~16일: 사순 피정(지도: 채준호 마티아 신부)
- 3월 24일: 특별 강좌 - "한국여성과 한"(강사: 오봉환 박사)
- 5월 12일: 마크 브렌넨 관리 신부 수품 15주년 행사
- 5월 25일: 전주 교구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본당 방문
- 5월 31일: 마크 브렌넨 관리 신부 교구 복귀
- 6월 1일: 6대 이철호 암브로시오 주임신부 부임
- 7월 21일: 김기춘 알베르토 교우 교황 메달 수여(내셔널 슈라인)

✧ 본당 연표 ✧

7월 28일: 서울 대교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 본당 방문
 9월 1일: 주일 오전 7시 미사 시작, 주일 봉헌 행렬 시작
 9월 22일: 103위 성인의 모후 꾸리아 창설
 10월 27일: 바오로회(47~59세 형제) 첫 모임
 11월 10일: 요셉회(선종 봉사 팀) 창립
 11월 24일: 구역 대항 첫 연도 대회

1992년

3월 22일: 자녀 교육 특강(강사: 한혜자)
 3월 27~28일: 사순절 특강(강사: 함영권 유스티노 신부)
 4월 19일: 부활 대축일 미사(집전: 올리비에 주교)
 6월 29일: 인종 문제 세미나(성모회 주최)
 7월 5일: 성소후원회 첫 모임
 7월 12일: 성 김대건 신부 유해(척추뼈) 영구히 본당에 모심
 7월 18일: 토요일 특전 미사 시작
 7월 19일: 본당 종신부제 3인 워싱턴 교구 타 본당 발령
 7월 22일: 성경 공부 시작(지도: 로마 수학 이경상 바오로 신부)
 9월 19일: 건진성사(집전: 올리비에 주교)
 9월 20일: 성 김대건 신부상 봉헌식
 10월 25일: 연령 그룹 축구 대회
 12월 6일: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

1993년

2월 28일: 올리비에 주교 본당 방문 및 미사 집전
 4월 29일~5월 2일: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성지 순례
 5월 29일: 건진성사(집전: 올리비에 주교)
 6월: 이상욱 안토니오 형제 신학교 입학
 6월 16~21일: 주임신부 휴스턴 꾸르실료 지원 방문
 7월: 7~9월 여름 성경학교 개설(매주 수요일 미사 후,
 지도: 이동호 프란치스코 신부)

7월 21~23일: 레지오 마리에 봉쇄 교육(장소: 메릴랜드 로올라
 리트리트 하우스)
 10월 14~18일: 북미주 전체 올드레아 본당 개최
 12월 1일: 동중부(워싱턴 지구) 사제협의회 구성
 12월 24일: 성탄 미사(집전: 서울 대교구 김육균 바오로 주교)

1994년

3월 3일: 노인학교 창설
 3월 6일: 올리비에 주교 방문
 3월 13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첫 모임
 5월 1일: 야외 미사 및 본당 설립 20주년 기도문 봉헌 시작
 (장소: 메릴랜드 니드우드 공원)
 5월 8일: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미사를 위한 묵주 기도 봉헌
 5월 28일: 제1회 동중부 지구 5개 본당 대항 친선 골프 대회,
 워싱턴 본당 우승
 7월 17일: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미사
 (집전: 서울 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0월 30일: 노인 독감 예방 주사(이병기 의사)
 12월 4일: 건진성사(집전: 올리비에 주교 집전)
 12월 11일: 성탄 축하 음악회(주일학교 오케스트라,
 청소년·청년·성인 성가대)

1995년

1월 22일: 서울 대교구 최준규 미카엘 신부 방문
 2월 5일: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20년사 발간
 3월 19일: 7대 신정순 베네딕토 주임신부 부임
 5월 14일: 여성 암 예방을 위한 강연회(강사: 이화영)
 6월 17일: 주일학교 졸업 축하 음악회
 7월 16일: 한철(주관: 대건회 주관)
 7월 20일: 제5차 동중부 여성 꾸르실료
 8월 18일: 레지오 마리에 봉사 교육(2단계 2기) 참가
 8월 27일: 제19차 동북부 지역 성령 묵상회 참가
 11월 12일: 코라다 주교 사목 방문

12월 31일: 교우 직업 정보 일람표 제작(주관: 사회봉사부)

1996년

- 2월 11일: '세계 결혼의 날' 행사 참가(집전: 올리비에 주교)
3월 8~10일: 동부 지역 청소년 성체 대회 참가
3월 23일: 사목회 및 단체장 피정(지도: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
5월: 나눔의 회 창설
6월 29일: 신앙 강좌(강사: 이인복 마리아 교수)
7월 30일: 초청 순회 강연(강사: 김길수 사도 요한 교수)
9월 22일: 순교자 대축일 미사(집전: 코라다 주교)
10월 13일: 8대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 부임
10월 27일: 안드레아 청년 성가대 발족 및 청년 미사 신설
(주일 오후 5시)
12월 15일: 대림 피정 및 특강
(지도: 최준규 미카엘 신부, 송봉모 토마스 신부,
김종현 발다살 신부,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

1997년

- 1월 18~19일: 구역장 연수 및 피정
1월 26일: 베드로회(만 50~54세 형제) 창설
2월: 요아킴회(만 60~64세 형제) 창설
3월 23일: 새 성전 건축에 관한 설문 조사
5월 3일: 이병권 세바스찬 부제 서품식
5월 11일: 새 성전 신축 사업 계획 발표
6월 15일: 임승철 주임신부 취임식(집전: 로리 주교)
7월 13일: 제1회 성가 경연 대회
8월 15일: 새 신자 안내반 활동 시작
11월 9일: 제1회 연도 대회
12월 6일: 이병권 세바스찬 사제 서품식

1998년

- 2월 8일: 서울 대교구 장광민 요셉 보좌신부 부임
2월 12일: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 수품
10주년 기념 행사
3월 1일: 사순 특강(강사: 한정호 형제,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
3월 29일: 새 성전 설계 설명회
4월 19일: 동중부 합동 청년 야외 미사(집전: 홍근표 바오로 신부)
6월 27일: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송별 미사 및 피정
8월 9일: 서울 대교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 방문
8월 25~29일: 서울 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방문
9월 20일: 올리비에 주교 방문
12월 3일: 올니 새 성전 부지 축성식

1999년

- 1월 17일: 성경 필사 운동 개최
2월 7일: 특강 - "주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강사: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2월 15일: 은혜의 밤(강사: 오수영 히지노 신부, 오순절 평화의 마을)
3월 5일: 성경 대학 개강
3월 28~30일: 사순 피정(지도: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6월 6일: 올니 새 성전 부지 야외 미사
6월 13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성가 경연 대회
6월 23일: 동중부 청소년 신앙 대회
6월 26일: 견진성사(집전: 서울 대교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
7월 29일~8월 1일: 워싱턴 여성 제7차 꾸르실료
8월 15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사진전
9월 12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청소년 심포지엄
9월 18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9월 19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미사(집전: 로리 주교)
9월 19일: 성경 특강(강사: 임금자 알폰소 수녀)
10월 10일: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대바자회

- 10월: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주소록 발간
- 11월 17일: 노인 아파트 건립 정부 보조 확정
- 12월: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한 울타리》 발간

2000년

- 6월 25일: 올니 새 성전 부지 착공 미사
- 7월 7~9일: 동중부 레지오 기사 교육(지도: 주임신부)
- 7월 16일: 성전 건축 개요에 관한 본당 신자 총회
- 7월 19~22일: 성령 세미나(지도: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박용일 타대오 신부,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
- 7월 23일: 유방암 초기 진단에 관한 건강 강연
(동중부 의료 봉사단)
- 7월 26일: 성 라자로 마을 김화태 제르바시오 신부 방문
- 7월 30일: 광주 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특강
- 8월 4~6일: 청년 여름 캠프
(장소: 메릴랜드 네이비 레크리에이션 센터)
- 8월 6일: 특강 - "최양업 신부의 삶"
(강사: 청주 배티 성지 유한영 베드로 신부)
- 8월 13~16일: 주일학교 여름 캠프
(장소: 메릴랜드 애서테그 주립 공원)
- 8월 13일: 성경 특강(강사: 스키지 히데코 수녀)
- 8월 25~27일: 성경 특강(강사: 임금자 알폰소 수녀)
- 9월 17~19일: 서울 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본당 방문
- 10월 1일: 올리비에 주교 대화년 본당 순회 미사
- 10월 3일: 특강(강사: 이관석 요셉 신부)
- 10월 8일: 특강(강사: 이태성 아오스딩 신부)
- 10월 15일: 특강(강사: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
- 10월 21일: 성가대 창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 10월 29일: 새 영세자 아유회(장소: 그린벨트 공원)
- 11월 4일: 청년 연합회 문학의 밤
- 11월 5일: 주임신부 배 골프 대회
- 12월 17일: 대림 특강(강사: 김성호 베네딕토 신부)

2001년

- 2월 9~11일: 청년회 피정
(장소: 메릴랜드 말-루 릿지 콘퍼런스 센터)
- 2월 16~18일: 고등학생 겨울 피정
(장소: 버지니아 프론티어로얼 4H 센터)
- 2월 23~25일: 청소년 피정
(장소: 메릴랜드 에미츠버그 세인트 메리 칼리지)
- 2월 23~25일: 성경 특강(강사: 임금자 알폰소 수녀)
- 3월 2~3일: 밀알회 피정(지도: 최준규 미카엘 신부)
- 3월 17~18일: 사순절 특강(강사: 안상인 요셉 신부)
- 3월 19~23일: 이나시오 영성 피정
(장소: 메릴랜드 로올라 리트리트 하우스)
- 3월 25일: 사순절 특강
(강사: 갈멜 수도회 박태용 십자가의 요한 신부)
- 3월 31일: 동중부 성령 대회
(강사: 갈멜 수도회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4월 22일: 새 성전 건축에 관한 설명회
- 4월 29일: 미 동중부 지구 꾸르실리스타 봄 피정
- 5월 6일: 새 성전 부지 야외 미사
- 6월 23일: 워싱턴 지역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 참가
- 7월 15일: 성가 경연 대회
- 7월 20~22일: 청년 여름 캠프
(장소: 델라웨어 케이프 헨로곤 주립 공원)
- 9월 2일: 최준규 미카엘 신부 수품 10주년 감사 미사
- 9월 6~8일: 서울 대교구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본당 방문
- 9월 9~14일: 성경 특강(강사: 임금자 알폰소 수녀)
- 8월 23일: 테오도로 맥카릭 추기경 본당 방문
- 10월 2일: 동중부 사제단 회의
- 10월 7일: 신앙 특강
(강사: 한국 외방 선교회 정두영 보나벤투라 신부)
- 10월 14일: 일일 피정(지도: 예수회 김성호 베네딕토 신부)
- 10월 19~20일: 피정 -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다"
(지도: 최봉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버지니아 한인 성당)
- 11월 7일: 노인 아파트 기공식, 맥카릭 추기경 기념 촬영

11월 10일: 청년 문화의 밤

2002년

2월 8~10일: 청년 연합회 피정(장소: 버지니아 4H 센터)

2월 23일: 미 동중부 성령 목상회 및 사순 피정

2월 22~24일: 청소년 피정 - "두려워하지 말라 (Be Not Afraid)"

6월 7~9일: 청년 연합회 여름 캠프

6월 9일: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

6월 16일: 박원주 요셉 신부 송별 미사

6월 30일: 새 성전 제대 설치와 타임캡슐 봉인

7월 8~12일: 노인 아파트 입주 면접

7월 27일: 올드레아 및 2구역부 피정
(지도: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신부)

8월 4일: 올니 새 성전 이전 시작

8월 29일~9월 2일: 캐나다 성지 순례

9월 1일: 새 성전 초석의 글 채택 - "얼(넋) 푸른, 조국의 그리움,
영원히 빛날 대한의 후손들,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정성 들여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공모자: 오차환 요한)

9월 15일: 건진성사(집전: 올리비에 주교)

10월 6일: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송별 미사 및 새 성전
감사 미사

10월 13일: 9대 이찬일 안드레아 주임신부 부임

11월 5일: 노인 아파트 입주식과 기념 파티

11월 23일: 올니 새 성전 입주 미사 봉헌

2003년

4월 6일: 사순절 특강(강사: 최준규 미카엘 신부)

5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방문

5월: 신자 명찰 배포 -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5월 11일: 구역 성가 경연 대회(총 22개 구역 중 17구역 참가,
1등 포토맥, 2등 올니, 3등 락빌, 장려상 컬럼비아,
인기상 안드레아 아파트)

5월 11~18일: 주소록 사진 촬영

5월 18일: 최준규 미카엘 신부 송별 미사

6월: 성 김대건상 대성전 이동

6월 22일: 교육관 건립 기금 모금 골프 대회
(어퍼말보로 컨트리클럽)

7월 27일: 56일간의 전교 캠페인 시작
(미사 전 '선교 기도문' 봉헌, 평일 미사 전 묵주 기도,
매 미사 '전교하겠습니다' 복창)

8월 15일: 《가톨릭 기본 교리 상식》 책자 발간

8월 28~29일: 선교를 위한 은혜의 밤(지도: 박용일 타대오 신부)

8월 31일: 서울 대교구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 특강

9월 14일: 교육관 설계 설명회

9월 1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 도착

2004년

1월: 본당 교적 정리

2월 8일: 현금위원회 발족(투명하고 원활한 주일 현금 관리)

2월 29일: 성모회 친교실 부속 비품 마련 바자회

4월 16일: 창세기 입문 및 성경 특강(강사: 임금자 알폰소 수녀)

5월 16일: 성전 봉헌식 및 교육관 기공식

5월 23일: 주일학교 PTA(학부모회) 결성 모임

6월 12~13일: 최창섭 아우구스티노 종신부제 수품
(내셔널 슈라인) 및 본당 축하 미사

6월 20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본당 방문 및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미사 집전

6월 25~27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평신도 선교사 초청 행사
(신앙 교육: 박영수 바오로 형제 외 3인,
음악 선교사: 류계숙 리오바, 이재용 즈가리아,
박수자 엘리사벳)

6월 27일: 원종철 루카 신부님 귀국 미사

8월 8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DVD 제작을 위한 항공 촬영

9월 19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미사
(집전: 프란치스코 곤잘레스 대주교) 및 사랑의 잔치

10월 3일: 영어권 청년을 위한 주일 9시 영어 미사 신실
(집전: 톰 도나휴 신부)

✧ 본당 연표 ✧

- 10월 17일: 어린이 놀이터 건립 모금 골프 대회
 11월: 전 신자 대상 그룹 성경 모임(창세기, 마르코)
 11월 7일: 노인 복지 세미나 - "치매 환자와 가족, 양로원 정보와 정부 지원 혜택"
 11월 14일: 스테파노회 어린이 놀이터 기금 마련 바자회
 12월: 본당 재정위원회 신설(위원장 김진영 스테파노) 및 교무금 전산화
 12월 19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12월 24일: 세례성사집전: 워싱턴 교구 마틴 홀리 보좌주교)

2005년

- 2월: 사순 특강
 (강사: 정두영 보나벤투라 신부, 김병두 베르나르디노 신부, 박상훈 알렉스 신부, 영어권 프랭크 도니오 신부)
 3월 13일: 사목회 공개 총회
 3월 20일: 교육관 건립 기금 마련 바자회
 (성모회, 충구역부, 에이지 그룹 주최)
 3월: 주소록 발간
 4월: 치유와 은혜의 밤(지도: 다니엘 개그논 신부)
 5월 28~29일: 본당 출신 박 아담 사제 서품식(장소: 워싱턴 내셔널 슈라인 성당) 및 본당 축하 미사
 5월: 교육관 건축기금 약정
 6월 19일: 서울 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본당 방문
 8월 12~15일: 주일학교 여름 캠프
 (장소: 델라웨어 케이프 헨로프 주립 공원)
 9월 8~10일: 향심 기도 워크숍
 (강사: 서울 대교구 이승구 안드레아 신부)
 10월 9일: 본당 골프 대회(장소: 바일 매시)
 10월 16일: 교육관 봉헌식
 10월 19~22일: 본당 주최 제2차 성령 세미나
 (지도: 서울 대교구 성령 채신 봉사회 이창진 이플레오 신부, 안수길 콘라드 신부)
 11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상 축성식
 (집전: 올리비에 주교, 장소: 게이트 오브 헤븐)
 11월 26일: 청년회 주최 문화의 밤
 ('성 김대건 신부 이야기' 창작 연극, 율동, 성가 공연)

- 12월 4일: 대림 특강(강사: 서울 대교구 김재화 시몬 신부, 청주 교구 김대섭 바오로 신부)
 12월 11일: 본당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12월 18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DVD 시사회

2006년

- 1월 17~19일: 청년회 피정(장소: 버지니아 4H 센터)
 1월 20일~22일: 고등학생 피정
 (장소: 메릴랜드 가톨릭 유스 리트리트 센터)
 3월 12일: 사순 특강(강사: 청주 교구 김대섭 바오로 신부)
 4월 25일: 부활 특강(강사: 예수회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4월 30일: 사제관 건립에 관한 임시 사목 총회
 5월 28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 연주회
 8월 14~15일: 청소년 여름 캠프(장소: 메릴랜드 서미트 레이크)
 8월 25~27일: 청년 여름 캠프
 (장소: 메릴랜드 캐톡틱 마운틴 파크)
 9월 16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장학금 수여식
 9월 24일: 사제관 및 성당 진입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
 9월 30일: 제2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가을 음악회
 10월 8일: 불우 이웃 돕기 기금 마련 골프 대회
 (장소: 블루 매시 골프 클럽)
 10월 15일: 본당 가을 야외 미사(장소: 메릴랜드 락 크릭 공원)
 10월 18~20일: 본당 주최 제3차 '성령 안에 새 삶 세미나'
 (지도: 김용호 요셉 신부, 최 마르코 수녀, 김인순 선교사)
 10월 22일: 영어권 1일 피정
 11월 19, 26일: 본당 친선 탁구 대회
 12월 3일: 대림 특강(강사: 김태승 안티모 신부)

2007년

- 3월 24~25일: 사순 특강(강사: 박일영 교수, 강영옥 박사)

3월 25일: 예비 신자 교리반 담당 김 글라라 수녀 리치몬드 성당
이임 및 안 다니엘 수녀 취임

4월 22일: 부활 특강(강사: 예수회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4월 19~20일: 본당 주최 '치유와 은혜의 밤'
(지도: 김임순 오틸리아 선교사)

5월 5일: 제2회 본당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6월 10일: 본당 친선 골프 대회(장소: 뉴햄프셔 그린골프)

7월 14~15일: 고등학생 여름 캠프
(장소: 버지니아 포카혼타스 주립 공원)

7월 22일: 김철호 바오로 신부, 대형 '103위 성인 성화' 기증

9월 2일: 이찬일 안드레아 주임신부 송별 미사 및 만찬

9월 9일: 10대 박용일 타대오 주임신부 부임

9월 23일: 건진성사(집전: 서울 대교구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10월 14일: 제11회 불우 이웃 돕기 골프 대회
(장소: 블루 매시 골프 코스)

10월 21일: 가을 야외 미사(장소: 메릴랜드 락 크릭 공원)

10월 24~25일: 본당 주최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강사: 박용일 타대오 신부, 청주 교구 성령봉사회
박효철 베네딕토 전임 신부, 샌프란시스코 교구
김임순 오틸리아 선교사)

10월 28일: 주임신부 취임 미사(집전: 마틴 할리 주교)

11월 17일: 주일학교 텔런트 쇼

12월 2일: 대림 특강(강사: 청주 교구 김대섭 바오로 신부)

12월 16일: 성경 읽기 40주간 봉독자 수료증 증정

12월 29일: 청년 문화의 밤

2008년

2월 9일: 그룹 성경 피정(지도: 조영관 에릭 신부)

3월 14~16일: 청소년 연합회 피정(지도: 조영관 에릭 신부)

4월 12일: 주일학교 교회 대항 농구 대회 출전

8월 27일: 청소년 찬양의 밤

7월 24~27일: 영어권 꾸르실료(장소: 뉴튼 수도원)

6월 22일: 제3회 본당 교우 친목 골프 대회

6월 26일: 동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창설 25주년 박용일 신부 배
골프 대회

6월 28일: 청소년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 출전

8월 3일: 성경 특강 -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강사: 조화선 마오로 수녀)

8월 3일: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특강
(강사: 최규용 알베르토 교수)

8월 4~7일: 주일학교 여름 캠프
(장소: 메릴랜드 애사데그 주립공원)

8월 30일: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 초청 특강

9월 28일: 교우 친선 테니스 대회

10월 4~5일, 11~12일: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지도: 박용일 타대오 신부, 남해군 시문
동북부 성령 지도 신부)

10월 5일: 동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창설 25주년 미사 및 잔치

10월 5일: 에이지 그룹 친선 족구 및 피구 대회

10월 11일: 한글학교 가을 운동회

10월 19일: 구역 성가 경연 대회(1등: 컨그레셔널 구역)

10월 19~22일: 동중부 성령 세미나(지도: 김용호 베드로
미 동중부 성령 쇄신 봉사회 지도 신부,
장소: 메릴랜드 시튼 리트리트 센터)

10월 26일: 본당 가을 야유회(장소: 메릴랜드 니드우드 공원)

11월 1일: 청년 찬양의 밤

11월 2일: 교우 친선 테니스 대회

11월 16일: 제2회 주일학교 텔런트 쇼

11월 22일: 중·고등부 찬양의 밤

12월 6~7일: 그룹 성경 창세기 연수(지도: 김 마리릿다 수녀)

12월 21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2009년

1월 17일: 주일학교 찬양의 밤

3월 3~4일: 성령과 치유의 밤(지도: 폴비오 신부)

3월 15일: 사제관 기공식

4월 9~10일: 중·고등부 성주간 단식 피정

4월 19일: 자비 축일 행사

6월 7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 본당 연표 ✧

- 6월 27일: 청소년 워싱턴 지역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 출전
- 7월 19일: 스카폴라 봉헌식
- 9월 6일: 레지오 마리아 피정(지도: 조영관 에릭 신부)
- 9월 27일: 견진성사(집전: 워싱턴 대교구장)
- 10월 4일: 제4회 교우 친선 골프 대회
- 10월 4~8일: 동중부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장소: 메릴랜드 홀리 트리니티 스피리추얼 센터)
- 10월 25일: 정두영 보나벤투라 신부 환송미사
- 12월 13일: 경로잔치
- 12월 20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2010년

- 1월 17일: 성경 읽기 40주간 수료식
- 2월 15~16일: 사순 특강 - "선교 활성화"
(강사: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
- 2월 22일: 성경 읽기 40주간 시작
- 4월 2~3일: 주일학교 성주간 단식 피정
- 4월 11일: 방정영 요셉 부주임신부 부임
- 5월 15일: 워싱턴 지역 교회 대항 농구 대회 출전
- 5월 30~31일: 제3차 동중부 성령 대회
(지도: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 6월 6일: 꾸르실료 지도 신부 배 골프 대회
- 6월 19일: 워싱턴 지역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 출전
- 6월 27일: 교우 친선 골프 대회
- 9월 18일: 그룹 성경 일일 피정(지도: 김명교 베드로 신부)
- 10월 10일: 본당 야외 미사
- 10월 17일: '은혜의 날' 피정
(지도: 왕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10월 23일: 로사리오 성월의 밤
- 11월 14일: 꾸르실료 송년 잔치
- 12월 5일: 경로잔치

2011년

- 2월 6일: 성경 읽기 40주간 수료증 수여식
- 4월 10일: 사순 피정 - "시련을 통한 믿음의 성장"
(지도: 최준규 미카엘 신부)
- 5월 1일: 본당 교우 친선 골프 대회
- 5월 8일: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본당 방문
- 5월 15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단 연주회
- 5월 22일: 동중부 여성 제13차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식
- 7월 31일: 최창섭 아우구스티노 부제 송별 미사
- 8월 21일: 피정 -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공경"
(지도: 안상인 요셉 신부)
- 10월 16일: 박용일 타대오 주임신부 침순 축하 잔치
- 11월 5일: 성가정 작은 자매회 소속 수녀님 종신서원식
- 12월 4일: 대림 특강 -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여행"
(강사: 정규한 레오나르도 신부)
- 12월 4일: 경로잔치

2012년

- 1월 12일: 설 잔치
- 1월 29일: 2011년 영세자와 대부모 다과회
- 2월 4일: 주일학교 겨울 피정/ 청년부 스키 캠프
- 2월 19일: 2012년 성경 읽기 40주간 시작
- 3월 16~17일: 사순 피정 - "하느님의 자비와 십자가"
(지도: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 4월 7일: 부활 성야 예비 교리자 세례식 및 첫영성체
- 5월 6일: 본당 교우 친선 골프 대회
- 7월 6~8일: 청년 연합회 여름 캠프
- 8월 26일: 박용일 타대오 주임신부, 방정영 요셉 부주임신부 송별 미사
- 9월 2일: 11대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김기환 루카 부주임신부 부임
- 10월 7일: 친교실에서 체육 대회(우천)

11월 3일: 그룹 성경 가족 1일 피정
(지도: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11월 11일: 신앙의 해 기념 피정(지도: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12월 1일: 대림 피정(지도: 제병영 가브리엘 신부)

12월 9일: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취임식
(미사 집전: 도널드 월 추기경)

12월 15일: 송년 파티

2013년

2월 10일: 설 잔치

3월 31일: 부활 대축일 미사 및 영세식

4월 14일: 견진성사
(집전: 워싱턴 대교구 배리 네스타우트 보좌주교)

4월 25~28일: 여성 제14차 꾸르실료 교육

4월 28일: 부활 피정(지도: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

5월 5일: 어린이 첫영성체

5월 25일: 성모의 밤

6월 9일: 본당 교우 친선 탁구 대회

6월 30일: 성서 피정(지도: 윤 세라피나 수녀)

8월 11일: 기도 피정(지도: 정원일 가브리엘 신부)

8월 17일: 한여름 밤의 음악회

8월 25일: 청소년 성가대 성가 발표회

9월 15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불우 이웃 돕기 골프 대회

9월 22일: 야외 미사 및 운동회

11월 3일: 위령 성월 행사(장소: 메릴랜드 게이트 오브 헤븐)

12월 15일: 경로잔치

2014년

1월: 전 신자 구약 성경 읽기, 본당 설립 4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운동

1월 19일: 신년 피정 -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지도: 최준규 미카엘 신부)

1월 26일: 설 잔치

3월 23일: 사순 피정 -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지도: 손우배 요셉 신부)

4월 20일: 부활 대축일 미사 및 영세식

5월 1~4일: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5월 25~26일: 동중부 성경 대회(지도: 김명선 사도 요한 신부)

6월 6~8일: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피정
(지도: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

6월 8일: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미사
(집전: 서울 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6월 8일: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식 및 사진전

6월 9~12일: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협의회

6월 10일: 서울 대교구 미주 사제단 감사 미사
(집전: 염수정 추기경 및 사제단 18인)

6월 15일: 건강 검진 무료 봉사

6월 21~22일: 어린이, 청소년 신앙학교 개최

6월 29일: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골프 대회

9월 28일: 김종욱 미카엘 주임신부 은경축 감사 미사 봉헌

11월 9일: 워싱턴 대교구 설정 75주년 감사 미사 봉헌,
추기경상(The Cardinal's Award) 수상
(집전: 배리 네스타우트 주교)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신자들의 기도와 광고



40년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가정이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화목하고 일치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강승일 프란치스코, 강명희 올리아나
가정 봉헌

강철 요셉, 강용자 아멜로가
가정 봉헌

김덕중 베드로, 김혜란 글라라
선휘 스테파노, 신아 크리스티나
가정 봉헌

주님, 주님의 구원 사업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황과 늘 함께하시어,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강일규 유스티노, 이예랑 크리스티나
가정 봉헌

강희중 프란치스코, 강 루시아,
호영 다니엘, 호진 실비아
가정 봉헌

김구영 안드레아, 조은영 아녜스
김윤정 안젤라
가정 봉헌

주님, 저희를 낳아 기르시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신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어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김문현 루치오, 김영희 데보라
가정 봉헌

김선 아녜스, 김원 필립보
가정 봉헌

김성한 바오로, 김태경 비비안나
김지남, 김지혜
가정 봉헌

주님, 주님의 목자로서 자신의 삶을 바쳐
살아가는 사제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목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김성진 타대오, 김정화 크리스티나, 김송희정
가정 봉헌

김연석 다마소, 김윤정 에밀리아
진하 마셀라, 준하 니콜라스
가정 봉헌

김영택 미카엘, 김병진 미카엘라
두미 비비안나, 두을 바오로, 윤희
가정 봉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고 주님 영광 드리내게 하소서

김일건 로마노, 김민수 세실리아
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홍성 앤드류, 동호 니콜라스
가정 봉헌

김재영 요셉, 김형림 데레사
선일, 선영
가정 봉헌

김정욱 안드레아, 김숙희 마르타,
은경, 태웅
가정 봉헌

주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기로 결심한
수도자들이 스스로 응답한 삶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며 가난,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김종수 요아킴, 김인숙 안나
김원업 프란시스
가정 봉헌

김지만 요한, 김성자 안나
현식 베드로, 원식 애드윈
가정 봉헌

김진열 우르반, 김숙이 브랜디나
김기성 그레고리아
가정 봉헌

주님,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모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김창길, 김준우 요한, 김운 엘리사벳
김경희 데레사, 김미경
가정 봉헌

김호용 아브라함, 김정희 멜라니아
수진 아녜스, 예진 엘리사벳, 은진 아가다
가정 봉헌

김홍성 안드레아, 김동호 니콜라스
가정 봉헌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성소자들의 마음에 사랑과 용기를 심어 주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김효경 안드레아, 윤주 소피아,
지태 시몬
가정 봉헌

주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꾸르실료 진리팀 봉헌

나정수 보니파시오, 나 도미니카
나 베로니카, 나 베드로
가정 봉헌

주님!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주님,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교회가
참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남정 다윗, 안소현 에밀리아나
남혜민 사라
가정 봉헌

박영근 대건안드레아, 백승자 소화데레사
태현 베다, 지호 엘리사벳
가정 봉헌

박병훈, 박미경 로사, 박수삼, 성홍 저스틴
가정 봉헌

주님, 자랑스런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명하고, 주님에 대한 타오르는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서영식 벨라도, 서정화 올리아
현태 라파엘, 정연 미카엘, 현정 마리아
가정 봉헌

서혜경 마리아, 서영덕 요한
클로이, 유스티나, 미티엘, 크리스티나
가정 봉헌

신명덕 글로리아
가정 봉헌

주님,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의 고집이나 편견과 오해로
갈라진 형제자매들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일치함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신준호 토마스, 신태연 데레사
신보나 보나
가정 봉헌

신형우 시몬, 신진숙 엘리사벳
가정 봉헌

신화순, 제니퍼, 크리스티나, 케이티, 진환, 은비
가정 봉헌

주님, 여러 사정으로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 주님 품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안현수 방지거, 안승선 비비안나
안상준 필립
가정 봉헌

앤토니 윌리엄슨, 유스티나 행화
가정 봉헌

어윤한, 어명옥, 어은영, 어형선, 김정옥
가정 봉헌

주님 안에 평화!

주님, 평화를 갈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민족이
화해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참된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유능선 아오시딩, 유영복 수산나
가정 봉헌

유지태 돈보스코, 유정희 아녜스
가정 봉헌

유진호 베드로, 유 베로니카,
지현 다이엔 아나스타샤, 대현 어거스틴
가정 봉헌

주님, 일치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어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느님 품을 찾아
천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윤백영 필립, 윤천희 마리안나
가정 봉헌

윤석규 비오, 윤순옥 베로니카
고은 비비안나, 아름 프란체스카, 헬레나
가정 봉헌

윤요셉 요셉, 윤송화 마리아, 윤종성 토마스
가정 봉헌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소서

윤재웅 바오로, 윤 마리아, 이사벨, 소피아, 엘리
가정 봉헌

이동석 시몬, 이주은 헬레나
현준 티오도르, 현민 티모시
가정 봉헌

이상영 토마스, 이의정 카타리나
이상희 세실리아, 이찬희 요한
가정 봉헌

주님,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석진, 이혜란 모니카
손 이사벨라, 동윤 매튜, 상윤 요셉, 재윤 마르코
가정 봉헌

이수영 베드로, 이미숙 안나, 이아람, 이상훈
가정 봉헌

이신일 테오필로, 이분옥 헬레나
가정 봉헌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이다

주님, 모든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당신의 참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우창 요한, 이희정 수산나,
재훈 벤자민, 우림 로사리아
가정 봉헌

이정인 안드레아, 서미나
가정 봉헌

이중연 안드레아, 윤서연 소피아
가정 봉헌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임원수 요한, 임소영 프란치스카,
허정화 마리안나, 임필원 아녜스,
김성욱 토마스, 정태웅
가정 봉헌

장정웅 아오스딩, 장석영 스테파니
가정 봉헌

정유상 사무엘, 정경아 모니카
우석 베드로, 창석 바오로
가정 봉헌

주님,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세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정충모 프란치스코, 정복 글라라
가정 봉헌

조득만 베드로, 조선녀 이사벨라
가정 봉헌

조영진 이시도르, 장미향 크리스티나
가정 봉헌

주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구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사오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뜻대로 저희도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쓰게 하소서

허건행 야고보, 허 에데시아
하나 마리아, 성일 요셉
가정 봉헌

Kwak Jeng, Heajin Jeng
가정 봉헌

한국무용, 악기, 찬양무용 - 성인, 학생, 아동
박정숙(한국무용단장, T: 240-506-2058)

주님! 사랑합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건회 일동

하느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4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영원무궁히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신메리 데레사

가정 봉헌

본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덕상 요한, 이명희 레지나
상하 바오로, 수하 에릭,
주현 제시카

가정 봉헌

지난 40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갑진 스테파노
(사목회장 1996~1998,
건축위원장 1997~2010),
정영자 세실리아

가정 봉헌

주님!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주님 배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종균 시몬, 정혜경 모니카
정 크리스토퍼, 정 줄리안
가정 봉헌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봉헌합니다.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최 마태오, 최 세실리아
가정 봉헌

축하드립니다!
본당 40주년을……

최병국 안토니오, 최순환 데레사
윤희 아가페, 윤진 마리아
가정 봉헌



주님 안에 평화!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시편 117,24)



엘리컷타운 구역원 일동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포토맥 빌리지 구역원 일동

해미 구역 가족들이 본당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해미 구역원 일동

하느님께 영광, 감사, 찬미!



베데스다 구역원 일동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길중 프란치스코, 강희용 가타리나
석원 어거스틴, 덕원 유진
가정 봉헌

본당 4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워싱턴지부 후원회

주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김 디모테오, 안나, 제노
가정 봉헌

주님!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묵주 기도 3,000단을 봉헌합니다

김현기 분도, Stella, Catherine
Elizabeth, Anna
가정 봉헌

본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발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 루시아
봉헌

노벡(Norbeck)이여, 영원하라!

노벡 구역원
일동 봉헌

40년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
대건아파트에서 성당 가는 길,
우리 위해 밝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건아파트 주민 일동

주님 감사합니다!

박주성 프란치스코
봉헌

본당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백승환 스테파노, 백영숙 데오도시아
가정 봉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유세 스테파노
가정 봉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E. Gaithersburg 구역원
일동 봉헌

본당 40주년을
프레데릭 구역 가족 모두 축하드립니다

Frederick 구역원
일동 봉헌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이다

Congratulations for the 40th
Anniversary of St. Kim Andrew
Catholic Church!

FM 노래방 강미카엘
봉헌

잼마요가 스튜디오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라테스(Pilates)·에어로빅
요가 등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도록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직접 지도합니다.

강사:김상숙

경력: 원광대의 사범대 무용교육학과 졸업
1987년 에어로빅 전국대회 우승
에어로빅 강사 / 무용지도 교사

시간표

☐	오후 12:30 ~ 오후 2:00
☐	오후 7:30 ~ 오후 9:00
☒	모든 11:00 ~ 오후 12:30
☐	오후 7:30 ~ 오후 9:00
☒	모든 11:00 ~ 오후 12:30

Quest Fitness Center

TEL. 410.530.5335

10045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중대지하도 뒀)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봉헌하오리 받아 주소서.

감절 (로렐), 감응자 (아델도가) 드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응자의
로렐은 감응자의
아델도가는 감응자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인제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행복 원하나)

오늘은 잊게한 선배님. 전임신부님께
감나타 영광 드립니다. (정형모. 정복)



주님 감사합니다! ♡
김근삼 빈혜시오 김애린 아녜스
김인숙 아가다 김유나 ♡♡♡

짐 감사합니다!
정재우 레안나르도

본당설립40주년기념

천이역주
본당 40주년 기념은
주님 사랑에 감사
한 평은

소녀나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은복 축하합니다
은은후

본당 40주년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병희, 본당 40주년을
이종복 축하드립니다.
이종유 손정준.

축하합니다 조주하

聖友會一同

祝賀합니다 김영은 마태오.

로도의 사랑
이병희 (바오로)

卅週年創立紀念祝賀. 박래봉
祝賀합니다 강규태.

희상의 40주년
디산트키원 드림
Athena 2009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this
amazing church!
- Joseph Back

Happy 40th

Matthew

"일어나 비록이라."
주님의 사랑과 재물이
는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원 만나

Happy 40th!
- Greg Beck
Happy Birthday
David!!
Hope you and your
freshmen your strong!
- Ben Kim

Happy
Birthday. SAK!!
항상 고맙습니다
- 윤희영
안나

Happy
B'day!
- 이지나

Happy Birthday
SAK!!
- 권다혜 크리스티나

연례나 마음의 안락화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안드레아
권지혜 사바바

40년의
성공 감사합니다.
- 이영정 리아 -
스스로 거듭나며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허 아리보 -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우리 본당 - 안현숙 받지께.
호수의 사랑
우상나
주님 사랑정령에게 감사합니다
김영진

부족한
감사드립니다!
귀안 받으시요

주님의 사랑과 권리를
깨닫게 하소서
- East Smithsburg -
주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도 기뻐하시며 기뻐하소서!
주님 마리아에게 작비문 부탁드립니다.
영광찬 찬 안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사랑정령에게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이영정 리아 -

스스로 거듭나며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허 아리보 -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우리 본당 - 안현숙 받지께.

호수의 사랑

우상나

주님 사랑정령에게 감사합니다

김영진



주님! 사랑합니다 (고안나)

† 기쁨과 평화

주님! 은혜로 치켜 주심에
감사 하나이다.

베를린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경숙 목사님 목사님

(이 신약 대성회를 가십시오)

주님! 저희 위성촌 성당이 항상 평화와

분양 40주년
기념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식을 주십시오 (신시복 가령)

주님 사랑합니다 오십

주님 사랑합니다!

김애리아네스

주님! 늘 기워 주시어 (신도시아)

Congratulations
Thank you
- Michael
Choi

우리 성당 사랑합니다
그 시절 포항 여차
오늘의 따뜻한 성전
이유 없이 - 천안

† 주님안에 평화
남아있거라...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
저를 믿어 주십니다.

영수란 (마리아)

주님의 영광
백 감동

Congratulations,
happy go go.

- Andrew
young

20대의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20대-천우시아!
사랑합니다 20대-천우시아!
사랑합니다 20대-천우시아!

주님 사랑합니다
신앙의
신앙의
신앙의

사랑합니다.
주님에
기쁘게
축하합니다.

여러 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성촌 한인성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영호 베드로

영원히 남과함
김수남



찬미예수님
생지는 사랑
김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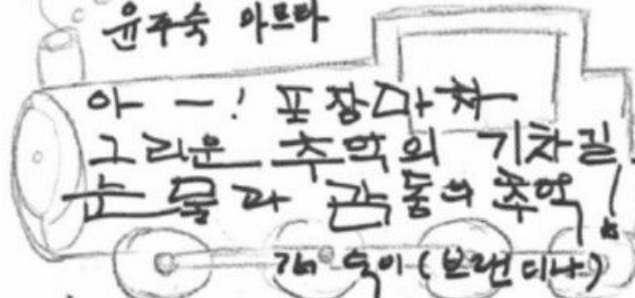
주님!
온갖 좋은것을 다주시는
우리 주님은 찬미 감사
받으소서.

최광현 안드레아
김계나 레나
최서연 세실리아
최석훈 마카렐

또 사랑합니다!!
김유현 (다넬리아)
김수현 (바나노)

주님 저 여기 왔나
찬이와 영광 받으소서

윤주숙 아르바



사랑합니다 (김종욱 미카엘 섹숨)

김연주 (Storia) Micah.
민혜기 (바실리오) 지현 (바실리아)

주님, 너무 마음이 벅차요!!

감사하리 사랑합니다! 아재깡
카라기야.

마음짱! 얼굴짱! 몸매짱!
목소리도 역시 짱짱짱!!!
본당 신부님 타이팅!

양재일 파스칸
양효자 마르타

주님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김종환
김주연

본당 설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리 평화. 기쁨으로...
안 다니에 두네.

우리 본당에
우리 성우님
바라주
당신이 여기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정수신나
우울하네요... 사랑합니다.

최성민 은민 천주교리
40주년은
빛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은,
백 능자 소화 데게사.

본당 40주년과 함께
한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이수범 프랜체스코

성인님! 함께 해주셔서

찬미 예수님

본당 40주년을 맞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모든 교수가 하느님의 영광되게 하소서.
김정희 멜라니아.

주님 저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백 경숙 테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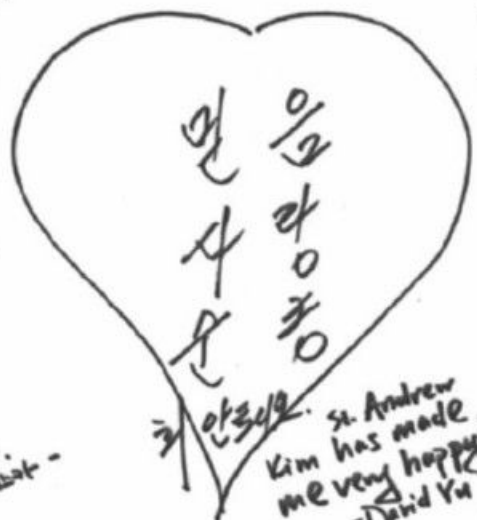
본당 40주년
제가 여기에 함께 있어 기
쁘습니다
오 아녜스.
손주자 Agnes



축!!
 주님 영광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최순환 테헤라
 최원희 아가씨
 최영진 마리아

주님은 기쁨의
 아들이다. 본방으로
 거듭 나면 기뻐합니다.
 - 김보희 포안보사 -

Thank You for
 Your love & help
 the future of our
 church



최안희씨. St. Andrew
 Kim has made
 me very happy!
 -David Yu 박양도씨이오.

주님기 복인
 은총으로 은양 수고하
 는 분이상이 신심으로
 축감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40주년 축하드립니다
 - 김선미 테헤라

주님 사랑
 김아인
 김영은

참고 아픈이 마음
 아슬거라 말지.

사랑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본방 설레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살림 설레 40주년은 즐거움과...
 이리저리 감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희영 라보

Praise & Glory
 in Your Name.
 Jennifer

은총의 주님!

몇몇 가족이 모여 시작한
 저의 보람과 기쁨이 어떤 40주년이
 되었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보람과 기쁨 항상 주님만이 이루어 주시어!
 김민호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호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영호. 태연. 보나.

기쁨의 40주년

-SIMON-

찬미와 영광
 이점영 모한
 주님! 베희영이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Diana

신제나 주님 지히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비 만분. 안나.

주님
 감사합니다
 - 김민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영희입니다.
 우리로 베희영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베희영. 전선원 마리아 유채. 다연

자비하신 사랑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멜라니아 죽 아브라함



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미국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에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포장마차의 열기가
주님의 전광을 마련한지
40년
주님 축하 받으소서
주님 축하 받으소서

주님에게서
돌보아 주신 40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킨회 일동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
-마리아-

바우랄엔 세레나 감사합니다
주님. 성모님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천안. 두니모 가족 드림

We are grateful to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Congrat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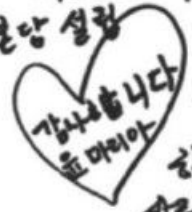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40th Anniversary +
Forever more to
Come.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당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러 주소서.
이내네인나. 4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 스테파노

주님! 우리 본당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o Augustine)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같이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루시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본당 설립 40주년 축하합니다
-각 재우 요한 가족-



하느님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리 도와주시어
이제 나이 60이 되었으니
사랑 사랑 언제나 사랑하시 노라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대로
지난 40년, 또 앞으로 대대손손 주님
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김영만 마태오/조희분 이카엘라



주님, 당신 생애의 역사하심으로
인리아 사랑의 용동처 이루어주옵소서.
최 랑 심 이루스데노스께

한미 예수 주님! 자의에게 형 화음 주옵시
조용한 안드리아
조거호 크리스티나
안드리아 마리아

하느님,
우리 Tommy & Kyjin
어제 사랑의 세상은 너에게
주어 2 영혼의 사랑의 산이기에
반영이 되게 하 주옵소서 - Stella -

주님!
우리 모두 사랑스런
한사슴이로.
이것이 사랑
사랑스런
사랑스런
사랑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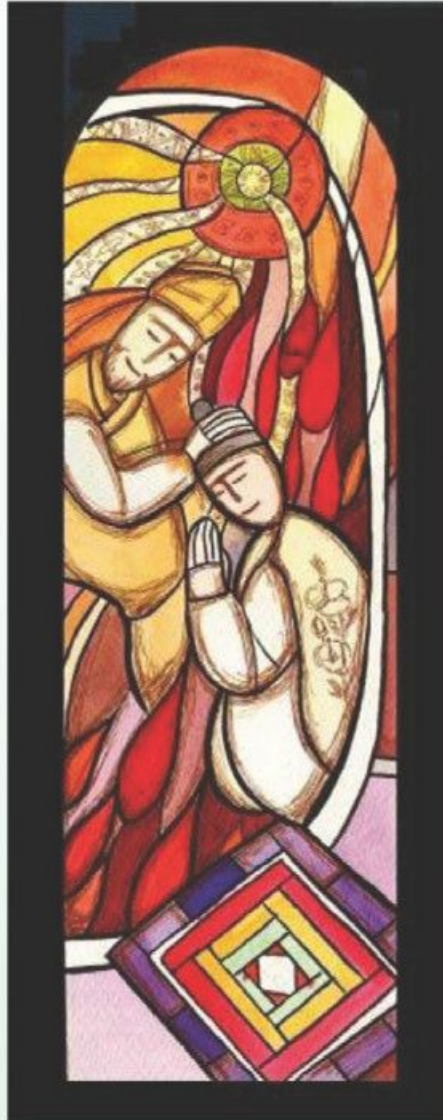
주님!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일이 은혜 주신 본당의
40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병희 (바오로)
이인숙 (마리아)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강동인 (올리비아)
하느님
찬미 예수님
영원의 사랑이 감사하네
이제부터, 모든 영혼의
영광을 위하여
김 미연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몸담신 성전에 영원토록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 일진 토마스.
김 병식 안드리아. + 찬미 예수님
Burtonsvill 화이팅.
후 40주년 !!



주님! 옆드려 감사드립니다.



- 회 장: 손순희 시몬
- 부회장: 임영태 야고보, 최병국 안토니오
- 총 무: 장문규 예로니모
- 총구역장: 김연석 다마소
- 연령그룹장: 김영택 미카엘
- 전 레: 유석구 요한
- 교 육: 권희성 프란치스코
- 사회복지: 맹일민 마르티노
- 성전관리: 서충원 요한
- 선 교: 김정순 베네딕다
- 기획/행사: 김덕중 베드로
- 문화/체육: 주성희 마가렛
- 흥 보: 김근삼 빈첸시오
- 성모화: 김숙희 마르타
- 청 년: 김세완 테드
- 청소년: 이경복 보니파시오

본당철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총구역부 / 구역장 일동



15

Jesus the True Vine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grower."
John 15:1

김연석	다마스	Fulton	이명희	레지나	Congressional	이성진	베드로
청효청	디모테오	가나안	권진혁	요한	E.Germantown	이창호	토마스
신명덕	글로리아	Fairland	박승규	프란치스코	N.Potomac	이천일	프란치스코
김성희	프란치스카	파티마	유성자	엘리사벳	W.Germantown	김지연	다니엘라
이형빈	요한	Laurel	김문천	루치오	Potomac	문주환	안드레아
권진혁	요한	해미	최재화	프란치스코	E.Gaithersburg	안수경	로사
박대식	스테파노	Silver Spring	김희태	안드레아	Potomac Village	신미현	스테파니아
이일복	마태오	대건	청속화	데레사	W.Gaithersburg	윤백영	필립
최원준	라파엘	Colesville	김정흠	스테파노	Rockville	김정희	멜라니아
김근표	라파엘	Ellicott Town	송영선	베로니카	Frederick	한경원	다니엘
민혁기	바실리오	Bethesda	이진우	베드로	Layhill	최영미	루시아
천천민	마리아	Greenbelt	이하택	엘리사벳	Wheaton	백경숙	글라라
					Norbeck	신환봉	베난시오



본당 창립 40주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것처럼 서로 사랑하시오”



성우회 회장 김병희(스테파노)외 회원일동
안나회 회장 이인숙(마리아)외 회원일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레지오 마리아에 전단원 일동

본당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2014년 복사단 가족 일동 †



Handwritten names and signatures of the choir members and priest, arranged in a cross shape:

- Top: *Yesu Lee* 이유래, *Austin Lee* 이민영, *KYUSHI KIM* 김기수, *Regina Chang* 장혜원
- Left: *Jason So* 서영택, *Christine Kwang* 권나현, *Min Jang* 장민
- Right: *Jacwoo Chung* 장재우, *Justin Roh* 노정환
- Center Cross: *Daniel Lee* 이현준, *Brian Gwak* 광재우, *Kim* 김경석, *Kim* 김경주, *Theodore* 이현준
- Bottom: *David Chang* 장성민, *ALEX MOON* 문기연, *Julia Kim* 김민지, *Sarah Nam* 남혜민, *Yuri Yi* 이유리, *Viola Kim* 김종, *Yubin Kim* 김유빈, *Angela Chang* 장혜정, *Kim Rae-hyun* 김태현, *Rachel Choi* 최연서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유다 1.2)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Solo Dios Basta!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 하도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이구화 요셉
정희 데레사
응태 제르미



양승우 베드로
선미 아네스
헤린 데레사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요한 21,16>

선교분과

예비자 교리반, 방문교리팀, 새 영세자반,
전입 교우반, 구역 선교반, 미디어 선교반, 피정녹음반원 일동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 우리반 • 나라반 • 새싹반 • 남해반 • 동해반 • 서해반 • 충무반 • 율곡반 • 세종반 • 마루반 • 성인반 •

권용준 김비아 권연우 권서진 김가연 강현준 권채이 구다소 김하늘 광재우 권익재 Chiang 박이솔 권효재 권혜은 김아인 권순민 김하연 김해나 남혜민 권나현 김레아 양동헌 문지윤 김선희 김진희 김현구 노은아 노성찬 문기연 김결 김진영 문지우 문태연 김소연 남민현 김현섭 문다연 문성현 이주완 김민지 김혜나 박수완 박재민 김현진 박효진 문성렬 문홍림 박레이든 김솔 돕손 미나 박진완 박지은 나리심즈 반다운 박폴지 바울 Heister 박케일런 박이오원 박지아 사이러스 윤성준 미나 아벨 류정은 배서준 이준영 반하리 장민 안소율 윤태원 윤원영 박성은 이소연 이재희 서영덕 배선웅 장재희 임소영 최연주 이유진 오수빈 이종규 김중원 김은비 정의석 양우진 양정윤 최흥주 최연규 한 다니엘 임현택 장경은 이채원 정준형 정진욱 용다현 한 올리비아 혜나 심즈 장재원 정지유 정혜나 조예은 조연재 이민영 한민종 정이안 하이스터 피아 최민수 홍주연 조현기 이수완 조승원 고수정 최해주 최연서 전해립 조하은 최진수 최호수



1978-2014

참되고 아름답게 뿌리를 꽃피우는 한국인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www.sakhangul.com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축!

본당 설립 40 주년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희성 프란치스코
권경희 아그네스
권오찬 미카엘
권나현 크리스티나



본당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상·순종·사랑

꾸르실리스타 일동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저희 요하킴 2반 회원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 김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요아킴 2반 회원일동

축 본당 40주년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성령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눔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리와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성령기도회 일동



주님!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모든 분들과 함께 평화를~



손재봉 필레몬/손금주 엘리사벳, 승범 안드레아, 엔젤라

본당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승리의 모후 Pr.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하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 오세요.

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

언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모임

연락처 : 단장 김숙이 브랜디나 240-481-4012

축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하느님의 은총안에
회원들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고
요셉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요셉회 일동

알렐루야 40 주년

축복 받은 우리성당
사랑으로 하나되어
십자가의 길 함께 가니
주님 고통 생각하며
년중 끈임 없이 봉사하세

노규형(마태오) 박호경(안나) 성찬(저스틴)
은아(케이트린)노학수(바오로) 장순자(율리아)



축! 본당 창립 40주년

Fairland 구역원 일동

강희중, 강루시아, 김계중, 김숙자, 김화자, 조경원, 윤정자,
맹일민, 맹인옥, 박승규, 박영제, 손순희, 손해규, 안현수, 안승선,
이선애, 이성찬, 송신녀, 장정웅, 장석영, 김선우, 김은경,
안일출, 안경숙, 이광순, 김대인, 이용재, 이매자



올니 성전으로 가는 길, 노벨 로드엔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다.

〈 편집 후기 〉

-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믿음의 40년, 감사의 40년》을 준비하는 과정은 길고도 어려웠습니다. 생업과 기정에 묶인 사람들이 짬을 내는 것도 일이었고, 사료가 부족해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과 사진으로, 따뜻한 격려로 도와주신 많은 교우분들이 계셨기에 이 책을 펴낼 수 있었습니다. 제프 한, 윤중완 형제는 본당 행사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40년의 발자취를 짚어 가는 일은 주님의 섭리를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본당 역사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교우분들의 모습과 글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뜻깊은 일에 저의 부족한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10년 후에는 더욱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편집장 김근삼 빈첸시오

- 우리 성당 40년의 역사를 담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함께 시작한 편집 일이 봄을 보내고 어느새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여서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주 모임 때마다 자리를 마련해 준 빈첸시오 형제님과 아가다 자매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성당의 역사가 나이들 더해 갈 때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도 함께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이지현 안나마리아

편집 후기를 쓰려고 펜을 잡고 앉으니 3년 반 전에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기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10년 가까이 냉담을 했던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부디 저를 지켜봐 주소서.”라는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40주년 기념집을 만드는 이 기회를 통해 주님께 드린 약속의 일부를 지키게 되었지만, 이 일은 우리 본당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바친 기도와 정성과 인내와 열정과 희생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기를, 비바람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40년 역사 속에 저를 불러 주시고 부족한 저를 도구로 써 주신 주님께,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의 역사를 전해 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전선민 마리아

40년 전 미국의 중심부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빛을 뿌리내려 온 본당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고자 시작된 기념집 작업……. 사진 관련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신자들로부터 기정에 보관 중인 옛 사진들을 수집하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 본당 신자들의 사랑과 열정을 알게 되었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밝혀 온 우리 본당의 설립 40주년 기념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과 기념집을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본당의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진 베드로

- 의욕보다 재주가 짧아 도움보다는 편집진에 짐이 되진 않았나 싶어 편집 후기 쓰기가 조금 부끄럽네요. 덕분에 즐거운 책 만들기를 보냈습니다. 희경 라헬, 아인 클라우디아, 영후 클라우드....., 의미 깊은 책이라 한구석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꼭꼭 눌러 담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김선테 라파엘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기념집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 모아 같이 작업한 편집위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기들끼리 보내면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아이들 애린이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념집 작업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숙 아가다

- 틈틈이 시간을 내어 수고한 편집부 가족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이 책에 묻어 나갈 기대하며.....,

박대식 스테파노

- 처음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설불리 도와 드린다고 했다가 40주년 기념집에 혹여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편집위원들께서 잘 이끌어 가시리라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요. 또한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믿었기에 이른 봄부터 함께해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와 맞물려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함께 모여 즐겁고 서로 힘이 됐던 추억만 떠오릅니다.

8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40주년 기념집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편집장님께, 또한 미미했던 저의 능력을 배로 만들어 주신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력하신 힘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그 능력을 하나로 모아 주신 하느님께 영광 드립니다. 작업하며 느꼈던 저의 행복을 모든 분들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윤 유스티나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편집위원들

왼쪽부터 이지원 안나마리아, 김선테 라파엘, 전선민 마리아, 김인숙 아가다, 김근삼 반헨시오, 이성진 베드로, 박대식 스테파노, (김소윤 유스티나는 사정상 사진에 없습니다.)